



정답과 해설

I. 개화기~1910년대	420
II. 1920년대~1945년	422
III. 광복 이후~1950년대	434
IV. 1960년대~1980년대	440
V. 1990년대 이후	461

정답과 해설

I. 개화기~1910년대

001

혈의 누_ 이인직

26~29쪽

키포인트 체크 개화, 부국강병, 청일 전쟁, 신문, 아버지

1④ 2② 3④ 4 사건에 사실성과 구체성을 부여하며,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5 근대화의 상징이자, 옥련이 신여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매개체이다. 6① 7⑤ 8⑤ 9㉠ 일본에서 구완서와 만남. ㉡ 미국 유학 중에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상봉하고 구완서와 약혼함.

1 이 글에는 '대관(일본 오사카), 기차 안, 미국 화성돈' 등의 구체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2 옥련은 기차에서 조선말로 혼자 중얼거리는 서생을 돌아보며, 그의 외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몇 해 만에 고국 말소리를 처음 듣는 지라. 반갑기가 측량없으나'라고 하며 조선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무척 반가워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옥련과 서생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 일본의 소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적은 없다.

③ 서생은 기차에서 만난 옥련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옥련이 자신보다 불행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④ 청일 전쟁으로 아버지와 헤어진 옥련은 일본에서 우연히 서생을 만나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간 것은 아니다.

⑤ 옥련의 부친 김관일은 청일 전쟁 후 미국으로 갔다가 우연히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딸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이다. 옥련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거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미국에 살고 있는 김관일은 화성돈 신문에 난 옥련의 기사를 보고 딸의 소식을 알게 된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신문'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이 글은 사건의 배경을 역사적 현장에서 찾음으로써 글에 사실성과 구체성을 부여하고,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식 +

• <혈의 누>의 계몽성

이 작품은 개화기를 배경으로 하여 옥련 일가가 겪은 일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개항과 서구 문물 수용에 따라 사회적 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근대 문물 수용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사상이나 풍습,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는데, 이 작품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기차나 광고, 우편제도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특히 이 작품은 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 결혼관, 언어문화 등과 같은 개화사상의 전모를 폭넓게 반영하고 있으며, 신교육, 자유연애, 남녀평등 사상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혈의 누>는 고전 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몽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이 글에서 '기차'는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 주며, 옥련이 기차에서 구완서를 우연히 만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신여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매개체로도 기능한다.

6 신문에 난 광고는 옥련의 부친이 옥련을 애타게 찾고 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며, 부녀 상봉의 매개체이다. 또한, 신문의 광고 내용으로 보아 김관일이 딸과 만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옥련이 보이에게 자신을 따라 가자고 말한 것은 부친이 광고에서 언급한 상금을 챙겨 주려는 의도이다. 옥련은 보이를 불신한 적이 없으므로 보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옥련이 부친의 처소를 찾아간 것은 부친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를 통해 옥련이 조금의 성격을 지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옥련이 뜻밖에 미국에서 부친을 만났으므로 반가움에 눈물을 흘린 것이다. 옥련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⑤ 옥련과 구완서는 학문을 위해 혼인을 미룬 것일 뿐, 구완서 혼자 옥련을 흠모하는 것은 아니다.

7 (나)에서 옥련은 구완서의 혼인 언론에 대답하며 그의 소청을 수용하고, 미국에서 함께 공부한 후에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인 언론을 마음대로 하려는 구완서를 원망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8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자는 구완서와 옥련의 낙관적인 세계 인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으므로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지식 +

• 최초의 '신소설'로 평가받는 <혈의 누>

- 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삼음.
- ② 언문일치(言文一致)에 근접한 문체를 사용함.
- ③ 서술과 묘사 중심의 서술 방식을 시도함.

9 <숙향전>은 난리 중에 아버지를 잃고 고생하던 숙향이 아버지를 만나고, 후에 이선과 결혼하여 정렬부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는 점에서 <혈의 누>와 비슷하다. 이 글에서 조력자는 구완서라고 볼 수 있으며, 옥련은 미국에서 부친과 상봉하고 구완서와 결혼까지 함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완서를 만나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이 ㉠에 해당하고, 미국 유학 중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상봉하고 구완서와 혼인 언약을 한 것이 ㉡에 해당한다.

002

구마검_ 이해조

30~33쪽

키포인트 체크 무속(미신), 다방골, 전부인, 재산

1⑤ 2① 3② 4 최씨 부인이 본디 무속을 잘 믿는데 집안에 거짓말 잘하고 염치없는 노파가 있어서 두 사람의 어울림이 마침 잘 맞았다는 의미로 인용한 것이다. 5 아들을 빌미로 최씨 부인을 더욱 무속에 빠지게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다. 6③ 7④ 8① 9 글쓴이는 미신을 숭배하여 풍속이 어지럽게 된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실생활을 중시하는 서양 사람들의 태도를 본받아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이 글의 서술자는 무당의 말을 신봉하는 최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가)의 '이는 북촌 세력 있는 토호재상(土豪宰相)에게 재물을 빼앗길까 염살 겸 흥부리는 계교러라.'와 (나)의 '사람의 일동일정으로 ~ 귀신의 농락으로만'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드러난다.

- 2 최씨 부인은 어릴 적부터 무속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온 까닭에 무속을 숭상한 것이다. 따라서 최씨 부인이 전 부인들에 대한 원망이 깊은 까닭에 무속을 숭상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② 최씨 부인은 노파가 지어낸 말을 그대로 믿고, 죽은 전 부인들의 귀신이 아이에게 덤빈다고 생각하여 전 부인들을 물리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무당을 통해 귀신을 쫓으려 하고 있다.
- ③ 함진해는 다방골에 사는 부자로, 집의 바깥 대문은 개구멍처럼 작은 데 집안으로 들어서면 고루거각(高樓巨閣)에 분벽사창(粉壁紗窓)으로 되어 있을 만큼 큰 집안을 이루어 살고 있다. 바깥 대문을 작게 만든 것은 토호재상들에게 재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 ④ 최씨 부인이 아들을 낳자 노파는 '칠성님이 돌보셔 삼신(三神) 행차가 계시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아들을 낳은 것이 삼신 덕이라며 최씨 부인을 꼬드기고 있다.
- ⑤ 최씨 부인은 함진해의 세 번째 부인으로, 아들을 낳은 이후 '그 남편 까지도 손톱 반머리만치 두려워하지 아니' 한다고 하였다.
- 3 ㉠은 최씨 부인의 미신(무속) 숭배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최씨 부인은 성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무당의 말을 믿고 굿을 자주 행하는 인물이다. 서술자는 ㉠을 통해 타파해야 할 잘못된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 4 ㉡은 '사람이 때를 만나 일이 제대로 잘 들어맞는다.'라는 뜻의 속담이다. 이 속담은 최씨 부인이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원래 무속을 잘 믿었는데, 집안에 거짓말 잘하고 염치없는 노파가 있어 두 사람의 어울림이 마침 잘맞았다는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 5 노파는 요사스럽고 거짓말을 잘하는 인물인데 마침 최씨 부인이 아들을 낳자, 전 부인의 귀신이 아이에게 덤벼든다는 말로 최씨 부인을 현혹시켜 무속의 세계에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기회로 삼고 있다.
- 6 함일청은 함진해의 잘못을 두고 미워써 대면하지 말자고까지 생각했으나 큰집 일이고 또한 자신의 도리를 생각해서 함씨 일가가 참석하는 총회에 가서 함진해를 두둔하기로 마음먹는다.
- ☞오답 틀어보기 ① 함진해는 가산을 탕진한 후 누대 제사에 고향(闕후)을 번번이 했다는 데서 제사를 번번이 지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함일청의 편지에서 그 형님이 장가 한번을 잘못 들더니 '집안에 가까이 단기던 정직한 사람은 모두 거절'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④ 함일청이 편지에서 '요괴한 말을' 끌어 내면 '비단 형장의 한 뼘만 부지하실 뿐 아니라, 나라도 가히 강케 하며, 동포도 가히 보존'할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함진해는 함일청의 편지가 올 적마다 큰집이 아니 되도록 휘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원수처럼 여겨 왔다는 데서 알 수 있다.
- 7 서술자는 천지 귀신이 '죽고 사는 권리를 실상으로 조종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으며 잘못된 믿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죽고 사는 권리를 조종하는 주체가 미신과 무속임을 비판하는 것으로, 서술자가 '죽고 사는 권리를 실상으로 조종하자'고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하더라', '하였으되'는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고어투의 말투로 신소설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② '일절 귀신 등의 요괴한 말을 한 비에 쓸어 버려'에서 귀신은 무속이나 미신을 나타내는 말로, 이를 쓸어 버려야 한다는 데서 작가의 미신

타파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천하의 교악망측한 연놈들만 집애다 붙이'었다는 것은 함진해가 최씨 부인을 비롯한 안잡지는 노파, 무녀 등을 가까이하여 미신에 깊이 빠지게 되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함일청이 '치산을 알뜰히 하여 형세도 점점 나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재산을 착실하게 모아서 가정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으로, 착실한 생활의 도모를 꾀하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8 ㉠은 생쥐가 입가심할 것도 없다는 뜻으로, 매우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는 속담이다. 이와 유사한 속담으로는 '서 발 막대 거칠 것 없다.'가 있는데 이는 긴 막대기를 내저어도 걸리는 살림이 없다는 말로 가난한 처지를 나타낸다.
- ☞오답 틀어보기 ②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③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사물을 두루 보지 못하고 융통성 없이 어느 한 면만 봄을 이르는 말이다. ④ '사포 떠난 뒤에 나팔 분다.'는 제때 안 하다가 뒤늦게 대책을 세우며 서두름을 뜻한다. ⑤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다.'는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음을 뜻한다.
- 9 편지에 따르면 동양에서 미신을 믿는 이유로 요괴한 선비들이 오행의 의론을 창설하여 길흉화복을 스스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무녀나 관수의 거짓된 능력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어 풍속이 어지럽게 된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는 서양 사람들의 실지, 즉 실생활을 중시하는 태도를 본받아 요사스러운 말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03

무정_이광수

34~37쪽

키포인트 체크 삼각관계, 개화, 개화기, 민족 계몽

1 ⑤ 2 ⑤ 3 ④ 4 민중과 민족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5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6 ④ 7 ③ 8 ④ 9 ③ 10 민중 스스로의 각성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소수의 지식인에 의한 민중의 각성만 중시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1 이 글은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구습 타파와 근대 문명의 지향이라는 계몽적인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1910년대 당시의 사회상을 바탕으로 이 형식을 비롯한 주인공들은 개화기의 전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언론일치의 구어체가 사용되고 있다.
- 2 이형식이 김병욱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형식은 수재를 계기로 민족 계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김병욱과 박영채, 김선형 역시 이형식의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
- 3 ㉠은 수재를 당한 민중들을 보고 이형식이 깨달은 내용으로,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4 지식인인 이형식은 민중들을 '저들'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우리'라 칭함으로써 민족적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난하고 무지한 민중과 하나

의 운명 공동체라는 깨달음이 교육과 근대화를 통한 계몽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 5 제시된 글은 <무정>이 연재되던 당시, 이를 읽고 김기전이 <매일신보>에 실은 평론의 일부이다. 당시 독자들에게 <무정>은 매우 인기 있는 연재소설이었기 때문에 제시된 글과 같이 소설에서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따라서 작가는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독자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글을 썼을 것이라 파악할 수 있다.
- 6 이 글은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현장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과거형의 서술 대신 현재형 서술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보다는 민족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며 계몽사상과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개화와 계몽 위주의 사회 현실을 경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7 이형식은 세 처녀에게 민족 계몽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달성할 사람들이 자신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즉,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세 처녀가 스스로 찾아보게 하여 민족 계몽의 사명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 8 이 글의 주인공인 이형식은 자신이 처한 세계의 문제를 파악하는 인식 능력을 갖춘 인물이며,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실천 의지를 지닌 인물이다. 반면 <보기>의 '나'는 암담한 현실에 대해 울분을 느끼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 9 박영채과 김선형은 이형식을 사이에 둔 연적 관계였지만, 수재 구호 활동을 함께하고 민족 계몽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생각을 지니게 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10 이 글에서 이형식으로 대표되는 지식인은 민중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들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민중들은 무지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진정한 사회 개혁은 민중 스스로의 각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의 지도만으로 이를 수 있다는 시혜적(施惠的) 계몽관만 중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II. 1920년대~1945년

006

만세전_염상섭

44~47쪽

키포인트 체크 비판, 자조, 여로, 일본인, 인식/발견

1 ② 2 ④ 3 ⑤ 4 ㉠: 무관심함./ ㉡: 반성하게 됨. 5 ④ 6 ②
7 ⑤ 8 '나' 역시 조선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고 조선의 현실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계집애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 9 '나'의 말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서술자)이 관찰한 내용과 판단한 내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2 식민지 농촌의 현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여유 있고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틀어보기

- ① (다)의 '일 년 열두 달 소나 말보다도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라기죽에 얼굴이 붉는 것' 등의 표현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②, ⑤ (가)의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등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실상은 누워~쉽습넌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다.

- 3 이 글은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나'가 귀국하는 여정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분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장인물에 대한 풍자나 당시 청년들의 윤리 의식 부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지식 +

• <만세전>의 여로형 구조

인생의 과정에 비유될 수 있고 세상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행기의 양식은 하나의 직접적인 수필 양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소설 양식으로도 자주 애용되어 왔다. [중략]

<만세전>의 경우 동경에서 서울로 이어진 길의 노상으로 말미암아 최초 8장이었고, 나중에 9장으로 개편된 길의 분할 자체가 곧 서술의 분량과 일치하고, 근대의 한 수도였던 공간에서 식민지 조국을 향해 들어오는 그 길의 뛰어난 환유성으로 말미암아 당시 조선의 상대적 봉건의 현실과 식민지적 착취의 현실이 예리하게 포착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기, <한국 근대 소설로의 길>

- 4 '나'는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이지만 조선의 현실에는 무관심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길에 조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보게 되면서 이에 분노하며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 5 (가)의 '함부로 세운 허술한 일본식 이층집'은 '지저분하고 좁다란 골목'의 일부분으로, 모두 조선인 거주지의 초라함에 대한 묘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6 '나'는 일제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의 처지에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값싼 낙천주의'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오래전에 헤어진 아버지를 찾아가려는 ㉡이 "아버지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찾아가면 설마 내쫓기야 할까요?"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일본인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 ① ㉠과 ㉡의 노력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은 물질보다는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거나 현실을 인식할 능력이 부족하며, ㉡은 어머니가 조선인이라는 사실보다는 일본인 아버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무지하거나 무기력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조상의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은 조상의 재산과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자기 혼자만 떠나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우리 민족의 무기력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또한 자기 성찰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이 작품에서 '나'는 일본 유학 중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조선의 현실을 목격한 뒤 분노와 안타까움, 비참함과 경멸의 시선 등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조선의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데, 이는 자신 역시 조선 사람임을 숨기고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A]에서 '나'는 조선 사람임을 거부하고 일본인이 되기를 원하는 계집애를 비난하고 있으므로, '나'와 계집애의 태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9 '물어 보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 짓궂이 물었다.'를 통해 계집애의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되는 상황에서 '나'가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계집애가 '나'의 말에 동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07 고향 _ 현진건

48-51쪽

키포인트 체크 연민, 기차, 수탈, 농촌

1 ① 2 ③ 3 ② 4 일제 식민지 현실과 이에 고통받는 '그'의 갈등
5 ① 6 ③ 7 ② 8 ③ 9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가 그를 이해하고 연민하게 되어 '그'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

1 (가)에서는 동양 삼국 옷을 입은 '그'의 외양 묘사를 통해 유랑 생활을 한 '그'의 과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② (가)에서는 대화, 행동을 통해 '그'의 인물됨을 드러내는 간접 제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③ (나)에는 사투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는 서술자인 '나'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이다.

⑤ (나)와 (다)는 비참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여 주는 부분으로 해학과 풍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이 글에서 '나'는 관찰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을 전달해 주며 '그'의 처지에 동정한다. 따라서 이 글을 제대로 수행 평가를 위한 발표 계획을 세운다면 '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간도나 일본으로 떠돌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당시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를 통해 엿볼 수 있다.

3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말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소작료를 물고 또 중간 소작인에게 빼앗겨 결국 농민들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 상황에

서 농민들 입에 붙은 말이다. 따라서 ㉠의 원인은 동척과 중간 소작인의 가혹한 수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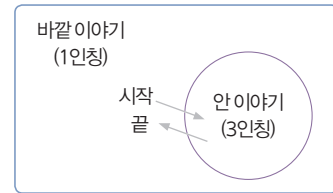
4 (나)에 나타난 주된 갈등 구조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다. 이 글에는 일제 강점기의 참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인물의 모습이 작품 전체에 드러나 있다.

5 이 글은 '나'와 '그'의 대화 상황을 바깥 이야기(외화)로, '그'가 경험한 일을 안 이야기(내화)로 구성한 액자 소설이다.

지식+

• 액자 소설(額子小說)

액자처럼, 바깥 이야기가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소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전개는 바깥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안 이야기로 이어지며, 안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바깥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개 바깥 이야기는 1인칭으로 서술되고 안 이야기는 3인칭으로 서술된다. 액자 소설은 안 이야기가 마치 실제로 벌어졌던 것처럼 믿도록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안 이야기가 여러 개인 순환적 액자 소설과 안 이야기가 하나인 단일 액자 소설로 구분된다.



6 '그'는 '눈물도 안 나오더마.'라고 말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눈물마저 흘릴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꺾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7 (나)의 서술자가 '그'로 바뀌었다면 '그 여자는 나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라고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나)는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는 그대로 '나'이고, '나'가 '그'에게서 들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보기 ①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연민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그'와 차츰 가까워지며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③ '그'의 이야기만 전해진다면 개인의 비극일 수 있으나, 그 여자의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삶의 비극성을 조선으로 확대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그 여자의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민요의 끝부분에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 유곽으로 가고요-'와 연결되면서 조선 여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그 여자의 삶을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안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나)에서는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중심 이야기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8 [A]에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서 좋은 농토가 신작로가 되는 일, 일분에 불만을 말하던 사람들이 모두 감옥으로 끌려갔던 일, 얼굴 예쁜 여자들은 가난 때문에 기생으로 팔려 가고 말았던 일 등이 산문으로 서술되는 것보다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9 '나'는 '그'가 못마땅하여 처음에는 '그'를 쌀쌀맞게 대하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낀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술을 나누어 마시며 울분을 달래고 있다.

008 삼대 _ 염상섭 52~55쪽

키포인트 체크 중도적, 사회주의, 가치관, 재산 상속

1④ 2⑤ 3② 4 착취, 피착취 5⑤ 6② 7② 8 당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9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된다.

- 이 글에서 덕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먹을 게 있는 것은 다행하다고 속으로 생각지 않는 게 아니나, 시대가 시대가 니만치' 친구로부터 '부르주아'라고 비꼬는 소리를 듣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처지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병화는 겉으로는 덕기를 비꼬는 듯이 말하지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으며 물질적인 면에서 덕기의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다.
- <보기>를 통해 이 작품이 당대 지식인과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상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의 '시대가 시대이니만치'라는 표현에 이러한 시대 상황이 잘 드러난다.
- "자네와 나와는 착취 피착취의 계급적 의식을 전도시키세."라고 한 덕기의 말에서 병화와 덕기의 상반된 처지를 명료하게 보여 준다.
- (다)의 "너는 이후로는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하여도 한 푼 막무가내다.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와 "내 재산이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냐 마는, ~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 테다."를 통해 조 의관은 상훈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조상훈은 겉으로는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등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자와 정을 통했으므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의 '표리부동'이 적절하다.
 - ① 오답 틀어보기 ① 수주대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각주구경: 판단력이 둔하여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뜻
 - ④ 호가호위: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
 - ⑤ 견문발검: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
- [A]에서는 영감의 시선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체면 때문에 부당한 일을 남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감내하는 영감의 성격이 드러난다.
- 이 글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삼대를 통해 시대 변화와 함께 드러나는 사고방식의 차이와 갈등 그리고 식민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즉,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

• 사실주의

합리주의적 철학과 실증주의적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염상섭의 <만세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 등이 있다.

- <보기>는 이 글의 창작 시기였던 1930년대 경제상에 대한 내용이다.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혼란은 서민들의 일상과 신념에 영향을 주었다. 이 글에서 조 의관과 조상훈의 갈등은 모두 '돈'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는 당시의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서민들에게 몰들어 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009 고향 _ 이기영 56~59쪽

키포인트 체크 계몽, 농촌 마을, 두레

1④ 2⑤ 3 마을 사람들 간의 불화(갈등)가 해소되었다. 4① 5① 6④ 7③ 8②

- (나)의 '아침 해가 뿌주름히 솟을 무렵에 이슬은 ~ 푸른 물결이 굴살거린다.'에서 자연 배경 묘사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자연 배경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한 부분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나)의 '이튿날 아침에 집집마다 한 명씩 나선 두레꾼들은 농기를 앞세우고 안승학의 구레논부터 김을 땀다.'를 통해 안승학의 논부터 김매기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두레는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을 말한다. (다)에서 백룡이 모친과 쇠둑이 모친은 두레를 결성한 이후 서로 화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두레가 마을 사람들 간의 불화(갈등)를 해소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견원지간(犬猿之間)'은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마을 사람들 간의 불화가 심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하다.
 - ① 오답 틀어보기 ② 금란지교: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 ③ 당랑거철: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 ④ 청천벽력: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이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토시구경: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 ①은 풍물놀이에서 참여하여 신나게 징을 치며 농민들과 어울려 노는 희준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이다. 즉, 풍물놀이를 하는 희준의 실력이 보통이 아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 ② ㉠은 희준이 농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 ③ ㉡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희준이 농군이 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 말로, 희준의 처지를 부러워해서 한 말은 아니다.
 - ④ ㉢은 월급 생활을 하는 것보다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을 교화하고 각성시키는 일이 더 의미 있다는 희준의 인식이 반영된 말이다.
 - ⑤ ㉣은 농민들과 처지가 다른 희준이 농촌 생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므로 무지한 백성을 무시하려는 조침지의 심리가 반영된 말은 아니다.

- 6 (나)에서 희준은 서툰 솜씨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논에서 김을 매고 있다. 따라서 혼자 외롭게 김을 매고 있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7 [A]에는 피지배 계층인 농민에 대한 희준의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다. 희준은 농민들이 우매한 존재이고, 숙명적 인생관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피지배 계층인 농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매한 존재로 보고 있다.
- 8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김매기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에는 오히려 흥겨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a.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c. 이 글은 '추렴을 들었다, 듣고 있었다, 꾀꿉 앓았다' 등에서는 과거 시제를, '웃는다, 노려본다, 뉘우쳐진다' 등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제의 변화가 나타난다.
d. 무더운 여름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희준이 땀을 흘리며 힘겹게 김매기를 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e. 희준과 마을 사람들의 대화와 행동 등을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10 달밤_ 이태준

60~63쪽

키포인트 체크 순박, 각박, 성복동, 원배달, 현실

1 ③ 2 ④ 3 ④ 4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말입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시다. 5 ④ 6 ④ 7 ⑤ 8 ③
9 달밤의 분위기를 통해 비극적 결말을 서정적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여운 있는 마무리를 통해 주제를 극대화하고 있다.

- 1 황수건과 '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주로 황수건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황수건과 '나' 사이에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보기 ① 황수건의 특이한 생김새를 통해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1인칭 관찰자인 '나'가 황수건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④ 모자란다는 이유로 황수건을 해고하는 사회에 대한 원망을 통해 각박한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느낄 수 있다.
- 2 <보기>에서는 소외된 자들에게 보내는 이태준의 따뜻한 연민의 시선이 그들과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우월 의식에서 나온 동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㉞에서 '나'가 황수건의 성공을 좋은 친구가 출세한 것처럼 즐겁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황수건과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나'는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순수한 황수건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황수건이 원배달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다. 따라서 미심쩍은 표정으로 격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나)의 새로 온 배달부의 말에서 황수건이 원배달이 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나 있다. 사람들은 황수건을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며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5 황수건이 영똥한 말을 늘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장구를 치며 적극적으로 받아 주고 있다.
- ☞오답 풀이보기 ㉞ '나'가 황수건의 말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㉝ 황수건은 신이 나서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있다.
㉜ 황수건이 '나'의 반응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6 황수건은 신문 보조 배달부에서 쫓겨나고, 새로 시작한 참외 장사마저 실패로 돌아간다. 그런 와중에 아내마저 가출하는 등 안 좋은 일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황수건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 ☞오답 풀이보기 ① 첩첩산중: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깊은 산골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함.
② 내우외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란 뜻으로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겹쳐 나타날 때 쓰는 표현
③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⑤ 엮힌 데 엮힌 격: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치어 일어남을 이르는 말

- 7 ㉝의 '남'은 살림을 제대로 꾸려 갈 수 있을 정도의 모자라지 않은 보통 사람을 말한다.
- 8 '나'가 황수건이 고마움의 표시로 흠쳐다 준 포도를 입안에 굴리며 오래도록 먹는 것은 그 포도에 담긴 황수건의 진전하고 순박한 마음을 오래도록 느끼기 위한 것이다.
- 9 거듭된 좌절을 겪은 황수건의 안타까운 모습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달밤의 모습과 대비되어 애상적 정조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의 정서를 돋보이게 하고, 여운 있는 마무리를 통해 주제를 극대화하고 있다.

011 레디메이드 인생_ 채만식

64~67쪽

키포인트 체크 지식인, 취업난, 일제강점기, 빈곤, 기술

1 ③ 2 ④ 3 ① 4 직업을 구하지 못해 가난한 처지에 놓인 P가 구걸이나 도둑질 없이 한 해를 무사하게 살아냈기 때문이다. 5 인쇄소 일을 배우면 생활의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 ① 7 ② 8 ④ 9 창선을 잘 돌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미안함과 가여움 그리고 창선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

- 1 P가 실업으로 인해 가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나 전보를 받고 갑자기 정신이 난 듯이 찢찢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설명한 부분을 통해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직접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과 해설

- 2 ㉠은 무직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P가 아들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3 ㉠은 P가 창선에게 학교 공부를 시키지 않고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낸 말이다. 이는 창선을 기술자로 키워 자신처럼 빈곤하게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 4 ㉠에서 식민지 시대에 고등 교육을 받고도 실업자가 되어 빈곤한 처지에 있는 지식인 P가 구걸이나 도둑질 없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 5 P가 창선을 인쇄소에 보내 취직시키는 것을 '약'이라고 한 것은 인쇄소 일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6 ㉠은 창선이 아버지를 찾아 경성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외할머니가 창선을 위해 가져온 것으로, 창선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나타낸다.
- 7 이 글은 P라는 무직 인텔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의 궁핍한 생활과 가족, 사회 현실에 관한 생각 등을 담고 있다. ㉠의 '레디메이드 인생'은 기성품처럼 이미 만들어진 인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 8 P가 첫세벽부터 '서투른 솜씨로 화로 밥을' 짓는 것은 아들 창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행동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가난하게 살아가는 처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① **오답 풀이보기** ① '고구라 양복'과 '이화표 붙은 학생 모자'는 일제 강점기 학생들이 입은 양복과 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설의 배경이 일제 강점기임을 나타낸다.
- ② P가 창선이를 학교 대신에 '인쇄소에 가서 맡'기는 것은 아들 창선을 지식인으로 키우기보다는 기술자로 키우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③ P가 언급한 '레디메이드 인생'은 기성품 인생을 나타내는 말로, 교육 기회의 확대로 양산되었지만 사회에서는 취직도 제대로 못하는 지식인이 되는 현실을 나타낸다.
- ⑤ 창선의 외할머니가 '데리고 있기 정 불편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P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한 말로, P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데리고 있기 불편하면 도로 내려 보내라는 의미이다.
- 9 P는 오랫동안 시골 형님에게 맡겼던 창선을 보자 미안하기도 하고 가여운 마음도 든다. 또한 막상 아들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식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기도 한다. 따라서 ㉠과 ㉡은 P가 창선에 대한 미안함과 가여움,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012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_ 박태원 68~71쪽

키포인트 체크 고독, 행복, 황금광 시대, 물질 만능주의

- 1 ④ 2 ② 3 ④ 4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목적이 있지만, 구보는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5 ③ 6 ④ 7 ⑤ 8 일제 강점기에서 돌파구가 없었던 지식인의 고독과 도시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잘 드러낸다. 9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

- 1 이 글은 현재형 문장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추측형 문장을 통해 구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의 서술자

는 구보의 시각에서 작품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2 구보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당시의 세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 3 구보는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으며 식민지 사회의 변화 조짐 또한 살펴볼 수 없다.
- 4 전차가 오면 타고 내리며 제 갈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구보는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식+

• 소설가 구보 씨의 '고독'의 의미

소설가 구보는 세속적 일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고, 세계와의 화해를 거부하는 고독한 삶은 그 중후로 모든 신경 조직의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소설가 구보는 정신과 육체, 모든 면에서 일상적 욕망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적 현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보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의식, 무의식적으로 세계와의 불편한 관계를 거부하며 화해를 꿈꾸기도 한다. 이것은 고독 때문에 억압된 욕망들이 무의식 저편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의 한 양상이다. 구보의 갈등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풀고 억압된 욕망들이 구보의 의식 속에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집을 나오면서 어머니에게 대답을 못해 드린 것을 자책하는 구보는 바로 무의식 저편에 삶의 욕망을 꿈꾸는 고독한 소설가의 뒷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강진호 외, <박태원 소설 연구>

- 5 구보가 공적 서류의 수수료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비싸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 6 소설은 실재가 아닌 허구의 세계를 담고 있지만 소설의 주인공을 작가로 설정했을 때 진실성을 부여할 수 있고, 독자는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서술자를 작가 자신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소설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7 제시된 글에 따르면 자본을 앞세운 일제의 사업 위세에 비해 조선인은 금광 사업에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구보가 내신 무거운 한숨은 황금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기가 허황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8 이 소설은 구보가 산책을 하면서 여러 풍경에서 느끼는 구보의 의식의 흐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은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독과 도시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9 구보는 당시 사회를 황금에 미쳐 있는 '황금광 시대'로 보고 있다. 순수 학문을 하는 문인들까지 달려든 황금광 시대에 대해 씩씩해하며 비판하고 있다.

013 떡_ 김유정 72~75쪽

키포인트 체크 허기, 추운, 비난, 음식

- 1 ③ 2 ② 3 ③ 4 ⑤ 5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지녀야 할 관심과 애정 6 ⑤ 7 ② 8 ② 9 ① 10 옥이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고 탈이나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난 사건 11 ⑤

1 시골 마을에 사는 옥이네 가족의 궁핍한 생활이 그려지고 있지만 시대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었다’ 등의 과거 시제와, ‘-니다’ 등의 현재 시제를 혼용하고 있다.

② ‘이러던 것이 그날은 ~ 일어났다.’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서술의 초점을 옥이에게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덕희의 말을 빌리면~’에서 덕희에게 들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로소 온 보람이 있었다. 어머니는 험하게 죽 한 그릇을 떠 들고 들어 온다.’를 통해 배가 고프 옥이가 빨리 밥을 먹고 싶어서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옥이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동네 계집을 비난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고깃국에 밥 마는 ~ 혼자만 짹짹거리다.’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즐겁게 음식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애가 얼마든지 먹는단 애유’라고 개똥어멈에게 묻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작은아씨는 옥이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내어주며 호의를 베풀고 있다.

⑤ 동네 계집은 옥이를 비난하고, 작은아씨는 음식을 주며 호의를 베푸는 것에서 알 수 있다.

4 ‘아버지는 이 꼴에 ~ 마뜩잖게 투덜거리다.’를 통해 옥이가 새벽부터 일어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이 글에서는 서술자가 배고픔을 면하고자 부엌을 기웃거리는 옥이에 대해 동네 여자들이 욕을 하며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보기>에서는 화자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과 <보기> 모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계집들은 몰려 앉아서 ~ 서로 떠들어대인다.’에서 알 수 있듯, 동네 사람들은 옥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분변을 당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거리로 여기고 있다.

7 ⑥는 개똥어머니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난 부분이다.

8 이 글에서 떡은 옥이가 평소엔 맛보기 어려운 음식으로, 옥이의 식탐을 자극한다. 또한 덕희는 옥이가 떡을 혼자 먹은 것에 대해 시기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덕희의 부성애가 드러나는 음식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옥이가 힘겹게 떡을 먹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느냐는 서술자의 지적에 개똥어머니가 배고파 먹는 것을 어떻게 말리느냐고 항변한 것과, 개똥어머니의 말에 대해 서술자가 ‘요건 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0 ㉔은 동네 여자들이 쪼고 까불고 서로 떠들어대는 ‘그때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똥어머니와 서술자의 설명을 종합할 때 옥이가 잔칫집에

가서 밥 한 그릇과 팔떡, 백설기, 주와 등의 여러 가지 떡을 먹고 탈이 나서 삼사 일을 앓고 난 뒤에 간신히 생기를 되찾은 일을 말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 ‘나’는 덕희가 욕을 퍼부으며 혼자서만 귀한 음식을 먹은 옥이를 시기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고, 덕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더 욕심을 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㉔에서 ‘나’가 덕희에 대해 느낀 감정은 괘씸하고 알미운 데가 있다는 의미의 ‘가증스러움’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014 만무방_ 김유정 76~79쪽

키포인트 체크 소작농, 만무방, 농촌, 응오, 망연자실

1 ⑤ 2 ④ 3 ⑤ 4 ⑤ 5 ③ 6 ⑤ 7 ① 8 성실하게 살아가던 응오가 도둑이 된 것으로 보아, ‘만무방’은 어떤 삶을 살아도 만무방이 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의미한다.

1 이 글은 버를 수확하지 않는 응오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응오의 눈에 벼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하는 응철의 심리와 행동 등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인물의 외양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응오와 응철이 겪은 사건 외에 다른 인물의 경험은 드러나지 않는다.

2 응오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현실에 크게 절망감을 느끼고, 버를 베지 않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3 응오는 버를 베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아내의 병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사실상은 버를 수확해 봤자 소작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베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㉔은 지주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㉔와 ㉕은 지주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④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를 통해 처음부터 응철이 지주를 거칠게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5 응철이 지주를 찾아간 것은 동생 대신 지주에게 도지를 감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ㄱ과 ㄴ을 같은 의도에서 한 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A]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응오의 궁핍한 처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ㄷ). 또한 형에게 들켜 일을 그르치게 된 데 대해 울음이 복받쳐 데통스레 걸어가는 응오의 모습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는 응오의 절박한 심정도 느낄 수 있다(ㄴ).

☞오답 틀어보기 ㄱ. [A]는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장면이므로 극적 긴장감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ㄴ. 이전에 응오가 형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에서 형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㉑은 응철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㉒~㉔은 모두 서술자의 시각에서 관찰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지식 +

• 이중 시점

한 소설 내에서 하나의 시점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시점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시점이 두 개 이상이라면 시점의 이동이 선명하게 다루어져야만 독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중 시점을 다루는 현대 소설이라면 보다 치밀한 구성이 요구된다.

- 8 처음에는 빛 때문에 부랑하는 삶을 사는 응철의 모습이 만무방으로 그려지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던 응오가 도둑이 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인 '만무방'은 어떤 삶을 살아도 '만무방'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015 봄·봄_ 김유정

80~83쪽

키포인트 체크 혼인(성례), 일제, 농촌, 몸싸움, 장인

1 ① 2 ④ 3 ⑤ 4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판단과 행동을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5 ④ 6 ② 7 ① 8 '나'를 충동질하다가 싸움이 벌어지자 아버지의 편을 든다. 9 '나'와 장인의 비정상적인 관계, 비속어의 사용, 장인의 속셈을 '나'만 모르고 있는 상황 등

- 1 (나)의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꺾소리 없이 왔다.'를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사건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전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일상적인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어서 현학적인 표현을 찾기 어렵다.
 ④ 이 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 2 어수룩한 '나'는 끝내 진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해학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3 ①에서 '나'는 꺽꺽 웃는 장인의 행동을 보고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즉 괄호 밖의 내용은 겉으로 나타난 장인의 행동이고, 괄호 안은 이에 대한 '나'의 주관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 4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어수룩하고 순진한 인물로, 자신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수룩한 서술자인 '나'의 행동이나 생각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5 '나'와 장인의 갈등과 화해라는 구조의 순환을 고려할 때 내년 봄에 또 다시 '나'의 성례 요구와 장인의 거부로 인한 갈등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⑤ '나'는 어수룩한 성격으로 인해 정확한 현실 인식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 6 이 글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술되고 있다. <보기>의 시 역시 1연에서는 여승의 현재의 모습을, 2연~4연에서는 여승이 되기까지의 여인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지식 +

• 백석, <여승>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사적, 회상적, 애상적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특징	①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절제된 시어로 표현함. ② 회상적 어조로 표현함.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 7 (가)에서 수염을 채고 점순이의 원대로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점순이의 충동질에 영향을 받아 장인을 공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8 점순이는 '나'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나'를 충동질하다가도 막상 싸움이 벌어지자 아버지 편을 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 9 이 글은 강원도 지방의 토속적 사투리와 비속어 등의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장인의 속셈을 모르고 어수룩하게 머슴일을 하는 '나'의 모습과 격투 장면도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16 화랑의 후에_ 김동리

84~87쪽

키포인트 체크 현실, 관념, 근대 사회, 양반, 과부

1 ① 2 ④ 3 ④ 4 ⑤ 5 ② 6 ② 7 과거의 권위에 연연하며 허세를 부리는 황 진사의 시대착오적 모습을 비판한다. 8 두꺼비 기름을 만 병통치약으로 팔고 있음.

- 1 숙모님과 황 진사의 대화를 통해 황 진사의 중매 문제에 대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2 황 진사는 숙모님이 소개하겠다는 여자의 조건이 상당히 좋지만, 과부라는 이유로 크게 분노한다. 자신은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 진사는 과거의 권위에 사로잡혀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는 인물이다.
- 3 황 진사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념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작가는 황 진사의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 4 숙모님은 황 진사의 반응에 무안해져 '어린 숫처녀 골라 혼인하라'고 대꾸한다. 숙모는 몰락한 양반인 황 진사가 자신의 처지는 돌아보지 못하고 과부를 중매하려고 하자 분노하는 태도를 보일 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 5 '나'는 숙부님이 피검된 상황에서도 자기 가문 자랑만 늘어놓는 황 진사를 보고 어이없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운함을 느끼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보기] ① 숙부님은 만주에서 발단된 '대종교 사건'에 연루되어 피검되었다고 하였다.
 ③ 황 진사와 마주쳤을 때 '나'는 숙부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 기대했다.
 ④ 황 진사는 '나'에게 자신이 화랑의 후에라고 자랑하고 있다.

⑤ 황 진사는 가별 의식에 사로잡혀 권위를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능한 인물로서, 가짜 약을 속여 파는 행위를 통해 그의 현실적 처지를 알 수 있다.

6 <보기>의 '의원'은 타향에서 혼자 앉아 누운 '나'에게 고향을 느끼게 해 주는 긍정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지식 +

• 백석, <고향>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주제면-서정적, 구성면-서사적
주제	고향과 육친(肉親)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대화 형식의 서사적 구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함. ② 다정다감한 어조로 고향과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함.

7 ㉠에서 황 진사는 자신의 조상이 화랑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양반의 자손이면서 화랑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황 진사를 문벌 의식과 가문에 대한 자부심으로 허세를 부리는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8 황 진사는 자신의 가문이 화랑의 후예였다고 '나'에게 감개하여 말하고 있지만, 현재는 몰락하여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두꺼비 기름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고 있다.

017 날개 _ 이상 88~91쪽

키포인트 체크 지식인, 방, 밀폐, 아달린, 날개

1 ① 2 ② 3 ③ 4 ① 5 ② 6 ① 7 ⑤ 8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아를 찾으려는 희망을 드러낸다. 9 사회관계와 인간관계 모두 단절됨.

1 (가)에서 아내는 '나'를 재우기 위해 한 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이라고 속이고 먹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에서 '나'가 아내가 불면증이 있어 아달린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 실제로 아내가 불면증이 있거나, 아달린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다.

2 이 글은 객관적인 외부 세계보다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되었다. 특히 내적 독백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지식 +

• 심리 소설

인물의 행동보다 내면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는 소설을 말한다. 심리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는 외부 사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외부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세기 초에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학을 발전시킨 이후 심리 소설도 무의식을 묘사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조이스 등이 사용한 의식의 흐름이 있다.

3 '나'는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준 아내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세상에 대한 실망으로 확대되어 인간 세상의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4 '나'는 자신에게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준 아내에게 배신감과 실망을 느껴 ㉠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5 이 작품에서 '나'는 다섯 번의 외출을 한다. 지문에 제시된 외출은 다섯 번째 외출로, 이를 통해 '나'는 아내에게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된다.

6 ㉠의 경성역은 일제 강점기 때 지금의 서울역을 지칭하던 이름이고, ㉡의 미쓰코시 백화점은 당시 존재하던 일본계 백화점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임을 알 수 있다.

7 정오 사이렌은 '나'가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자아의 각성을 가져오지만 사회 문제로의 확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8 '나'의 삶은 살아 있는 듯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어 날지 못하는 박제된 상태와 같다. 따라서 '날자고 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삶, 즉 삶의 의미를 찾아 자유롭게 이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9 이 글에는 '나'와 아내를 대조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인물의 성격이나 거처하는 방, 현실적인 능력 등을 통해 이를 보여 주고 있다. 보편적인 남녀의 관계와는 달리 이 글에서는 사회 활동을 하는 아내와 사회관계와 인간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으로 설정되어 있다.

018 동백꽃 _ 김유정 92~95쪽

키포인트 체크 눈치, 영약, 강원도, 사랑, 감자, 닭싸움

1 ② 2 ⑤ 3 ⑤ 4 '나'에 대한 점순의 관심과 호의 5 ② 6 ② 7 ④ 8 ④ 9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1 점순과 '나'가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계층 간 갈등보다는 청춘 남녀 사이의 순박한 사랑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오답 틀어보기** ① 점순이 닭싸움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건에서 나홀 전 감자 사건으로 시간을 되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③ '닭싸움, 동백꽃' 등의 소재와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④ 점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적극적이고 영악한 점순과 어수룩하고 듯한 '나'의 대비를 통해 해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이 글에서 '닭싸움'은 감자 사건에 대한 점순의 복수인 동시에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이다.

① **오답 틀어보기** ① '나'와 점순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나'가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점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닭싸움은 그 결과로 일어난 갈등의 한 모습이다.

③ '나'는 점순이 계속 닭싸움을 시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못살게 군다고 생각한다.

④ 점순네 수탉과 '나'의 수탉의 모습을 통해 불평등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3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3인칭 서술자가 주인공의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② 인물의 육성은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 할 때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인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므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4 '감자'는 점순이 '나'에게 몰래 건네준 선물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관심과 호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5 '나'는 핫김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고 그로 인해 벌어질 결과가 두려워 눈물을 흘린 것이지, 점순의 동정을 사기 위해 일부러 울음을 터뜨린 것은 아니다.

① (나)의 '동리에서도 소문이 ~ 여우 새끼 같다.'를 통해 '나'는 원래 점순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점순 어머니의 역정에 '나'와 점순이 산 아래와 산 위로 도망간 것으로 보아 '나'와 점순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려 함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나가 본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점순은 '나'를 괴롭히려 하고 일부러 닭싸움을 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나)~(다)에서 '나가 닭을 죽인 후의 반응으로 보아 '나'는 점순네 닭을 죽인 것에 격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동백꽃'은 '나'와 점순의 사랑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화해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7 점순은 '나'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지만, 어수룩한 '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8 '나'는 닭싸움을 시켜 자신의 닭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한 점순에게 화가 나 점순네 닭을 죽이고, 그로 인해 벌어질 결과를 걱정하다가, 점순이 이르지 않겠다는 말에 안도하고 있다.

9 이 글에서는 '나'와 점순의 사랑을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동백꽃 향기와 '땀이 끼치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의 비유적 표현을 이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19 메밀꽃 필 무렵 _ 이효석 96~99쪽

키포인트 체크 하룻밤, 달밤, 낭만적, 왼손잡이

1① 2③ 3② 4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5④ 6① 7 동이의 탐탁한, 업혔으면도 하였다. 8 조 선달은 독자가 허생원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1 허생원의 이야기는 꾸며 낸 이야기가 아니라 허생원이 젊은 시절 달이 뜬 어느 날 밤에 겪은 이야기이다. 허생원은 달이 뜨기만 하면 그 일이 떠올라 조 선달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A]는 허생원이 과거를 회상하는 계기가 되는 배경으로,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정취와 풍경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정과 낭만으로 빛은 집'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잘 드러나며 비유를 사용하여 작가의 작품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① [A]의 분위기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② 달밤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고, 비유적 표현도 쓰이지 않았다.

④ '서도(西道)'는 평안도와 황해도를 의미하여, 소설의 배경인 봉평과 관련이 없으며, '애수'도 작품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⑤ '다시 못 갈 그 서러운 곳'은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3 동이는 허생원과 조 선달의 대화를 듣지 못해 성 서방네 처녀가 자신의 어머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한다. 반면, 독자는 조 선달과 허생원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4 허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는 허생원에게 그 녀와의 추억이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5 '봉평'은 허생원이 성 서방네 처녀와 만난 곳으로, 동이의 이야기와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말을 듣고 허생원은 동이의 어머니가 성 서방네 처녀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이가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의 성을 묻은 것이다.

6 나귀가 새끼를 낳았다는 것을 허생원이 자식을 얻었다는 것으로 병치해 보면, 나귀 새끼를 생각하며 귀엽다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한 동이에 대한 허생원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④ 나귀를 얻은 강릉집 피마는 성 서방네 처녀라고 볼 수 있다.

7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허생원이 동이의 등에 얽혀 혈육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좀 더 업히고 싶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8 이 글에서 조 선달은 허생원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맞장구도 쳐 주고 있다. 독자는 조 선달과 같은 입장에서 허생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허생원과 거리감이 줄어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020 천변 풍경 _ 박태원 100~103쪽

키포인트 체크 순박한, 세속적, 청계천, 만년필

1④ 2④ 3⑤ 4⑤ 5 주인 영감에게 자신이 똑똑하지 못한 아이라는 인상을 줄까 봐 6③ 7⑤ 8② 9 서술자는 서울을 창수와 같은 순박한 시골 아이를 영악한 인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10 세속적, 변화

1 이 글은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등과 같이 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2 한약국 주인 영감이 창수의 아버지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 창수가 '시골뜨기'이면서 '애꾸'인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나)에 창수가 서울에 올라와 주인 영감을 만나 긴장하고, 거북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3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등을 볼 때, (마)에서 창수의 눈에 비친 풍경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

• 카메라아이(camera-eye) 기법

원래는 영화의 촬영 기법 중의 하나로, 카메라를 특별한 의도 없이 여기 저기 들고 다니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찍는 것을 가리킨다. 카메라아이 기법은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보여 주어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천변 풍경>은 청계천 주변에서 특별한 연관성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인물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이 기법을 작품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 4 (가)에서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내 그의 손을 잡고 ‘한성’으로 올라온 것이다.’를 통해, 창수 아버지는 한약국 주인 영감에게 창수를 한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5 (다)의 ‘어른이 대신 말하여 줄 때, 모르는 이는 아이가 똑똑지 못한 것같이 잘못 알지도 모른다.’에서 창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 6 창수가 야시에 혼자 다녀온 것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순박한 인물이었던 창수는 서울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창수와 재봉은 1930년대 당시 서울에서 꿈을 키우고 살았던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그동안 밀린 월급이나 계산해 달라’는 창수의 말을 통해 한약국 영감의 냉혹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 7 서술자가 창수에 대해 영리하다고 한 것은, 순박했던 창수가 서울 생활을 하면서 ‘영리한’ 곧 ‘영악한’ 인물로 변화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8 [A]는 서술자(작가)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서술자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같은 도회지에서 살아야 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도회지가 순박한 시골 사람을 ‘영리한’ 곧 ‘영악한’ 인물로 변모시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 9 이 글에서 서술자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같은 도회지에서 살아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회지가 창수와 같은 순진한 시골 아이를 영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 10 이 글에서는 창수가 만년필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한약국 주인을 헐뜯고 있으므로 세속적이고 무례한 태도가 드러난다. 이는 과거 순박하고 예의 바른 창수의 모습과 달라진 것으로 변화된 창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1 안 초시는 딸 안경화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했지만, 투자에 실패하여 안경화의 돈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안 초시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는 볼 수 없다.
- 2 안 초시가 죽었다고 해서 안경화에게 물질적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서 참의가 안경화와 갈등하는 것은 안 초시의 죽음에 대해 관청에 알리는 문제로 인한 것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의 갈등의 원인은 투자 실패로 인한 것이므로 돈과 관련된 갈등으로 볼 수 있다.
 - ② 부녀간의 정보보다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안경화의 태도가 ㉠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④ ㉠은 투자 실패로 인해 안 초시와 안경화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며, ㉡는 아버지의 죽음을 관청에 알리지 않으려는 안경화와 서 참의 사이의 갈등이다.

지식+

• <복덕방>의 비판적 메시지

안 초시가 근대와 인연을 맺고자 투기를 벌였다가 좌절 끝에 세상을 떠나는 <복덕방>의 이야기에는 근대화라는 것이 조선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에 따르면 근대화는 한마디로 인간 타락의 무자비한 전일화 과정이다. 그것은 무장의 호방한 기개가 있었던 서 참의가 비굴한 복덕방 영감으로 전락한 사정에 암시되어 있는 바대로 영웅적 삶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말살하는 것이면서 안경화로 대표되는 부도덕하고 속물적인 인간들에게 특권과 영광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속적 영화의 유희에 넘어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 안 초시의 불행은 근대화가 몰고 오는 파괴와 타락의 무자비성을 나타낸다.

- 황종연, <미적 자율성과 근대 비판>

- 3 서 참의는 투자 실패로 안경화에게 피해를 주고 낙담한 안 초시를 위로하고 있다. 안경화에게 냉대를 받으며 낙담한 안 초시를 위로하려는 것이므로 안 초시의 돈을 손해 보지 않았다는 말로 위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안 초시는 투자 실패 이후 내면적으로 극심한 허탈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때 안 초시의 꿈은 맑은 하늘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흰 조각구름’으로, 안 초시의 현재 상황은 ‘때 묻은 적삼’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5 이 글에는 겉치레와 체면을 중시하는 안경화의 성격과, 의리가 있고 정의감이 있는 서 참의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한편 서 참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해서 서 참의와 안경화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서 참의는 안경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6 장례식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서 참의가 안경화를 다시 야단친다면, 그것은 서 참의의 정의로운 성격과 안경화의 비열하고 추악한 면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서 참의가 성대한 장례식을 요구한 이유는 비참하게 살다 간 안 초시를 위로하려는 의도이지 안경화에게 죽음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장례식이 성대하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서 참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안경화의 태도가 강조될 것이다.
 - ⑤ 안경화의 반성으로 글이 마무리된다면 갈등이 해소되면서 교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7 사람이 죽은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인데, 죽은 사람에게 ‘호사(호화롭게

021 복덕방_ 이태준

104~107쪽

키포인트 체크 | 자살, 복덕방, 체면, 장례

- 1 ㉠ 2 ㉡ 3 ㉢ 4 안 초시의 꿈은 흰 조각구름으로, 현재의 상황은 때 묻은 적삼으로 형상화하여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5 ㉡ 6 ㉢ 7 자네 참 호사세 호사야 8 ㉠: 위안을 받는 ㉡: 비극의

잘 지냄'라고 말하는 것은 반어적인 표현이다. 안 초시는 살아있을 때 딸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아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살았다. 하지만 서 참의와 거래를 한 안경화는 장례식을 호화스럽게 치른다. "자네 참 호사세 호사야."는 이 모습을 본 서 참의가 삶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표현하는 동시에 안경화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한 말이다.

8 이 작품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서울의 번두리에 위치한 '복덕방'이다. '복덕방'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고 있는 세 노인이 소일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서로를 향한 애정과 연민을 갖고 지내는 공간이다. 하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던 이 공간에서 안 초시가 자살하게 됨으로써 세 사람의 비극적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비극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변모하게 된다.

022 치숙_채만식 108~111쪽

키포인트 체크 사회주의, 식민 통치, 무능력, 순응, 물질적

1 ③ 2 ④ 3 ① 4 ⑤ 5 아편, 부랑당패 6 ⑤ 7 ① 8 ④

9 물질적 가치, 사회주의 운동

1 이 글은 특별한 사건의 진행 없이 '나'의 시선에 의해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① **오답 풀이보기** ① '나'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② 이 글은 마치 청자를 앞에 두고 말하듯이 구어체로 서술되어 있다.
 ④ '말이지요?', '발광이고' 등과 같은 의문형을 사용하여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⑤ '나'의 판단은 주관적이며 '나'는 사회적인 의식이나 민족적·역사적 의식이 결여된 인물로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를 통해 비난을 받는 인물은 오히려 칭찬의 대상으로 역전되고 있다.

2 (나)에서 '나'는 아버지가 참여하는 사회주의를 '부랑당패'라고 말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아버지가 참여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탐탁지 않게 여김을 알 수 있다.

3 [A]에서 서술자인 '나'는 아버지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ㄱ), 아버지에 대한 풍자적 서술을 통해 그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ㄴ).

지식+

• 풍자
 사회의 모순이나 인간의 악덕, 어리석음 따위를 비꼬아 드러내는 문예 기법이다. 주로 역설, 반어, 과장, 축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상을 희화화함으로써 사회 또는 인간의 허점과 모순, 부조리 등을 폭로한다. 고전 작품으로는 신라 시대 설총의 <화왕계>, 고려 시대의 가전적 작품, 연암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등에서 풍자를 찾아볼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작품으로는 김유정의 <금 따는 공방>,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태평천하>, <치숙> 등에 풍자가 잘 나타나 있다.

4 ㉠에서 '나'는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아버지를 풍자하고 있다. ⑤ 역시 '궁정하겠군.'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경기 규칙도 모르는 심판을 풍자하고 있다.
 ① **오답 풀이보기** ①은 역양법, ②는 역설법, ③은 연쇄법, ④는 비교법을 구사하고 있다.

지식+

• 역양법
 강조법의 일종이다. 칭찬을 하기 위해 먼저 흉을 보거나, 흉을 보기 위해 먼저 칭찬을 하는 방법으로 문세(글의 기세와 힘)에 기복을 두어 한층 날카롭게 느끼게 하는 표현 방법이다.

5 '나'는 사회주의를 '아편'이나 '부랑당패'와 같다고 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6 (가)에서 '나'는 아버지의 혼계에 대해 비판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 즉, 아주머니를 보러 간 길에 만난 아버지와 잡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때의 장면을 회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식+

• 피카레스크식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통일되어 엮여 있는 구성 방식을 말한다. 인과 관계에 따라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이야기들에 대부분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대표적으로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이 이러한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다.

7 ㉠은 '나'를 비난한 아버지에 대해 반어적 냉소를 드러낸 것이다. '거 참 그렇겠군.'이라는 반어적 표현은 아버지의 충고와 비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지 아버지의 말을 부분적으로 수긍한 것이 아니다.

8 <보기>는 3인칭 시점으로 상황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A]는 이를 1인칭 시점으로 바꾼 것인데, '그런데 보니깐 어디서 모두 뒤져냈는지'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나'의 못마땅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① **오답 풀이보기** ① 상세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내면 심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심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다고 말할 수는 없다.
 ③ 작품 밖 서술자가 아니라, 작품 안의 서술자이다.
 ⑤ '나'의 시선에서 서술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한다.

9 이 글에는 채만식 소설 특유의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민족의 운명이나 사회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는 부정적인 인물인 '나'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병이 든 아버지를 비판하는 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023 태평천하_채만식 112~115쪽

키포인트 체크 인생, 구한말, 경찰서장, 사회주의

1 ④ 2 ④ 3 ② 4 물건을 훔치지 않음.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됨.

5 ③ 6 ① 7 ① 8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세상

9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평등이 부자들의 재산을 함부로 뺏은 화적때나 지방 수령들의 행위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품의 해학성을 높이고 있지만, 배경을 묘사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오답 풀이보기** ① 서술자는 '~입니다', '~습니다' 등과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② (가)의 '참말 딱한 노릇입니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작가는 윤 직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관을 작품 전반에 내세워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에 윤 직원의 아버지인 윤용규의 죽음에 얽힌 사연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지식 +

• 소설에서의 '거리'

일반적으로 소설에서는 시점에 따라서 서술자를 중심으로 '서술자-독자', '서술자-인물', '인물-독자'의 거리를 각각 '가깝다'와 '멀다'로 분석한다. 만약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여 이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면 '서술자-독자', '서술자-인물'의 거리는 가까워지지만 상대적으로 '인물-독자'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태평천하>의 서술자는 경어법을 사용하여 마치 독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서술자-독자'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진다.

- 2 살얼음을 건너가는 것처럼 위태위태 지내는 것은 윤 직원 영감이 어린 시절에 화적의 습격을 자주 당하면서 느낀 위기감이나 긴장감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3 (나)의 '윤용규 하나쯤 죽이기를 차마 못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구혈로 잡아갔던 것입니다.'를 통해 두목이 인질로 삼고자 했던 사람은 윤용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가)의 '너무 멍청해서 부리기가 매우 갑갑한 때도 있기는 하지만'에서 알 수 있다.
 - ③ (나)의 '한두 번도 아니요, 화적을 치르기 이미 수십 차라'에서 알 수 있다.
 - ④ (가)의 '큰 대문은 그래서 항상 봉해 두고, 출입은 어린 아이 상전 하인 할 것 없이 한옆으로 뚫어 놓은 쪽문으로 드나듭니다.'에서 알 수 있다.
 - ⑤ (나)에서 윤 직원 영감이 '이놈의 세상이 어느 날에 망하려느냐'라며 통곡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4 윤 직원 영감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부리기가 답답한 '삼남이'를 상노 아이로 데리고 있는 이유는 '똑똑한 놈이면 으레 흠치흠치, 즉 태을도를 한대서 그러는 것입니다.', '월급이니 무엇이니 하는 그런 아니꼬운 것도 달라고 않습니다.' 등을 통해 볼 때, 다른 아이들처럼 물건을 흠치거나 월급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5 이 소설은 시점의 변화 없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계속 유지한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전보를 본 이후에 기세등등하던 윤 직원 영감이 주저 않으며 분노하고 있다.
 - ② 주인공 윤 직원 영감의 과멸을 암시해 준다.
 - ④ 윤 직원 영감과 종수 사이의 갈등 구조에서 윤 직원 영감과 사회주의(종학)의 갈등 구조로 전환된다.
 - ⑤ 경찰서장이 될 종학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윤 직원 영감은 종학이 검거되었다는 전보를 받은 후 종학을 비난한다. 전보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하여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 6 중국의 고사를 활용한 부분은 중국의 이야기와 윤 직원 영감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지식 +

• 소재목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의 의미

일반적 의미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이다.(외부의 적 이 아니라 가장 믿고 있는 내부의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소설에서의 의미	윤 직원의 집안을 망치게 하는 것은 그가 가장 믿고 아꼈던 둘째 손자 종학이다.

- 7 <보기>의 화자는 모든 것을 잃은 현실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일제 강점기 당시를 태평천하로 보고 현실에 만족하는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관을 비판할 것이다.
- 8 윤 직원 영감은 시대적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세상만을 원한다. 즉, 어떤 부정한 방법을 쓰더라도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면 된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9 윤 직원 영감은 시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가치관이 결핍된 인물이자, 어린 시절의 불행한 경험에 집착하여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믿는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의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화적패나 지방 수령들과 동일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024 **돌다리_이태준** 116~119쪽

키포인트 체크 물질적, 땅, 병원, 거절

- 1 ③ 2 ④ 3 ③ 4 ③ 5 땅의 재산적(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며, 돈만 있으면 좋은 땅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② 7 ③ 8 ② 9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회 /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금전적 가치만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방식 10 아버지: 천지만물, 농사/땅, 창섭: 이태하산, 돈
- 1 이 글은 땅을 팔아 병원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온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설득하고, 이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땅'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창섭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아버지와 창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간다.
- 2 창섭이 아버지를 만나러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땅을 팔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 3 [A]는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를 들어 아버지에게 땅을 팔 것을 설득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병원 확장 계획과 땅을 팔아 부모님을 모시려는 창섭의 계획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창섭이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다.
 - ② 병원 확장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의 하나일 뿐이다.
 - ④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것과 창섭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연관 짓기는 어렵다.
 - ⑤ [A]는 창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설득 내용을 간단히 제시한 것으로, 창섭의 말투와 창섭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유추하기 힘들다.
- 4 (가)에서 창섭은 땅을 그냥 두면, 부모님이 서울에서 두고 온 땅 걱정에 편하게 지내지 못할 것이므로 땅을 모두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땅 때문에 부모님께서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땅을 팔아야 한다고 설득한 것은 아니다.

5 (나)의 '시골에 땅을 ~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창섭은 땅을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가치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이 글은 땅의 본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자, 전통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인물인 아버지를 통해 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7 '그 다리'는 돌다리를 의미한다. 아버지는 돌다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추억하며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삶을 계속해 나갈 것을 이야기한다. 돌다리를 통해 전통적 가치관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창섭과의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보기** ①, ⑤ 아버지는 짓기 쉽고 편한 나무다리 대신 힘들게 놓아야 하는 돌다리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과거 농촌 공동체에서 이어져 온 가치관을 나타내며, 이를 보수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

8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후 '돈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땅을 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①은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아끼며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9 아버지는 사물을 인정으로 대하지 않고 금전적 가치로만 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서구의 자본주의 문화와 연결되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식 +

• **이태준 단편 소설의 세 가지 유형**

이태준의 소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소설은 묘사를 중심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창출하는 작품이다. 이 유형의 작품에서 인물들의 면모는 삶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걸음 비켜 서 있는 모습이다. <달밤>, <북덕방> 등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의 단편 소설은 작가 개인의 내면 묘사를 통해 현실을 사유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일상적인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관련하여 드러내 보여 주는 것으로, 소위 심경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단편 소설에는 일상의 현실 속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지식인 작가의 자의식이 잘 표현되어 있다. <고향>, <장미>, <해방 전후>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단편 소설은 부조리한 식민지적 현실의 객관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들 유형의 작품은 식민지적 현실 속에서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농군>, <돌다리> 등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이태준의 단편 소설은 식민지적 현실과 서정적 분위기가 교차되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익성, <식민지적 현실과 서정적 분위기의 이중주>, <달밤 외>, <문학사상사>

10 아버지는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여기며, 땅(농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창섭은 아버지가 가꾼 땅의 중요성보다는 땅의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고 땅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III. 광복 이후~1950년대

033

논 이야기_ 채만식

132~135쪽

키포인트 체크 어리석은, 냉소적, 농촌, 유상

1 ④ 2 ② 3 ⑤ 4 독립이 되어도 가난한 농사꾼인 자신의 처지는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5 노력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 꾸는 한 생원이라는 인간과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토지 정책 등 광복 후 잘못된 국가 정책이 풍자의 대상이다. 6 ④ 7 ③ 8 ② 9 백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농민이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국가 토지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1 주인공인 한 생원은 나라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 논 찾기에만 관심이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따라서 우직하고 순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사투리와 구어체를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와 함께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의 주인공인 한 생원은 나라가 독립해도 자신의 처지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만세를 부르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사건에 따라 변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한 생원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인 '허연 탑사부리에 묻힌 쪼글쪼글한 얼굴이 위아래 다섯 대밖에 안 남은 누런 이빨'을 통해 서술자는 한 생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은 일제 강점하에서 일본인들에게 농토를 수탈당하던 시대나, 독립을 맞아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재나 조금도 나아진 게 없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나)에서 한 생원은 남들이 만세를 부르자고 하였을 때 조선의 독립이 별양 반가운 줄을 몰랐다고 말한다. 한 생원이 생각하는 독립은 성가신 공출이 없어진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독립이 되어 성가신 공출이 없어진 것에 대해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조선이 독립한 것에 대해 반가운 줄은 모르나, 공출이 없어지고 손자 용길이를 징용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한 생원은 먹고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한 생원이 한 말인 "그러면 그렇지, 글썽 놈들이 ~ 재주야 있을 이치가 있나요?"와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일인에게 팔아넘긴 땅이 꿈결같이 도로 자기의 것이 되게 되었다니……'를 통해 일본이 항복하면 땅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이므로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한 생원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독립이든 무엇이든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⑤ (나)의 '독립이 되기로 하니,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별안간 나으리 주사 될 리 만무하였다.'를 통해 한 생원은 독립이 되어도 자신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3 한 생원은 독립이 되어도 별양 반가운 줄을 모르겠다고 했으나, 일본인이 쫓겨 가면서 땅을 그대로 두고 갔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팔았던 논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쁨의 만세 소리가 절로 나오려 한다고 하

였다.

4 한 생원은 독립이 되어도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별안간 나으리 주사 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자신의 가난한 농사꾼 처지는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독립을 신통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5 이 글에서는 독립이 되면 자신이 팔았던 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보이며, 나라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 눈 찾기에만 관심이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 성향을 가진 한 생원이 풍자의 대상이다. 또한, 가난한 농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눈을 빼앗아 가던 구한말 시대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농토를 수탈하던 시대나, 독립이 되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대나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비판함으로써 나라답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도 풍자, 비판하고 있다.

6 (가)에서 "길천인, 일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구 간간, 그전 임자가 도루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를 통해 한 생원은 일본인 주인이 땅을 놓고 쫓겨 갔으니 그 전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멧갓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고을 원님이 한 생원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강제로 땅을 빼앗은 것은 맞지만, 이를 근거로 독립된 후의 멧갓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일본이 망해서 돌아갈 때 다시 땅을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한 생원은 일본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다. 일본인 농장 산림 관리인 강태식한테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은 현재 멧갓 주인이다.

⑤ 일본인이 놓고 간 땅의 전 주인이 한 생원인 것은 맞지만, 땅을 먼저 구입할 권리가 전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멧갓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7 ㉠은 백성의 땅을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백성들에게 되파는 그런 나라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로,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낸 표현이자,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따라서 한 생원은 누가 통치를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8 한 생원은 길천의 땅을 새로 산 주인을 찾아가 독립이 되었으므로 전 임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옳다며 자신의 땅이라고 우긴다. '아전인수'는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을 뜻하므로 멧갓을 새로 산 땅 주인에게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한 생원의 행동은 아전인수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표리부동: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을 이르는 말

③ 자승자박: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

⑤ 선견지명: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를 이르는 말

9 이 글에서 한 생원은 광복이 된 조국에서도 구한말 이전이나 식민 지배 체제와 마찬가지로 농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려고 한 것은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라'에 귀속시킨 후 유력자(有力者)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민이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국가 토지 정책임을 알 수 있다.

034 **미스터 방** _ 채만식 136~139쪽

키포인트 체크 기회주의적, 광복, 통역, 보복

1③ 2⑤ 3③ 4② 5경제적의미: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을 / 사회적의미: 직업이 바뀌게 된 것을 6④ 7⑤ 8② 9㉠방삼복의 몰락 ㉡해학적

1 광복 직후를 배경으로 방삼복이 미스터 방이 되는 과정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서술자는 작품 밖의 인물로,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미스터 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서술자의 회상 형식도 아니고,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도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의 배경은 광복 직후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서술되지 않는다.

2 한국인인 방삼복이 통역관으로 채용된 점으로 보아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그럭저럭 구월도 ~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집 전이나 십오 전에 막아 주면 ~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나가는 행인이 ~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등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모두가 오 곱 십 곱 비싸졌다. ~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방삼복은 진정한 독립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돌아오는 물질적 이익만으로 독립의 의미를 판단하고 있다.

4 ㉠은 사회의 변화 양상과 미군들의 행동을 보며 방삼복이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장면이다. 이때 방삼복은 통역관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5 미군 소위의 통역관이 된 것은 물질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방삼복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좋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게 된 것이므로 물질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게 된 셈이다. 그리고 무시당하던 신기료장수에서 통역관이라는 버젓한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대우받게 된 것이다.

6 미스터 방은 자신의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면서 백 주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는 상대의 말에 약삭빠르게 반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친일파인 백 주사를 도와주겠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미스터 방은 민족의식이라고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 **오답 풀이보기** • 곰살궂다: 성질이 부드럽고 다정하다.

- 어수룩하다: 겉모습이나 언행이 치밀하지 못하여 순진하고 어설피른 데가 있다.
- 의협심이 강하다: 남의 어려움을 돕거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7 백 주사는 방삼복의 권세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오고 원한이 맺힌 이들에게 복수하고자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백 주사가 방삼복도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니다.

8 이 글은 광복 직후 혼란한 틈을 타서 기회주의자인 방삼복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나 친일 행위를 하던 백 주사가 방삼복에게 머리를 숙이는 상황 등 부정적 인간형을 풍자하는 소설이다. 또한 부정적 인물들이 대우를 받던 당시의 사회 현실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지식 +

• **부정적인 인물 설정**

이 소설에서 '미스터 방'과 '백 주사'와 같은 부정적 인물을 내세운 것처럼 작가 채만식은 자주 부정적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을 해학적으로 희화화하고 풍자한다. 이로 인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만 동시에 독자 스스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즉 독자는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상이 갖고 있는 허위와 위선을 발견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정적 인물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작가는 독자들이 객관적으로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하여 자신이 의도한 비참한 인간상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는 채만식의 문학뿐만 아니라 탈춤이나 판소리에 반영된 우리의 전통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9 [A] 부분은 방삼복이 백 주사 앞에서 위세를 떨다가 S 소위에게 봉변을 당하는 장면으로, 방삼복의 기세등등했던 삶이 끝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장면은 신기료장수에서 미스터 방이 되어 세도를 부리게 된 방삼복을 우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격하시킴으로써 이기주의자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035

역마 _ 김동리

140~143쪽

키포인트 체크 운명, 순응, 화개장터, 이복자매, 이별

- 1 ① 2 ⑤ 3 ① 4 ③ 5 붉은 두 눈, 물결같이 흔들리는 등그름 한 어깨, 시뻘겍게 된(시뻘건) 두 눈, 시뻘겍게 상기한 얼굴 6 떠나지 마라.
7 ③ 8 ③ 9 한 걸음, 있는 것이었다 10 거부, 순응

1 옥화는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주고, 머리를 쓸어 주며 또 오라고 하는 등 계연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옥화가 계연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둘은 혈연관계이며, 성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뿐이다.

2 체 장수 영감은 계연이 떠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인물이다. 체 장수 영감으로 인해 계연과 성기의 사랑이 이별로 끝나고 성기가 방황하

게 되는 등 사건이 전환되고 있다.

☞ **오답 풀이보기** ③ 이 글은 개인과 운명의 외적 갈등이 주를 이룬다. 체 장수 영감의 등장은 성기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체 장수 영감이 계연을 데리고 떠남으로써 성기와 역마살을 타고 난 운명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

④ 성기는 자신이 처한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3 [A]는 계연과 성기의 이별 상황으로, 이별의 슬픔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미련 등의 감정이 계연과 성기의 외면 묘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4 ① '꽃주머니'는 떠나는 계연에게 옥화가 정표로 준 것이므로 계연에 대한 옥화의 애정을 보여 준다. 그리고 ② '버드나무'는 계연을 떠나보내는 성기가 내면적 고통으로 인해 기대는 대상이므로 그의 심리적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물결같이 흔들리는 등그름한 어깨'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으로 울고 있는 계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붉은 두 눈', '시뻘겍게 된(시뻘건) 두 눈', '시뻘겍게 상기한 얼굴' 역시 떠나고 싶지 않은 계연의 심리를 드러내 준다.

6 성기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계연이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므로 성기에게 듣고 싶은 말은 떠나지 말라는 내용이 될 것이다.

7 계연은 사랑하는 사람인 성기가 떠나지 말라고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아버지 체 장수 영감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인물이므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보기** ①, ② 성기가 계연과 이별하고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것은 운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옥화가 명도까지 불려서 계연에 대해 물어보는 행위는 비합리적인 방법이다.

⑤ 성기가 하동으로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지식 +

•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김동리'**

〈역마〉는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탐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정신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남시당때인 할아버지, 떠돌이 중인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탓인지 태어날 때부터 역마살을 끼고 태어난 주인공 성기는 역마살을 막아 보고자 한 온갖 노력의 결과로 깊은 병을 얻고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역마살이라는 운명에 순응하여 방랑의 길을 떠남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이렇듯 이 작품은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삶은 본시 하나로 어울리는 법이라고 생각해 온 동양 사상의 한 흐름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그것을 통해 현대의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했다. "우리와 천지 사이에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유기적 관련이 있으며 이 유기적 관련에 관한 한 우리들에게는 공통된 운명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했던 작가의 사상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이 작품인 셈이다.

- 권영민, 《한국 현대 문학 대사전》

8 ㉠은 옥화가 아들의 역마살을 없애 정착하여 살게 하고 싶었던 미련을 버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한 말로 볼 수 있다. 아들에 대한 냉담한 태도나 무관심한 태도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

9 성기는 유랑의 삶을 선택해 지금까지 거부해 왔던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함으로써 운명을 거스르면서 느껴 왔던 짐을 떨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게' 된 것이다.

10 성기는 계연과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힘들어하지만, 운명을 거역하지 않고 따를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화개 장터를 떠나 하동 쪽으로 향하며, 육자배기 가락까지 흥얼거리다. '하동'은 계연이 떠난 방향을 피해 성기가 유랑의 길을 떠나는 곳으로, 이는 곧, 성기가 역마살을 받아들이는 길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036 유예 _ 오상원

144~147쪽

키포인트 체크 의지, 신념, 비극성, 거부, 처형

1 ③ 2 ① 3 ⑤ 4 색채 대비를 통해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5 무의미함, 비극성 6 ③ 7 ② 8 ③ 9 전쟁의 비인간성 10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1 이 글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하면서 주인공의 의식 세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한 인물의 성격 제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한 부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④ 중심인물인 '나'에 초점을 맞추어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나'의 의식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 사건 순서가 재구성되고 있다.

2 (다)에서 '나'는 한 시간 후에 있을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자신이 죽음을 맞게 될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으며, 매우 침착하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3 ㉞은 사형 집행을 마친 병사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전쟁이 가져온 비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적군 병사들이 느끼는 연민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 얼마 전에 총살당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나'는 몹시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

② ㉡: 전향에 대한 '나'의 답변에 따라 '나'의 생각이 달라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③ ㉢: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나'가 적군의 요구를 거부하여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④ ㉣: 죽으러 가는 길에서조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할 정도로 현실의 비정함을 느끼고 있다.

4 ㉠에는 '붉은 피(붉은색)'와 '하이얀 눈(흰색)'이 색채 대비를 이루어 비극적인 상황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5 전쟁은 '싸우다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전쟁이 숭고한 목적이나 대단한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즉, 전쟁은 그저 서로를 죽이기 위한 행위만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를 사소한 것처럼 표현하여 전쟁이 지닌 맹목성과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6 (라)에서 '총을 다시~일인 것이다.'를 통해 사수들은 사형 집행을 특별한 일이 아닌 무의미한 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수들이 사형 집행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의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 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를 통해 움속 감옥은 지하에 있는 어두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② (라)의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 갔다.'를 통해 '나'는 총을 맞은 이후에도 잠시나마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를 통해 움 속에서 끌려 나온 '나'는 혼자 힘으로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오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를 통해 '나'는 자기처럼 처형당한 사람이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나)는 1인칭 시점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 (다)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자가 주인공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의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 하는 주인공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와 (다) 모두 현재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③ (다)에서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박진감 있는 묘사와는 거리가 멀다.

8 ㉞은 사형 집행을 하기 직전 적군이 주인공에게 한 말이다. 그러므로 주인공의 회상 속에 있는 인물의 대화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 현실의 소리로 큰따옴표로 처리되고 있다.

② ㉡: 실제로 사형 현장으로 가기 위해 움 속에서 기어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④ ㉣: 사형 집행을 하는 장소로 온 '나'가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독백이다.

⑤ ㉤: '나'가 상상하는 내용으로, 자신을 쓰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사수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9 '놈들'은 사형을 집행한 후에도 별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며 사형 집행을 평범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전쟁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참혹한 것인지 알 수 있다.

10 (라)의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에서 '나'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흰 눈', '회색빛', '어두워' 등 명암의 변화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되었다.

037 수난 시대 _ 하근찬

148~151쪽

키포인트 체크 긍정, 출찰구, 외나무다리, 의지

1 ① 2 ④ 3 ④ 4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진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 자신처럼 불구의 몸이 되어 나타난 아들을 보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6 ② 7 ④ 8 ② 9 수난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이 겪는 수난을 나타낸 것으로,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에 의해, 아들은 6·25 전쟁으로 인해 불구가 된 상황을 제시하여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대사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 1 만도는 두 눈을 무섭도록 크게 뜨고 입이 딱 벌어지는 모습과 “애라 이놈어!”라는 말을 통해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에 대한 충격과 속상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진수는 눈물을 참는 행동 등을 통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2 만도는 기차 소리를 듣고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나 고등어를 집어 들게 된다. 기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진수가 탄 기차가 곧 도착한다는 것으로 아들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3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한쪽 팔을 잃은 만도는 아들마저 전쟁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잃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 4 (가)의 ‘두 개의 지팡이를 ~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에서 만도는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후 진수를 만나고는 ‘눈앞이 노오래지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 5 만도는 아들 진수가 자신처럼 불구의 몸이 되어 나타나자 속상한 마음에 뒤따라오는 아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걷기만 했다고 할 수 있다.
- 6 이 글에서 만도와 진수는 경상도 사투리를 비롯한 토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한쪽 팔이 없음에도 장애에 대한 낙천적 인식을 보이는 만도는 토속어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만도와 진수의 대화가 드러나지만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고 있다.

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7 진수는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 다리를 잃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담담히 이야기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극도의 분노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보기 ① 진수는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더.”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만도는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라는 말을 통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③ 만도는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능기다. 그런 소리 하지마라.”라는 말을 통해 아들을 위로하며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만도는 “업고 견드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라는 말을 통해 혼자서는 어려워도 서로 도우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달랑달랑 춤을 추는 것은 고향에 돌아온 진수의 흥겨운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만도가 ‘고등어’를 들고 가는 장면을 보여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오답 풀이보기 ① 만도와 진수는 논두렁길로 접어들면서 진수가 앞장서고 만도가 뒤따라 걷게 된다. 즉, 논두렁길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 기에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 앞장서고 누군가 뒤에 서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③ ‘술’을 마신 만도는 오줌이 마렵게 되고 한 손에 들고 있는 고등어로 인해 소변을 보는 것이 불편해지자 진수가 고등어를 들게 된다. 즉, 만도의 불편함을 진수가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④ 개천 독에 이른 만도와 진수는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시냇물을 만나게 된다. 외나무다리를 건너갈 재주가 없는 진수는 바짓가랑이를 걸어 올리지만 결국 만도의 등에 업혀 외나무다리를 건너게 된다. 따라서 ‘시냇물’은 만도와 진수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게 하는 보조적 장치로 볼 수 있다.

⑤ 만도와 진수 앞에 놓인 ‘외나무다리’는 두 사람이 겪어야 할 시련인 동시에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 나갈 수 있는 현실로 볼 수 있다.

- 9 ‘수난 시대’는 아버지 만도와 아들 진수가 겪은 이대에 걸친 수난을 나타낸 것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에 의해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의 불행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 현대사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지식+

• <수난 시대>의 역순행적 구성

현재	6·25 전쟁이 끝나고 아들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만도가 진수를 미중 나감.
과거	기차역에서 진수를 기다리던 만도는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팔이 잃었던 과거를 회상함.
현재	만도는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고 분노하지만 이내 진수를 위로하며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감.

038 너와 나만의 시간 _ 황순원

152~155쪽

키포인트 체크 의지적, 따뜻한, 낙오, 갓 짓는 소리, 위협

1 ③ 2 ⑤ 3 ① 4 ⑤ 5 현 중위가 비록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죽었지만, 한때 상관이었던 사람이기에 시신이라도 지켜 주고 싶은 마음으로 까마귀를 쫓고자 한 것이다. 6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 7 ⑤ 8 ② 9 ③ 10 인간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강인한 의지 11 전쟁에 끌려가 죽음을 맞는 사람들

- 1 이 글은 등장인물의 눈에 포착된 감각적 인상을 ‘사람의 시체였다.’, ‘옆에 누워 있는 주 대위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본듯이 누워 있었다.’와 같이 간결한 문장으로 제시함으로써 강한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독백체가 아닌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배경 묘사는 거의 나오지 않으며 제시된 배경도 서정적이지 않다.

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두 군인의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 2 두 사람은 현 중위가 도망가다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막연한 공포였던 죽음이 자신들에게도 곧 닥칠 현실인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 3 꽃소리가 난다는 것은 인근에 군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산속을 헤매던 상황에서는 일단 반가움과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 4 아군의 꽃소리는 이들에게 희망이다. 신석정의 <어느 지류에 서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잊지 말라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푸른 하늘'이 그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나머지 시어들은 절망 혹은 절망적 상황을 상징한다.

지식+

•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참여적
주제	군선 삶의 의지와 이상의 추구
감상	일제의 가혹한 탄압이 극에 달할 무렵 시인으로서의 양심을 지녔기에 현실을 목과할 수만은 없었던 심정이 드러나 있다. 즉, 암흑 속에서 발버둥치면서도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는 양심을 표현하였다.

- 5 김 일등병은 주 대위 때문에 자신마저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비록 현 중위가 자신들을 배신하고 혼자 갔지만 주검으로 나타난 그를 마음으로 동정하고 그의 시신이나마 지켜 주고 싶은 마음에 @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 6 주 대위는 살기 위해 도망갔던 현 중위의 주검을 보고 자신이 진작 자살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없어야 김 일등병도 생존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한다.
- 7 '개 짖는 소리'는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던 주 대위에게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준 소재이다. 결국 이 소리를 듣고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을 위협하여 인가(人家) 쪽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김 일등병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된다.
- 8 김 일등병은 현 중위의 주검을 확인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한다.
- 9 [A]에서 주 대위는 좌절에 빠진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김 일등병을 총으로 위협하는 극약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알 리 없는 김 일등병은 주 대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원망에 그쳤을 뿐 복수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김 일등병은 주 대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
 - ④ 주 대위 자신이 살겠다는 의도보다는 김 일등병을 살리려는 의도가 크다.
- 10 '권총'은 개 짖는 소리를 전후로 하여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개 짖는 소리를 듣기 전에는 주 대위의 자살 도구, 즉 죽기 위한 도구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주 대위가 현 중위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남아 있는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 사용하려 한 것이다. 반면에 개 짖는 소리를 들은 후로는 김 일등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 황순원 소설의 휴머니즘적 성향

황순원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 체험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간들의 문제에 관심이 놓여 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전쟁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가혹성보다는 그 극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인간다움과 존재에 대한 부르짖음 등의 휴머니즘 정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 세계가 울곧게 지향해 온 것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인 휴머니즘 정신임은 비인간화와 죽음이 일상화되는 전쟁 상황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양상은 작가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작가 정신과 전쟁의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이는 자와 죽음을 당하는 자가 공존하는 전쟁에서는 필히 휴머니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황순원 소설은 인간 본질에 대한 회의나 일상적 상황보다는 전쟁으로 인하여 빚어진 상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극적 상황에서 피어나는 인간다움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정문권, 《황순원 소설의 휴머니즘 담론 양상》

- 11 <보기>에서 '개미 떼'는 거대한 힘에 의해 지배받으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왜소한 인간을 상징하며, '왕개미'는 이런 개미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거대한 힘, 권력자를 상징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내몰린 개미 떼와 같은 존재들이다. 즉, 전쟁을 통해 희생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개미 떼인 것이다.

IV. 1960년대~1980년대

043 광장_ 최인훈 164~167쪽

키포인트 체크 이상주의, 이념, 중립국, 이상 세계

1② 2⑤ 3④ 4④ 5 이념의 선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에서 오는 후련함과 그러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비애와 허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6④ 7④ 8 유토피아의 꿈 9 명준의 삶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과 그러한 현실에서 인식의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선택의 여지도 없는 곳이면서 동시에 인식이나 사고가 전환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1 이 글은 명준이 북한 측의 설득을 거절하는 실제 장면과 남한 측의 설득을 거절하는 상상의 장면을 병치하여 그 어느 곳도 선택할 수 없는 명준의 내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크게 두 개의 장면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잦은 장면 전환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명준을 설득하기 위해 북한 측은 중립국(자본주의 국가)의 위험성, 신중한 결정의 필요성, 생계 보장, 사회적 명예를 얻을 수 있음, 북한에서 보복하지 않을 것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남한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 명준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설득과 질문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중립국.”이라는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준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남한 측의 설득자는 조국인 남한을 버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명준에게 다시 한번 남한을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제 몸’은 명준이 버리려 하는 ‘남한’을, ‘종기’는 남한 사회에 내재된 모순, 즉 남한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 명준은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모두 회의적이다. 명준은 설득자들의 회유를 물리치고 중립국을 선택한 데 대한 통쾌함과 후련함에서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남과 북에서 이상을 찾으려고 했던 자신의 의도와 달리 중립국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조소로도 볼 수 있다.

6 명준은 남쪽과 북쪽 중 어느 쪽도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념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중립국을 선택하였는데, 이 역시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중립국의 선택은 지식인의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의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명준이 해방 직후 남한의 혼란스럽고 부패한 “정치”를 경멸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결국 남한이나 북한을 선택하지 않고 중립국을 선택하게 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이 주는 이미지를 통해 북한의 실상에 절망한 명준의 심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③ ‘푸른 광장’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흔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7 @은 ‘푸른 바다’가 그동안 자신이 찾던 이상적 공간을 발견하는 순간 명준이 깨닫게 된 내용이다. 이는 남한과 북한에서 이데올로기적 이상향을 찾으려다 실패하고 중립국까지 가려고 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늪우침이다.

8 명준이 월북을 하게 된 이유는 남한에서 찾기 못한 새로운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서였다.

9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문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부채의 ‘사복 자리’는 명준이 처한 절망적 현실을 나타낸다.

지식+

• 4·19 혁명과 <광장> 그리고 이명준

흔히 <광장>을 일컬어 4·19 혁명이 낳은 작품이라고 말한다. 이는 <광장>의 창작 동기, 발표 등에 4·19 혁명이 물고 온 사회적 분위기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 4·19 혁명은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민족 통일의 염원을 각인시켰다. 본격적으로 분단의 문제를 다루고 이념 갈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광장>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해방 직후 대학을 다닌 청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19 혁명 직후의 청년들이 지닌 의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044 꺼삐딴 리_ 전광용 168~171쪽

키포인트 체크 기회주의자, 세력, 이익, 청자

1② 2③ 3⑤ 4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고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5 친일파를 타도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친일파로 살아온 자신의 안위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까 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6⑤ 7④ 8⑤ 9 우리의 문화유산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미국으로 유출하는 이인국 박사의 행위는 반민족적 행위로 지탄받아야 한다.

1 과거의 장면인 (나)를 삽입하여 이인국 박사가 춘석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일관성 있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③ 인물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다.

⑤ 이인국 박사에게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2 (나)의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서 이인국 박사가 일제 강점기에 ‘황국 신민’과 ‘관선 시의원’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인국 박사는 시류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이인국 박사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것은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인국 박사가 자신의 분야인 의술에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3 @은 춘석이 이인국 박사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춘석과 이인국 박사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었음을 보여 준다.

4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의 내면 심리와 그의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1인칭 주인공 시점

으로 서술하면 이인국 박사의 관점에서 상황을 서술해야 한다.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 인물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물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5 이인국 박사는 시대에 따라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부와 권위를 유지해 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로 득세했었기 때문에 이인국 박사는 해방 후 친일파를 처단하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6 <보기>를 통해 볼 때, '꺼삐딴 리'는 이인국 박사의 명실상부한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인국 박사의 모습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만 생각하며 민족이나 사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결국 작가는 사회적 지위와 인물의 성격 간의 괴리를 통해 인물을 풍자하고자 한 것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단순한 사회적 지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물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를 관련시켜 보아야 한다.
 - ④ 이인국은 민족의 시련기에 민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7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가기 위해 '상감진사 고려청자 화병'을 선물한 것이 이 것이 두 사람의 오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 8 푸르고 드높게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은 이인국 박사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를 만나 고려청자를 주고 자신의 미국행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은 자신이 기대하는 미래의 삶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여 들뜬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 9 <보기>의 전형필 선생은 이인국과는 대조적인 인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민족의 문화재를 지켜 낸 인물이다. 따라서 전형필 선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화재를 외국인들에게 바친 이인국 박사의 행위를 반민족적 행위라고 생각할 것이다.

045 시장과 전장 _ 박경리 172~175쪽

키포인트 체크 인간적, 군인, 시장, 전장, 피란길, 인정

1 ① 2 ④ 3 ④ 4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5 전쟁의 상황이 악화되어 어쩌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6 ③ 7 ④ 8 ② 9 작품에 암울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10 6·25 전쟁의 이념 분쟁 속에서 어느 한쪽의 이념보다 '살아남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 1 피란을 준비하며 옷가지와 개에게 주는 음식을 두고 윤 씨와 지영이 나누는 대화와 행동, 기석이 지영에게 하는 말과 행동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2 '아깝고 소중한 걸', '이 아까운 것' 등의 윤 씨의 말에서 윤 씨가 자신이 아끼는 값비싼 옷을 두고 가는 것에 미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 옷가지들이 윤 씨에게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지영도 개의 목을 끌어안으며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지만 개가 지영에게 과거의 추억을 상기시키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⑤ 피란길에 많은 옷가지는 거주장스러우므로 필요한 것만 챙기려는 지영의 합리적 태도와 비싼 옷을 도둑 맞을까 봐 걱정하며 쉽게 짐을 싸지 못하는 윤 씨의 현실적 태도가 드러난다.

- 3 지영은 화창한 날씨에 하늘이 푸르게 걷혀 갈 때 피란을 준비하며 정든 개와 이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맑은 분위기의 배경은 전쟁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과 대비되어 비극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4 한강 다리를 폭파할 때의 충격과 굉음으로 인해 집이 흔들리고 가족 전체가 놀라 일어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짧은 문장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5 "집에 돌아올 수 있었음 좋겠어요."라는 지영의 말에 윤 씨가 "우리가 못 돌아온단 말가?"라고 응수한 것을 통해, 지영은 전쟁이 악화되어 자칫하면 집에 돌아오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농민들은 벌써부터 쌀을 파는 데 돈을 원치 않았고'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쌀을 팔 때 돈 대신 의복 가치를 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⑤ (다)에서 피란민들은 인민군이 지나갔다는 소문을 듣자 불안해하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7 '눈에는 절망의 빛도 없다.', '의식조차 없는 것 같았다.', '흐리멍덩한 눈' 등을 통해 국군 패잔병은 전투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여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노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것이다. 따라서 그를 과염치한 인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8 ㉠의 발화에 군인이 입술을 실룩거리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국군 패잔병을 격려하려는 노인의 의도가 잘못 전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식조차 없는', '흐리멍덩한 눈'을 참고할 때 국군 패잔병은 노인의 호의를 느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9 노인은 어려움에 처한 국군 패잔병에게 자신의 옷과 신발을 내주며 위로의 말을 전한다. 노인과 피란민들은 산길을 휘청휘청 내려가는 국군 패잔병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는데, 이때 빠꾸기가 구성지게 우는 것은 작품에 암울하고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 10 이 글에서 피란민들이 남한이나 북한 정부를 욕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관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보기>의 '6·25 전쟁의 극단적 이념 분쟁 속에서 ~ 삶의 문제였음을 말하고 있다.'를 참고할 때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의 이념보다는 '살아남는 것' 곧 삶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046 역사 _ 김승옥 176~179쪽

키포인트 체크 동경, 이중적, 창신동, 양옥집, 회상, 권태

1 ① 2 ④ 3 ③ 4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살아가는 기계적인 삶을 반역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5 ③ 6 ④ 7 ④ 8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양옥집의 삶에 대해 나름의 반발을 시도하기 위함이다.

- 1 이 글에서는 양옥집의 가풍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소함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그와 관련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이 글은 액자식 구성 중 내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전지적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양옥집이지만, 집에 대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2 '나'는 새로 이사 온 양옥집의 엄격한 가풍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질서하지만 활력과 생명력이 있던 창신동을 떠올리고 있을 뿐, 창신동 식구들에 대한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나'는 가난하고 무질서한 창신동의 삶이 불편하고 싫어서 양옥집으로 이사를 한다. 하지만 양옥집의 가풍은 <보기>의 설명처럼 새로운 억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나'가 창신동에서의 삶을 새로운 억압이라 느껴 양옥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1960년대의 서울은 삶의 양상과 인간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사람들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옥집 사람들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새로운 억압에 대해 다소 불편하고 무질서하지만 생명력을 느끼는 과거를 그리워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는 창신동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나'는 창신동이 무질서하지만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서 1960년대의 서울은 급격하게 유입된 자본주의와 경제 발전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깨끗하지만 비인간적이고 삭막한 양옥집은 자본주의와 경제 발전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삶의 양상과 인간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기능과 규칙, 질서를 중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인 할아버지가 강조한 가풍은 기능과 규칙, 질서를 중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4 '나'는 규칙을 중시하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몹시 낯설고 불편해 한다. 그래서 '나'는 창신동 집을 떠올리며 양옥집에서의 생활을 '정식의 생활'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5 서 씨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남다른 힘으로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남들만큼만 일을 하며 자신의 힘을 감추고 있다. 이는 선조의 영광이자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를 보수로 환산하는 현대의 능률성과 바꾸지 않겠다는 서 씨의 의지의 표현으로, 서 씨가 자신의 힘을 활용하여 선조보다 더 크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㉔는 가난하고 무질서하지만 인간적이며 활력과 생명력이 있는 '창신동 집'을 의미하고 ㉕는 안정적이고 깨끗하지만 비인간적이고 삭막한 '양옥집'을 의미한다. (다)의 '그 집 — 그날 많은 얼굴들이 살던 그 집에서 나는 나 자신 속에서 꿈틀거리는 안주에의 동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를 통해 '나'는 안주에의 동경으로 인해 '창신동 집(㉔)'을 떠나 '양옥집(㉕)'으로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나)에서 서 씨 가계의 내력을 제시한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작중 상황에 실감을 주는 소설적 장치에 해당하므로 서 씨의 행위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① <보기>에서 우리의 눈에는 비사실적인 것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서 씨가 '동대문의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눈에 비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동대문 성벽의 돌덩이 옮겨 놓기)은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서 씨가 '남만큼만 벽돌을' 나르는 모습을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변형'된 모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푸르게 나는 조명'은 서 씨가 동대문 성벽의 돌덩이를 옮기는 행위를 더욱 실감나게 해 주는 장치이다. 따라서 서 씨의 행동을 새롭게 '변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변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장치이다.

⑤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다는 것은 서 씨의 행동이 너무나 놀라워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 씨의 행위가 사실이 아닌 환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8 '나'는 서 씨의 '거짓 없는 행위'를 회상하고, 양옥집의 가풍이 허구적인 질서라고 생각하며 집안의 규칙이 얼마나 정확히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아노 소리가 그친 시간을 재 보려고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혼자 기타를 튕겨 보기 시작함으로써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양옥집의 삶에 나름의 반발을 시도한 것이다.

047 서울, 1964년 겨울 _ 김승옥 180~183쪽

키포인트 체크 소통, 개인주의, 소외, 방, 사내

1 ⑤ 2 ⑤ 3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안'을 통해 의사소통이 단절된 채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4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5 ③ 6 ⑤ 7 ② 8 ④ 9 도시의 인간관계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내의 죽음과 관련해 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함께 있자는 사내와 이를 거절하는 '안'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에 만연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표현하고 있다.

2 '나가' '안'에게 모두 한방에 드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번 제안하지만 '안'이 끝내 거절하고 있으므로, '나'는 '안'을 매정한 사람이라 생각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나가' 사내에게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한 데 대한 합리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 ㉔는 '나가' 사내를 생각하여 모두 한방에 들자고 한 것에 대해 안이 따로 방을 잡자고 한 것이므로, ㉕는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 이름과 주소, 나이, 직업을 모두 거짓으로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정보 노출을 극히 꺼리며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5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 '안', 사내이다. 이들의 실명을 감춘 이유는 익명성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 내기 위한 설정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씨락눈이 내리는 날씨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정서와 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심리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6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 옮겨 디디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등에서 알 수 있듯, '나'는 사내의 죽음과 연관되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안'과도 유대감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가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소통하는 삶을 살 것이라 짐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 '개미 한 마리가 ~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에서 개미를 사내의 분신으로 본다면 개미의 행위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에서 사내의 죽음의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다.

7 '안'이 빨리 도망해 버리자고 한 것은 '그 양반'의 죽음에 연루되는 것을 귀찮은 일로 여기기 때문이므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안'은 인간의 생명보다 개인의 안위를 더 중시하는 현대 도시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8 '안'과 '나'는 사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도망치듯 여관을 나오고 두 사람도 이내 곧 헤어진다. '안'은 사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부정적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나 '나'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② '안'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나'는 '나'라는 표현으로 공감대 형성을 거부하고 있다.

③ '안'은 '너무'라는 부사를 사용하며 사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이와 달리 '나'는 '겨우'라는 부사를 사용하며 이 사건에 대해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안은 사내의 죽음을 귀찮아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을 많이 경험하여 주변의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늙음에 다가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젊음이란 정의와 열정으로 대표되는 것인데 자신들은 스물다섯이라는 젊은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정의감과 열정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 +

• <서울, 1964년 겨울>과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개인

1964년 한일 기본 조약 반대와 한미 행정 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면전에 나선 군사 정부에 의해 패퇴했다. 4·19가 열어젖힌 해방과 자유의 공간을 군화로 짓밟은 정권에 맞선 학생들의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남은 것은 개인 차원의 사소한 실천뿐이었다. 그것은 또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심화된 소외와 개인주의적 세계관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세 남자는 포장마차라는 공간에 각자 술을 마시러 왔다는 공통점으로 묶이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공동체의 형성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세 사람은 각자의 고독과 상처가 깃든 방 속에 웅크리고 틀어앉아 있을 뿐, 바깥 세계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한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라는 부분은 그들이 따로 든 여관방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 모두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1950년대까지 한국 소설은 개인의 존재에 눈뜨지 못했다. 소설이 개인에 관해 말할 때에도 그 개인은 공동체의 역사와 현실에 부분으로 기능하는 개인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김승옥 소설의 문학적 의의는 진정한 '개인의 발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키포인트 체크 위압적(고압적), 두려움, 이발소, 남한, 불심 검문

1 ② 2 ③ 3 ⑤ 4 두 청년의 위압적인 말투는 이발소 안 사람들이 그들을 힘 있는 존재, 즉 권력자로 생각하게 만든다. 5 실체조차 알 수 없는 권력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채 비굴하게 행동하는 나약한 소시민을 비판하고 있다. 6 ⑤ 7 ④ 8 ② 9 당대의 시국

1 '두 곱으로 써늘해졌다.', '모두 간이 콩알만해져서 조마조마하였다.' 등에서 이발소 안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③ 청년들에 의해 긴장감이 유발되고 있지만,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새로운 청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청년에 의해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 청년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모두 일방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지. 도 대체에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 곤란한데에."라며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으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설파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 늙은 관리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완연하게 반천치 같은 얼굴이 되'어 새로 들어선 청년과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즉, 청년과 갈등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인 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청년들의 위압적인 말투와 행동은 이발소 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권력자로 생각하게 하여, 사람들이 청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

5 이발소 안 사람들은 두 청년의 정체도 모른 채 그들의 말과 행동에 주눅이 들어 조마조마하고 있다. 즉, 작가는 청년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에 굴복하여 비굴하게 행동하는 소시민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6 교통순경이 이발소 밖으로 나간 것은 사복 경찰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의 고압적 태도에 놀라 슬그머니 이발소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③ 이발소 안 사람들이 뉴스를 듣고 나서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두 청년을 바라본 것으로 보아 청년들의 눈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④ 교통순경은 "대낮에 무슨 일로 이발소에 들어와?"라는 청년의 말에 차려 자세를 취할 몸짓을 한 것으로 보아 청년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청년들은 불심 검문을 받았지만 '관평 사칭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를 보아 권력을 사칭했다고 볼 수 없다.

8 청년들이 연행되었다가 곧 석방된 것은 그들이 관평 사칭이나 월권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경찰에 굴복한 것에 대한 배려로 볼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청년의 말에 교통순경이 슬그머니 일어서는 것은 청년을 권력의 실체로 착각하여 이에 굴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9 이 글에서 뉴스에 자유 센터 구내에서의 총격 사건이 보도되고, 사복 차림의 경찰이 두 청년을 붙잡 감문하는 내용이 언급되는 것은 이 소설의 내용이 당대 시국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049 토지 _ 박경리 188~191쪽

키포인트 체크 서희, 해방, 진주, 적개심

1④ 2④ 3② 4 유교적 권위주의를 지닌 구세대를 상징한다. 5 서희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버지 최치수의 모습과 태도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격식만 차리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6② 7③ 8① 9④ 10 서희는 조준구를 저주하고 최씨 가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듯 곡을 한다.

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보기 ①, ②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속에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⑤ '장차는 어찌 될지,' '어린것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등에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2 ㉠에서 서희는 아버지의 서술에 놀라 잔뜩 위축되어 있고 이러한 서희에 대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안쓰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의 <심청가>에도 '도화동 남녀노소 뉘 아니 슬퍼하리'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등장인물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3 이 글의 제목 <토지>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보기>는 해방을 맞이한 기쁨에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그린 결말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토지'는 일제에 빼앗겼다 되찾은 우리의 국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식 +

• <토지>의 공간과 역사

첫째, 공간의 확대는 역사적 변화를 암시한다. 구한말 평사리의 최 참판 집안이라는 닫힌 공간을 통해 구한말의 시대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일제 강점하의 간도를 통해 독립운동과 수난을 형상화한다. 그리고 서울과 만주, 러시아 등 해외 무대를 통해 거대 상업 지주의 등장과 국외 항일 투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는 공간을 그대로 차용하여 그 역사적 맥락을 작품에 끌어올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한다. 3·1 운동, 동학의 의병, 진주의 형평사 운동이나 부산의 부두 노동자 파업,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 등은 다양한 인물의 후일담이나 활동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4 구한말은 구세대와 신세대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이 글에서 최치수는 자식과 하인에게 엄하게 대하는 유교적 권위주의를 지닌 인물로 구세대를 상징한다.

5 '짜늘하고 비정한 눈이 서희를 응시하고 있는 것', '숨 막혀서 견딜 수 없어 결국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강한 분위기' 등을 통해 서희가 아버지 최치수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숨이 막혀 함을 알 수 있고, '외는 투의 억양 없는 소리를 질렀다.'에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아무 감정 없이 격식만 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서희는 봉순이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친동기처럼 지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서희가 봉순이의 수다를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조준구는 그 곡소리가 질색이었다.'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③ (나)의 '서희에 대한 동정에 가득 차 있는 삼월이나 복이까지 싸잡아서 ~ 원수로 알아야 할 것이며,'라는 부분을 통해 수동이 이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④ (가)에서 "자꾸자꾸 눈물이 ~ 부렸으면 싶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나)에서 수동이 서희에게 한 말의 내용 중 집안의 노비들과 마을의 농사꾼들 대부분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로서 후일 벼락을 내리야 한다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7 [A]의 '조준구 내외와 ~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에서, 서술자는 서희의 입장에서 수동이 서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에서 봉순이는 자신의 죽은 어머니가 다시 살아오면 예전처럼 애를 태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죽은 뒤에 효도를 다하지 못함을 한탄한다는 한자 성어인 '풍수지탄'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보기 ② 와신상담: 불편한 쉴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맞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④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⑤ 기사희생: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9 (나)의 마지막 문단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역시 조준구다.'에서 알 수 있듯, 조준구는 자신을 저주하는 듯 곡을 하는 서희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조준구가 서희를 알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봉순, 길상, 수동 등이 조준구 일과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다.

⑤ '어디 두고 보아라 ~ 어디 두고 보아라.'에서는 서희의 내면 심리를, '조준구는 그 곡소리가 질색이었다.' 등에서는 조준구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며 이들의 갈등 관계를 부각하고 있다.

10 '고집스럽다'는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워 버티다.', '양갈지다'는 '제힘에 겨운 일에 악을 쓰며 덤비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 서희의 고집스럽고 양갈진 모습은, 조준구를 저주하고 최씨 가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듯이 곡을 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050 관촌수필 _ 이문구 192~195쪽

키포인트 체크 인정, 근대화, 충청남도, 웅점, 대북 여메

1③ 2③ 3⑤ 4 해당 지역의 모습을 실감 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5 하층민이며 모범적인 덕목을 지닌 웅점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6⑤ 7⑤ 8⑤ 9④ 10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1인칭 독백체로 서술되어 수필과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1 '직접 인용'은 인물 간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웅점이와 '나'의 할아버지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이들의 대화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은 서술자의 의식에 나타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글은 '나'가 어렸을 적에 보고 들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웅점이는 어머니가 유평치마를 입고 머리는 헛사시까미를 했다고 말하며 여간 하이카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외모에만 신경을 쓸 뿐 술을 많이 마시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신식으로 입고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나'의 외숙은 글지의 지주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을 뿐 온갖 잡기와 유희에만 몰두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유학'의 도덕적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나'의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감'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나'의 외숙을 '대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무엄한 말이 되는 것이다.

4 방언(사투리)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충남 지역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남 지역의 모습을 실감 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5 이 글은 웅점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웅점이는 인정과 동정심이 많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층민에도 해당되는 인물이다. 웅점이가 '전'의 서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 '전'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6 웅점이가 시원스런 성격에 일을 잘한 것은 맞지만, 보시기·종발·접시 따위의 사기그릇의 귀를 잘 떨어뜨렸으며, 결핍하면 바가지를 깨거나 소래기에 금을 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오답 틀어보기 ② '나'의 어머니는 대북 어메가 음식을 몰래 가져가는 나쁜 손버릇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 따라서 '나'의 어머니는 인자하고 관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은 지계를 등에 메고 일어설 때 작대기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이는 대북 어메에게 웅점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대북 어메가 웅점이의 불씨 왕래를 '나'의 어머니에게 이르면 웅점이와 원수를 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북 어메가 몰래 음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웅점이가 사생결단으로 달려들 것이 뻔하다. 그래서 대북 어메는 웅점이가 불씨 나르는 것만큼은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8 (가)에서는 대북 어메가 하는 허드렛일과 그로 인해 받는 대가를 대구와 열거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홍보의 초라한 행색을 대구와 열거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대구와 열거를 사용하는 것은 관소리에서 사용하는 전통적 서술 방식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면을 확장하여 표현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9 대북 어메는 웅점이가 불씨를 꺼뜨리고 자신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가는 것을 '나'의 어머니에게 고자질하지 않는다. 이는 불씨를 꺼뜨리면 '나'의 어머니에게 웅점이가 크게 혼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웅점이와 원수를 질 만한 일을 만들어서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 역시 '웅점이와 원수져서 이로우미 있을 리 있을 터인가.'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어메는 웅점이와 원수지지 않기 위해 불씨 왕래를 고자질하지 않은 것이다.

10 이 글은 주인공 '나'가 회고적인 어조로 서술한 자전적 형식의 소설이다. 1인칭 독백체의 문체로 서술되어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수필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051 삼포 가는 길_ 황석영 196~199쪽

키포인트 체크 하층민, 산업화, 삼포, 현실적, 개발

1 ⑤ 2 ① 3 ⑤ 4 피폐했던 삶 때문에 쇠약해진 백화가 측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5 팔 시루떡은 백화가 영달에게 고마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소재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6 ① 7 ① 8 ③ 9 ④ 10 두 사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1 (가)에서 백화는 지나간 삼 년 중에서 옥바라지했을 때만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때가 없었다고 했으므로 그 일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라)에서 정 씨는 자신은 호남선 쪽이라고 백화에게 이야기했다.

② (나)에서 정 씨는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고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③ 영달은 백화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고, 백화를 업었을 때 그녀의 가벼운 몸무게에 연민과 동정을 느낀다. 그러면서 백화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④ (라)에서 정 씨가 여비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백화가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여비가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 이 글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정치 없이 떠도는 노동자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떠도는 사람과 정착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3 눈이 덮여 있어 길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세 사람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상징한다. 또한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통에 빠져 영달의 등에 업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영달은 백화를 등에 업고 걸으면서 그녀를 안쓰럽고 가련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갈등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영달은 백화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백화에게 동정심을 갖게 된다. 백화가 어린이처럼 가벼운 것이 그녀의 기구한 삶 때문이라고 생각한 영달은 그녀를 가엾게 여기고 있다.

5 팔 시루떡은 백화가 자신을 업어 준 영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음식을 함께 나눌 정도로 친근한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소재이다.

6 정 씨는 노인에게 고향인 '삼포'가 몰라보게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으로 가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고,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고향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정 씨 역의 배우에게 주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과거의 삼포는 근대화 이전의 훼손되지 않은 농어촌 공동체로, 떠돌이 정 씨에게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인 안식처였다. 현재의 삼포는 산업화로 인해 본원적인 가치가 훼손되어 버린 고향의 모습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여 주는 곳이다.

☞오답 틀어보기 ② 과거의 삼포는 고기를 잡고 감자를 매는 전형적인 시골이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온 영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영달은 오히려 공사판으로 변한 현재의 삼포 이야기를 듣고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고 있다.

8 백화와의 이별을 결심한 영달이 백화를 떠나보내며 '삼립빵 두 개와 찢달걀'을 사서 백화에게 주고 있는데 이는 백화를 생각하는 영달의 따스한 마음, 곧 백화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9 백화는 술집 작부로 일하면서 가명을 사용해 왔다. 즉, 익명성 속에 숨어 산 것이다. 그러나 영달과 정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백화는 그들에게 만큼은 진실된 자신을 보여 주려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이다.

지식+

- <삼포 가는 길>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리 변화 양상
- 영달: 영달은 백화에 대해 연민과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지만 결국 백화를 떠나 보내면서 아쉬움을 느낀다.
- 정 씨: 삼포가 변해 버렸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삼포가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가야 할 곳이었지만, 삼포가 변해 버렸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듯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
- 백화: 백화는 정 씨, 영달과 동행하다 차츰 두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가자고 말하지만, 결국 혼자 떠나게 된다. 백화는 영달과 정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자신의 본명을 말하고 돌아선다.

10 기차는 때때로 인생에 비유된다. ㉠의 기차도 정 씨와 영달의 인생을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어두운 들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는 이들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052 장마_윤홍길

200~203쪽

키포인트 체크 인민군, 국군, 장마, 구렁이, 화해

1④ 2② 3① 4 삼촌의 넋이 한을 품지 않고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5④ 6⑤ 7② 8② 9 장마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며, 이는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닥친 불행인 6·25 전쟁을 상징한다.

1 기다리던 삼촌의 현신으로 알고 있는 구렁이를 무사히 돌려보내기 위해 외할머니가 다급하게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구하는 대목에서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빈번한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이 글은 '나'라는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③ 외할머니의 말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싶냐?' 등에서 방언과 비속어를 통해 사실감을 주고 있다.

⑤ (가)의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깔', '꼭 울어 보려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장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 아니라, 소설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것으로 소설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할머니를 대신하는 것으로, 죽어 돌아온 아들에 대한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보고 있으며, 구렁이가 나타난 것은 어머니를 빙자 못하고 죽은 한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움으로써 구렁이가 된 삼촌에게 할머니의 정을 느끼도록 하여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5 (라)의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에서 할머니가 아버지보다 삼촌에게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버지가 이러한 할머니를 원망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라)의 끝부분에서 할머니가 '나'를 용서했다는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② (라)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에서 잘 드러난다.

③ (나)에서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후 고모에게 구렁이가 갔냐고 묻자 고모가 고개를 끄덕인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 고모가 할머니에게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무사히 돌려보낸 일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지식+

- '나'와 할머니의 갈등
빨치산이 되어 모습을 감춘 삼촌이 몰래 집에 다녀간 후, '나'는 삼촌을 검거하려는 형사에게 속아 이 사실을 알려 준다. 이 일로 아버지는 지사에 끌려갔다 오고, '나'는 할머니의 분노를 사게 된다.

6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서로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화합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7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배웅하고 난 후,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가 소원한 관계에 있던 외할머니를 큰방으로 건너오게 하여 고마움을 표하고 있으므로, '구렁이'는 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

- '구렁이'의 상징성

분위기와 관련	매우 음산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인물의 삶과 관련	인물들의 토속적이며 무속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결말과 관련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파탄 없이 융화할 수 있는 결정적 장치로 제시되고 있다.
원형 상징성	'뱀'은 음산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제재이며, '지혜', '생명' 등의 원형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8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마음을 나눈 후,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화해하고 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

각하는 마음

- ③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 ④ 초지일관: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갈.
- ⑤ 에이불비: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

9 '장마'라는 배경은 한 가족의 갈등과 불행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의미하며 나아가 민족의 불행이었던 6·25 전쟁을 상징한다.

053 겨울 나들이 _ 박완서

204~207쪽

키포인트 체크 허탈감, 서울, 온양, 도리질, 사랑

- 1 ④ 2 ④ 3 ③ 4 ⑤ 5 솜옷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6 ③
7 ② 8 ④ 9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1 차장이나 여인숙 주인아주머니와 같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나'는 주인아주머니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나'가 호텔에서 나와 호수를 거쳐 여인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장소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자신의 경험담을 서술하고 있다.

③ '나를 자기 버스에 짐짝처럼', '미라에다 옷을 입혀 놓은 것' 등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⑤ '나'와 차장의 대화, '나'와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나'가 추운 겨울에 홀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 '나'는 호수에 도착하자마자 암울하고 황량한 느낌을 받는 반면, 여인숙에 들어가는 주인아주머니에게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고 있다.

3 '나'는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삶에 대해 회의를 느껴 여행을 온 것인데, 버스를 보고 '나'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4 차장은 '나'가 경치 좋은 곳에 가길 원한다고 짐작하여, 근처에 경치가 좋은 곳은 호수밖에 없으므로 그곳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5 '나'는 자신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 주인아주머니에게서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함과 포근함을 '솜옷'에 비유하고 있다.

6 주인아주머니의 "이젠 고쳐 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단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라는 말에서 주인아주머니가 노파의 고질병을 고치기 보다는 극진히 모셔 여성 동안 편안히 지내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나'는 가족을 위한 아주머니의 헌신적인 삶을 보고 감동을 받은 후, 자신의 삶 또한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8 이 글에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

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라는 점에서 측은한 마음이 들 수 있다.

② 할머니가 인민군을 보고 비명을 질러서 아들이 뛰어 나오게 되었고, 그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다.

③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본 후 할머니가 거의 실성하다시피 했고, 도리질을 멈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서 할머니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⑤ 할머니의 도리질을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참상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볼 때,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극복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주인아주머니는 실제로는 자식을 지켜 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끝까지 자식을 지키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도리질'을 대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도리질은 죽은 자식이라도 지켜 내고 싶다는 의지와 사랑, 책임감의 표현인 것이다.

054 카메라와 워커 _ 박완서

208~211쪽

키포인트 체크 부정적, 산업화, 진로, 취업

- 1 ② 2 ① 3 ③ 4 ② 5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거부한다.
6 ④ 7 ⑤ 8 ③ 9 ③ 10 성실 근면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이를 좌절시키는 현실을 상징한다.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중 인물인 '나(고모)'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며 자신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2 (가)에는 혼이와 '나'가 혼이의 진로 선택 문제, 즉 문과와 이과 중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드러난다.

3 ㉠은 '나'가 말한 사회의 병폐에 대해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여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6·25 전쟁 중에 오빠의 죽음을 경험한 '나'는 조카인 혼이에게 편안하고 무난한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충고한다. ㉡는 '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적인 고민 내용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공대'는 취직이 잘되는 곳으로, 편하게 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곳이다.

③ '갈비점을 먹을 궁리'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말한 '편안하고 무난한 삶'으로 볼 수 있다.

④ '기술자'는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직업으로, <보기>에서 말한 '편안하고 무난한 삶'으로 볼 수 있다.

⑤ '대기업'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보기>에서 말한 '편안하고 무난한 삶'으로 볼 수 있다.

5 '나'는 혼이에게 카메라를 사 주겠노라 말했지만 혼이는 이를 '지긋지긋'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때 '카메라'는 개인의 안정된 삶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혼이는 '나'가 강요하는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안정된 삶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6 '나'는 오대산 주변의 푸르고 평온한 풍경에 감탄하고 있지만, 훈이가 이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③ '나'는 훈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을 알고 이를 안타까워하며 자신과 함께 다시 서울로 돌아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② (나)의 '영동 고속 도로가 개통되면~쾌속을 즐기겠지.'에서 공사가 끝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빠르게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푹푹히 확인하고 싶어.'에서 '나'와 할머니는 기술을 익히고 정직, 근면하면 적절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7 훈이는 회사측에서 말하는 경영 합리화가 임시직에게 봉급을 조금 주면서 부려 먹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얻어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노동자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나'는 이가 들끓고 있는 곳에서 형편없는 식사를 하며 중노동을 하고 있는 훈이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힘든 공사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와 같이 말한 것이다.

9 고속 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국토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허울 좋은 '나'의 말을 듣고, 훈이는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훈이가 "웃기네."라고 말한 것은 흥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며 웃는 웃음인 '조소'에 해당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고소: 쓴웃음

② 폭소: 갑자기 세차게 터져 나오는 웃음

④ 미소: 소리없이 빙긋이 웃는 웃음

⑤ 쾌소: 시원스럽고 유쾌하게 웃는 웃음

10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믿음이나 기대와 달리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무거운 현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카메라와 워커'라는 이 글의 제목은 성실 근면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이를 좌절시키는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055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_ 조세희 212~215쪽

키포인트 체크 난쟁이, 무허가 빈민촌, 철거 계고장, 희망

1③ 2③ 3④ 4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는 사람들이 법의 비호를 받는다. 5④ 6④ 7① 8⑤ 9 '거인'은 거대 자본, 혹은 빈민 계층을 착취하고 투기를 일삼는 부도덕한 부유층을 상징하고, '난쟁이'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빈민 계층을 상징한다.

1 제시된 부분에는 철거 계고장이 도착한 후 난쟁이 일가의 반응이 드러나 있을 뿐 빠른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가난한 난쟁이 일가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② 등장인물인 '나'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④ 가난한 난쟁이 일가는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고 투기업자들은 철거민의 입주권을 사들이는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⑤ 장애를 지니고 있는 난쟁이를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회적 결핍 상태와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2 '낙원구 행복동'은 난쟁이 일가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다. 지옥에서 바라보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

3 '나'는 집을 헐러 오는 놈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에 저항하는 영호의 말에 "그만둬."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나'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은 법이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로,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억누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5 이 글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원적 대립 구조를 보여 준다. 이러한 대립은 글 속에서 '주택가,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과 '우리 동네, 풀 냄새, 주머니가 없는 옷'의 대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6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이 현실 부정이나 비판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꿈꾸는 이상 세계인 '달나라'는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기타'는 영희의 꿈을 상징하는데 '줄 끊어진 기타'는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던 영희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8 난쟁이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난쟁이'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열심히 살아온 '난쟁이' 가족의 비극은 '욕망'으로 가득 찬 '죽은 땅'의 현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일만 년 후의 세계>는 아버지가 바라는 이상 세계가 쉽사리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불공평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③ '달나라'는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러한 달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이 포함된 것이다.

④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라는 지섭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이 글은 산업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부유층에 의해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작가가 그린 '난쟁이'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이며 1970년대의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전형을 보여 준다.

지식+

• 한국 소설사에서의 연작 소설

한국 소설사에서 연작이라는 양식은 1970년대에 특히 유행했다. 대표적으로 이문구의 <우리 동네>, <관촌수필>, 윤희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등이 있다. 연작 소설은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사회 계층의 단편이 뚜렷해지면서, 작가의 시각을 하나의 시점에 고정하지 않고 여러 각도로 당대의 문제들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키포인트 체크 자부심, 연민, 소시민, 수술비,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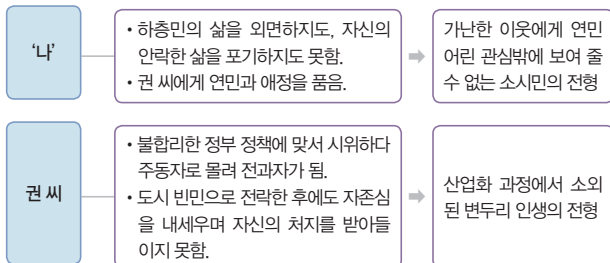
1④ 2④ 3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두를 닦는 것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4 '나'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던 것을 깨닫고, 이를 반성하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이다. 5③ 6③ 7⑤ 8 '나'는 권 씨를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지만 권 씨는 그 말로 인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 이 작품은 '나'가 권 씨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서술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원장은 척분도 없는 '나'가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주는 것을 보고 놀라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권 씨를 비난하기는 하지만 결국 수술비를 받았으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 '나'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권 씨에게 '구두'는 자신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물건이자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므로, 권 씨가 구두를 닦는 것은 '나'의 거절로 인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 <보기>는 굵은 선 시위대가 땅에 떨어진 참외를 먹는 장면을 본 권 씨가 지식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장면이다. '나' 역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권 씨의 어려움을 모른 채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권 씨가 '나'의 방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고 있지만, '나'는 강도가 권 씨임을 알아채고 권 씨를 안심시켜 돌려보내려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② 권 씨와 '나'가 나누는 대화와, 강도에 대한 행동 묘사를 통해 현장감을 주고 있다.
 ④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나 손을 떨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재우는 강도의 모습을 통해 소심하며, 강도짓을 해 본 적이 없는 권 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와들와들', '후닥닥' 등의 의태어를 통해 권 씨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나'는 권 씨를 처음 보았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에게 연민을 품는다. '나'는 강도 사건 이후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지 않는 권 씨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

지식+

• 등장인물의 전형성



- 강도 행각을 끝내고 집을 나가는 장면에서 권 씨는 영겁결에 자기 집인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한다. 이 대목에서 강도의 신분이 권 씨 입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지만, '나'는 끝내 이를 모른 채하고 때문이 있는 방향을 일러 준다. 두 사람은 서로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모른 채하고 있으므로, '나'가 떠올렸음직한 생각으로 ⑤가 적절하다.
- '나'는 권 씨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든가'와 같은 권 씨의 사정을 넘기지 말함으로써 자신이 강도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음을 알려 주지만 권 씨는 그 말을 자신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

키포인트 체크 무관심, 이익(재산), 산업화, 전통적, 헌 팬티, 마을 회관

1④ 2③ 3① 4③ 5 황 씨에게 창피를 주어 그의 부정적 행위를 응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쾌하면서도 뿌듯해하고 있다. 6⑤ 7① 8② 9 황 씨 역시 작년에 마을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도시 사람들이 농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이면서도 특정 인물인 '김'의 시선을 중심으로 사건과 인물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 틀어보기 ③ 작품 밖 서술자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만,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A]에는 수재민 구호품으로 헌 팬티를 내놓은 황 씨에 대한 마을 사람의 비난이, [B]에는 수재민에게 속옷도 필요한 물건임을 내세워 자신이 내놓은 물건이 적절하다는 황 씨의 자기 합리화가 드러난다.

☞오답 틀어보기 ① [A], [B] 모두 말하는 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A]는 상대방인 황 씨의 권위와는 무관한 발화이며, [B]는 속옷도 필요할 것이라는 수재민의 처지를 부각한 발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가)와 (나)를 통해 황 씨가 매우 인색한 인물임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②, ⑤ (나)에서 입던 팬티를 이재민 구호품으로 내놓은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③ (가)에서 황 씨를 '느티울에선 버림치로 치부하여 진작 젖혀둔 인간'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가)에서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이장, 최정식, 고명근, 홍사철

등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점과 (나)에서 현 팬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비난에 자기 합리화로 대응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적절하다.

- 4 황 씨가 내놓은 현 팬티는 마을 전체의 결정에 의한 수재민 구호품을 내놓지 않으려는 황 씨의 인색한 성격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고조된다.
- 5 평소 황 씨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김'은 현 팬티를 마을 회관 앞 바지랑대에 매달아 뒀으므로 황 씨의 이기적인 행동에 응징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일 차려 먹은 듯한 풍덩한 기분', '푸짐한 경사를 치른 기분' 등을 통해 그가 통쾌함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6 '고(고명근)'는 도시에 사는 친척과의 일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겉보기에 좋은 채소만 찾는 도시인의 성향을 통해 농약 사용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보기 ④ 김은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각기 직업두 생긴 겐디', '우리네 위에 올려슬 것이 없을 텐디두'와 같이 말하며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7 농사일이 바빠 농약을 뿌리지 못한 것을, 농민의 양심상 일부러 뿌리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뢰 상실과는 무관한 내용임으로 적절하지 않다.
- 8 황 씨가 마을 회관에 걸린 자신의 팬티를 애써 모른 척했던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장은 황 씨를 여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기로 한 이상 황 씨가 직접 현 팬티를 치우게 함으로써 황 씨의 이기적 행동에 대한 응징을 끝내고자 하는 것이다.
- 9 ㉠에서 황 씨는 농촌 사람들을 속이는 도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질 낮은 새우젓, 황새기젓 등을 마을 사람들에게 팔아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는 '똥 문은 개가 겨 문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058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_ 조세희 224~227쪽

키포인트 체크 노동자, 은강, 피라미드

- 1 ③ 2 ① 3 ④ 4 먹고 사는 일 5 ② 6 ① 7 ④ 8 ⑤
9 이들의 삶이 생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절박한 활동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1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중심인물인 '영수'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2 '릴리프트업'은 현실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걸리버 여행기>에 등장하는 난쟁이 마을이며, 비현실적인 이상 세계이다. 이 마을을 동경하는 영희를 통해 현실과 대비되는 릴리프트업의 모습을 제시하여 현실의 모순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② 릴리프트업은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현실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할 뿐 작품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릴리프트업은 작품의 배경이 아니므로 동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작품은 전기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아버지의 죽음이 초월적인 세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 ⑤ 소외된 자들의 이상 세계인 릴리프트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대조되는 현실의 비극성이 오히려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 3 영호가 자살한 아버지의 죽음을 타살이라 말하는데 '나'는 이 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힘들게 일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결정이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4 '늦추지'는 먹고 사는 일을 상징하는 소재로, 이는 난쟁이인 아버지가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 5 이 작품은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풍자적 어조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보기 ① 이 작품에는 짧은 문장이 많이 쓰였으며, 이로 인해 속도감 있게 읽히고 있다.

 - ③ '은강'이라는 상징적인 공간과 '생태계'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인물들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 모습, 호흡마저도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거 사건인 아버지의 장례식 장면과 현재의 모습이 별다른 표지 없이 혼재되어 서술되고 있다.
- 6 ㉠에서 은강이 릴리프트업과는 달리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실 세계임을 알 수 있고, ㉡을 통해 난쟁이 일가가 생태계의 최하층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는 자식들도 아버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가난이 대물림되어 최하층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 7 먹이 피라미드에 대해 '우리는 이 댐 밑야요. 우리에게겐 잡아먹을 게 없어요.'라는 영호의 말을 통해 먹이 피라미드가 은강에서의 자신들의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8 가족들이 호흡까지 조심하는 모습과 바짝 마른 곰알처럼 아주 약한 호흡을 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이들의 삶을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보기 ① "너는 장남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집안의 기둥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에서 '나'는 이미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은강에 대한 '나'의 인식을 알 수 있다. 릴리프트업과 달리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은강에 대한 좌절감이 담긴 표현이다.
 - ③ 어머니는 재를 받아 들고도 아버지의 죽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누구나 죽으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먹이 피라미드라는 생태계의 모습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9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삶'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생명 활동'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들의 삶이 생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절박한 활동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키포인트 체크 의붓아버지, 소리, 시골 주막, 오라비

1④ 2② 3① 4 어머니가 의붓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원망을 소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표출한 것이다. 5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배게 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더라 말인가? 6③ 7② 8③ 9 헛덩이는 오라비가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 헤매는 원동력이면서 어머니를 죽게 한 의붓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하는 살기라 할 수 있다. 10 술손 사내가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들은 것과 그의 복장단 솜씨가 아버지의 솜씨와 같았기 때문이다.

1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세계까지도 설명하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사건과 장면이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사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을 풀기 위해 소리를 찾아다니는 인물이고, 눈먼 여인 역시 오라비를 만나 밤새 소리를 함으로써 가슴속에 품고 있던 한을 해소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눈먼 여인의 말을 통해서 여인의 내면과 사건이 전달되고 있다.

2 천 씨는 눈먼 여인의 소리에 깊은 한(恨)이 있음을 알고, 여인의 신상을 묻지 않은 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막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준 인물이다. 또한 여인에게 오라비와의 과거 사연을 물어봄으로써 오누이가 한(恨)을 지니게 된 이유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 오라비는 어머니가 의붓아버지 때문에 죽었다고 믿고, 이에 대한 원망으로 도망치게 된다. 눈먼 여인은 의붓아버지가 딸마저 잃을까 두려워 직접 딸의 눈을 멀게 만든 한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을 두고 도망쳐 버린 오라비에 대한 원망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간밤에 오라비인 사내와 함께 소리를 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로의 한을 확인하고 오라비에 대한 원망과 한의 감정을 풀어버림으로써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기색이 없는 것이다.

4 오라비는 의붓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의붓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한을 간직한 인물이다. 차마 의붓아버지를 죽일 수 없어 몰래 도망을 치지만 의붓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가 시킨 소리를 끝내 하지 않음으로써 의붓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5 간밤에 다녀간 술손 사내가 자신의 오라비라는 눈먼 여인의 말에 천 씨는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배게 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더라 말인가?'라고 묻는다. 이 이야기는 술손 사내와 눈먼 여인이 방에서 나눈 대화로, 이를 천 씨가 알고 있다는 것은 술손 사내와 눈먼 여인이 간밤에 나눈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6 여인은 눈이 멀게 된 후 소리가 윤택해지며 좋은 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눈이 멀게 된 사연은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전 털어놓은 것이므로, 사연을 알고 나서 좋은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가)의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 — 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의 어정쩡한 인륜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알아보았겠지요,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지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놓아 나가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오." / "그렇다면 글썽…….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길을 떠나고 말았단 말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 가면서도 의붓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아버지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이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마을 사람들의 애깃거리가 되곤 할 정도가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노인을 향해 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눈먼 여인이 아니라 달아난 오라비였다. 오라비는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여 노인에게 원망을 품고 있어 눈에 살기가 어려 있었다.

8 술손 사내와 눈먼 여인이 서로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헤어진 것은 오랜 세월 한을 묻어 둔 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을 들추어 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9 오라비는 의붓아버지에 대한 살기(殺氣)를 '헛덩이'라고 표현했다. 오라비에게 '헛덩이'는 고통스러운 것인 동시에 반갑고 소중한 것, 어미를 빼앗아 간 의붓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그의 소리에 매혹되는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헛덩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살기'는 의붓아버지나 눈먼 여인을 해칠 수 있었음에도 오라비가 도망을 친다는 점에서 명확한 근원을 알 수 없는 트라우마이며, 깊이 간직해야 할 한(恨)이라고 볼 수 있다.

10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대했을 때부터 들기 시작했소.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 오라비의 솜씨는 옛날의 제 아버 되는 노인의 솜씨 그대로였소."를 통해 여인이 술손을 오라비라고 생각한 이유는 술손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과 그의 복장단 솜씨가 여인의 아버지의 복장단 솜씨와 같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키포인트 체크 아버지, 병국, 병식, 산업화, 석교천, 진정서, 새 밀렵

1④ 2④ 3① 4 자연보다 인간을 중요시하는 인간 중심 가치관
5 병국은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 근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6③ 7⑤ 8① 9 환경 복원을 위한 병국의 노력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1 4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각 부분마다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 제시된 장면의 서술자는 아버지로, 서술자의 변화 없이 한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서술함으로써 그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이 글의 '도요새'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나'의 처지와 달리 휴전선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는 고향과 그곳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의 '대화'는 어리고 성기어서 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꽃을 피우고, 암향이 부동하기까지 하여 화자

가 경이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3 ㉠은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텅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인 '교각살우'와 의미가 상통한다.

☞오답 뜯어보기 ②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르는 말

③ 안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④ 칠전팔기: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노력을 이르는 말

⑤ 곡학아세: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침함을 이르는 말

- 4 ㉠에는 새나 물고기의 죽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노무과장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5 (나)의 진정서에는 몰래 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을 고발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병국은 근대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가)에서 병국과 병식의 대결은 병식이 싸움을 멈추고 자리를 떠나면서 일단락된다. 그러나 두 인물 모두 상대방이 승리했음을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병식은 자신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병국도 병식에게 집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등 각자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결이 일단락되면서 갈등이 소강 상태에 놓인 것일 뿐,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뜯어보기 ④ (나)에서 병국의 꿈 중 도요새가 희생당하는 모습은 사회(인간 문명)와 자연(도요새)의 갈등, 개인(병국)과 사회(성장 중심 사회)의 갈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는 서술자가 병국의 이동과 내면 심리, 버스 안에서 꾸는 꿈의 내용을 모두 직접 제시한다.

- 7 (가)에서 병식이 새를 잡아 박제하는 것은 죄이고 허가 받은 사냥총으로 새를 잡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냐고 병국에게 말한 것은, 왜 자신의 행위만 죄가 되는 것처럼 추궁하느냐고 항변한 것일 뿐, 수렵 행위가 더 큰 죄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오답 뜯어보기 ①, ② '희귀조가 멸종되고 있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를 창조할 순 없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지구상에는 삼십억 넘는 새가 살아. 그중 내가 몇 마리를 죽였다 치자, 형은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날아다니는 새도 입자 있나? 지구의 새를 형이 몽땅 사들였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8 병식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새를 잡아 박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 것이다. 병식이 자신의 일을 경제 성장의 일환으로 여긴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9 <보기>에는 석교천과 동진강의 환경 복원에 대한 병국의 다짐이 드러난다. 그러나 병식과의 갈등에서 나타나듯 병국의 노력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보기>에서 병국이 가졌던 의지와 포부가 꺾여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심화되었기 때

문에 ㉠과 같이 도요새가 여러 위협에 의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현상이 꿈에 나타난 것이다.

061 엄마의 말뚝 2_ 박완서

236~239쪽

키포인트 체크 한, 영향, 수난기, 화장

1 ① 2 ② 3 ⑤ 4 오빠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한 어머니의 한 5 ④
6 ⑤ 7 ③ 8 ④ 9 '괴물'의 의미: 남북이 분단된 상황 / •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는 이유: 남북이 분단된 비극적 상황은 통일을 통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함으로써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 뜯어보기 ② 이 글은 서술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③ 작품 속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서술 방식을 택하면 독자와의 거리는 가까워지므로 적절하지 않다.

- 2 <보기>를 통해 작가는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분단의 상체가 있는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이 작품에서 전쟁 때문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한을 통해 아직도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 3 '나'는 전쟁 중에 아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환각으로 다시 보게 된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차라리 죽음이 그것보다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4 <엄마의 말뚝>은 세 편의 연작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엄마의 말뚝'의 상징적 의미도 각 편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2편에서는 오빠의 비극적인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오빠의 죽음을 가슴에 말뚝처럼 박고 살아온 어머니의 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5 이 글에서 '나'가 서술하는 시간은 어머니가 입원하고 있을 때인데, 오빠처럼 화장을 해서 유골을 뿌려 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나'가 오빠의 죽음과 관련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하는 시간과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라는 서술로 보아, 어머니는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니므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잘해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뜯어보기 ① 원작의 시점을 살리라는 조건에 따라 '나'의 시선에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현재에서 과거로의 장면 전환에는 두 화면을 중첩하여 보여 주는 오버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④ 어머니는 씩씩하고 도전적인 태도로 오빠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분단 상황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7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의 어머니가 알맞은 온기와 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을 하여 고향이 가까운 바다에 뿌려 달라는 유언을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즉, 남북의 분단 상황

과 그것으로 인한 개인적 비극에 정면으로 맞서서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어머니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의 심층적 이유로는 ㉡가 적절하다.

8 ㉢은 오빠의 화장과 강화바닷가에서의 상황을 보여 준다. ㉢에서 한 줌 가루가 되어 고향으로 간 오빠처럼 이제 어머니도 가루가 되고 바람이 되어 고향으로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9 어머니는 자신이 죽은 후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이 되어서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괴물'은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 상황에 어머니 나름대로 도전함으로써 극복 의지를 보여 주지만 진정한 통일만이 이 괴물을 무화시킬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식 +

•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연작 소설, <엄마의 말뚝>

이 작품은 1980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세 편의 연작 소설이다. 각 편마다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며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해방 이전부터 6·25 전쟁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엄마와 '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각 작품은 독립된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작품이 모두 작가의 작품 세계의 본질을 보여 주고 있다. 중심인물인 엄마를 통해 작가는 한 개인의 일생이 정치사, 민족사의 차원으로까지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됨을 생생한 묘사를 통해 보여 준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복잡적으로 뒤엉키며 전개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다.

1편 즐거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오빠와 '나'를 서울로 데려간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 간다. 사대문 밖의 초라한 셋방에 살던 '나'는 도시의 삶에 길들여지고, 어머니는 '나'를 문안에 있는 학교에 진학시킨다. 해방을 맞고 드디어 문안에 집을 정만하게 된다.
3편 즐거거	수술 후 어머니는 7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신다. '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하여 오빠가 뿌려줬던, 고향이 보이는 강화도 바다에 뿌리려 하지만, 사회적 체면과 이목을 중시하는 조카가 매장할 것을 고집하여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는다.

06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_ 박완서 240~243쪽

키포인트 체크 고아, 친동생, 근대화, 은 표주박

1 ⑤ 2 ④ 3 ④ 4 ③ 5 ② 6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7 ④ 8 ② 9 은 표주박은 수지가 어렸을 때 오목을 버렸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0 내가 친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난한 너의 가족을 뒤치다꺼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어.

1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를 통하여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수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②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수지가 동생을 버린 원인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인간들의 이기심이 부각되고 있다.

③ 수지와 수철은 1980년대 중산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오목은 하층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④ 이 부분의 중심인물은 수지로, 수지는 수철을 비롯하여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된다.

2 사람들이 파티를 하며 속물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신들의 공허한 내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허전해 보인다고 느낀 것은 수지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나)에서 '남자들의 화제는 ~ 리드하고 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수지는 수철이 낮설게 느껴질 때마다 1951년의 겨울을 기억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그 대답은 늘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③ (나)의 마지막 문단 '수지는 처음으로 그 겨울에 ~ 어떤 행복감보다도.'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수지는 (가)에서 오빠를 찾아온 것이 근심을 나누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3 수지는 파티를 즐기는 수철의 모습에 이질감을 느끼고, 오빠가 막냇동생 잃어버린 일을 모두 잊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자신의 근심을 나눌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수지는 그동안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동생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지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수지는 오빠 내외를 보며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③ 수지는 오빠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단지 속물적으로 변한 오빠가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다 잊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4 ㉢의 서술은 '나'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지의 시각에서 수지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한 서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⑥는 문맥상 '소문이나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②의 '분분하다'는 '매우 향기롭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6 수지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6·25 전쟁의 참담한 기억을 다 잊었고, 자신만이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7 오목은 죽는 순간까지 수지가 자신을 버리고도 진실을 밝히지 않은 친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8 수지는 은 표주박을 받고 동생을 버렸던 자신의 죄와 동생을 찾고도 모른 채했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있다. 무릎을 꿇은 후 겸허하고 편안해졌다는 서술을 통해 볼 때 수지가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9 피란길에 오목의 손에 주어 주었던 은 표주박은 수지에게 죄악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수지는 죽음에 다다른 오목에게 은 표주박을 건네받음으로써 외면해 왔던 자신의 죄와 대면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게 된다.

10 수지는 오빠 수철과 함께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어엿한 중산층으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오목이라는 가난한 여자가 자신의 친동생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오목이 너무 가난한 데다 자식이 다섯이나 되어 자기가 친언니임을 밝혀지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자신이 친언니임을 밝히는 일을 주저한다.

063 태백산맥 _ 조정래

244~247쪽

키포인트 체크 염상진, 하대치, 좌우익, 인민재판

1 ③ 2 ① 3 ④ 4 ② 5 문 서방이 김사용을 위해 크게 소리 지르고, 그 후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에서 선량한 성품을 느낄 수 있다. 6 ④ 7 ③ 8 ① 9 김범우는 인민재판이 특정 사상에 따라 민족을 처단하기 때문에 민족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1 이 글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김사용은 인민재판을 받은 후 풀려났으며, 문 서방이 이 내용을 김범우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문 서방의 말을 통해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② 문 서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 문 서방이 선량한 성품을 지닌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문 서방이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현실성과 함께 인물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⑤ 김범우의 심리를 통해 김사용의 인민재판이 염상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2 이 글은 문 서방이 김사용의 인민재판을 보고 온 후, 재판 내용을 김범우에게 전달하는 부분이다. 재판 과정을 듣고 난 김범우가 이 인민재판이 염상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는 장면이 뒤이어나온다. 따라서 이 글의 주된 사건은 염상진의 계획에 따라 김사용이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다가 풀려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김사용은 염상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지주들과 똑같이 체포되어 인민재판에 회부된다. 그러나 김사용이 풀려나게 된 것은 염상진의 지시에 따른 하대치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풀려나게 된 것이지, 체포된 것과 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하대치가 벌떡 일어나 김사용이 인민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들 범준이 독립투사였다는 것이다.
 ② 하대치가 말한 두 번째 이유는 김사용이 독립 자금을 댔다는 것이다.
 ③ ‘지주 김사용은 작인들한테 질로 후하게 현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모인 사람들에게 김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여기저기서 ‘웁소, 웁소.’ 하는 소리가 나오며 석방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 4 염상진이 김사용을 풀어 준 공적인 목적은, 객관적으로 별로 흠 잡힐 데 없는 김사용을 인민재판을 거쳐 석방시킴으로써 인민재판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널리 선전하려 한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어린 날부터 따뜻한 정과 깊은 이해를 베풀어 준 김사용에게 은혜를 갚고자 김사용을 풀어 준 것이다.
- 5 문 서방은 김사용의 인민재판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손바닥이 떨어질 정도로 박수를 친다. 또한 김사용이 인민재판에서 숙청을 받지 않게 된 사실을 김범우에게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를 통해 문 서방이 선량한 성품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6 김범우가 문 서방의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인간은 복합적 사고를 갖는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염상진의 말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나 인간의 복합적 사고로 확장된 것은 김범우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김범우가 염상진의 생각에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던 아가의 그 착하고 선량하던 모습’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문 서방은 인민재판이 끝난 후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좋은 구경거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선량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김범우는 전혀 다른 문 서방의 두 모습이 모두 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외부의 영향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범우의 생각처럼 문 서방을 바라볼 수 있다.
 ⑤ 김범우는 인간은 복합적 사고를 지닌 존재이며, 문 서방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은 그런 인간의 속성이 표출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 가지 모습 모두 문 서방의 참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 7 염상진은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아는 것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만함으로써 소작인들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함정’은 지주들이 소작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만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의 ‘함정’은 염상진이 인민재판을 통해 지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 서방과 같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할 염상진이, 오히려 인민재판으로 인해 그 지지를 잃고 있는 것을 뜻한다.
 - 8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무자비한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문 서방은 지주들이 죽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그러나 무차별적 살상이 계속됨에 따라 이제는 그 잔인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당시 민중들은 처음에는 인민재판에 대해 통쾌함을 느꼈으나, 차츰 그 잔인한 살상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 9 <보기>에서 김범우는 어떤 사상을 따르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민족 전체를 위한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족의 단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김범우는 인민재판이 특정 사상에 따라 민족을 처단하며 민족의 단합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064 완장 _ 윤홍길

248~251쪽

키포인트 체크 권위, 선망, 권력, 저수지, 완장

1 ③ 2 ③ 3 ③ 4 ⑥ 에이 여보소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개 / ⑥ 완장에 대한 선망 5 ② 6 ④ 7 ② 8 ⑤ 9 아들인 종술이 완장에 집착하는 것

- 1 서술자는 종술이 과거에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일, 아내와 만난 계기, 아내가 딸 하나를 낳고는 다른 남자와 도망간 일 등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완장’이라는 말을 들은 종술의 심리를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서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를 긴박한 상황에 대한 묘사로 볼 수는 없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의 가치관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지식 +

• 요약적 제시

소설의 서술 방식 중, 서술자가 사건의 정황이나 인물에 관한 내력 등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요약적 제시'라고 한다. 또한 서술자가 인물의 가치관, 심리, 과거 행적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서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므로 이를 '직접 제시'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독자의 입장에서 인물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A]에서 “과거는 어쨌든 망정 시방은 사세에 따를 줄도 알아야”라고 했고, [B]에서 “기왕 낚시질하는 집에 비단잉어에다 월급봉투를 암나혀서 한쪽에 같이 낚여 올리겠네.”라고 했으므로, 이는 각각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인물의 현재 처지와, 낚시도 하고 월급도 받는 일거양득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오답 틀어보기 ② [A]에서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언급하고 있으나, [B]의 경우 상대방과의 인연을 강조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A]와 [B] 모두 상대방이 저수지 감시직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상대방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처지나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언급하며 설득하는 발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3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에서는 완장을 찬 권력을 지닌 인물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종술의 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술이 완장을 얻기 위해 돈을 번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② ‘도로 교통법 위반’ 등을 내세워 ‘걸려오던 시비’이므로 이는 공권력을 내세운 사례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한을 품’은 것은 자신이 완장을 찬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와 고통에 기인한 것이고, ‘선망’하는 것은 자신도 완장을 찬 사람들처럼 권력을 얻고 싶다는 소망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4 종술은 최 사장, 익삼 등이 저수지 감시직을 제안하자 처음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완장을 찰 수 있다는 말에 완장의 권력에 대한 선망이 샘솟아 자신도 모르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 5 ‘근신’이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함.’이라는 의미로 이는 아들 둘을 낳으면서 자신에게 온 행복을 자랑하기보다 항상 불행을 대비하는 운암택의 태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박가를 농친 남편이 불구의 몸에도 자작농으로 살림을 꾸려 나간 것은 박가에 대한 복수를 잠시 유예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이를 근신하는 태도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종술은 완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며 자신을 설득하는 부월에게 ‘요 완장 뒤에는 법이 있어 공유수면관리법이다.’라며 여전히 완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조선 사람한테 심하게 굴고, 일본 헌병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손발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③ ‘자신의 행복만 처지를 사색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을 것만 같아’를 통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④ 부월은 종술에게 “세 식구 목숨하고도 안 바꿀 만짐 소중한 것이 그 완장이어?”라고 말하며 완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자며 설득하고 있고, 종술의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며 ‘마치 저보다 젊고 잘생긴 시앗이라도 제거해 버린 듯이 온통 가슴이 후련

했다.’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적절한 진술이다.

- 6 ‘진짜배기 완장도 찰 수가 있’다는 말은,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권력 자체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배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근거는 드러나 있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벨 볼 일 없는 하빠리’는 <보기>의 권력의 하수인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종술은 완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월은 완장 뒤에 도사린 진짜 권력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완장에 대한 두 인물의 인식은 서로 다르다.

- 7 부월은 종술에게 ‘벨 볼 일 없는 하빠리들’, ‘뿌시레기나 좇어 먹는 핫질 중에 핫질’ 등과 같이 쏘아붙이는 어투로 ‘완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술을 몰아붙이고 있다(ㄱ). 또 “부월이는 완장을 몰라.”라는 종술의 말에 반박하면서, 종술과 자신이 힘을 합쳐 진짜배기 완장을 차보자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ㄴ).

- 8 ㉠은 한때나마 종술의 넋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완장을 저수지에 집어던진 뒤 부월이 느끼는 시원함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후련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얕던 이 빠진 것 같다’가 적절하다.

- 9 ㉡의 ‘그때의 기억’이란 남편이 완장(권력)을 이용해 박가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죽게 된 일을 의미하는데, 현재 운암택에게 그 기억을 되살리게 만든 사건이란 죽은 남편처럼 아들 종술이 완장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65 생명 _ 백남룡 252-255쪽

키포인트 체크 정리, 원칙, 입시, 청탁, 면접

1 ③ 2 ⑤ 3 ① 4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 5 입학생 문제에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6 ③ 7 ③ 8 ④ 9 ② 10 • 소재의 측면 - 원칙과 인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 / • 형식의 측면 - 북한의 특징적인 어휘와 북한 표기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1 이 글은 인물의 내적 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내면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보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2 지도원은 친인척이라는 관계에서, 석훈은 인간적인 정에 끌리어 서로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을 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① “그 학생이 정철욱입니다.”라고 말하는 지도원의 말에서 지도원과 석훈이 모두 정철욱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석훈은 학생의 체모와 위신과 원칙을 떠나서 아래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구차한 자기를 거울 보는 듯싶어 온몸이 달아올랐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석훈은 평소 원칙을 지키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③ 석훈은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④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훈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3 ①의 뒷부분에 '의사에 대한 인정과 개인적 의리에 끌려 원칙을 벗어난 복잡하고 깨닫지 못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며 벌써 그 관성력으로 걸어 나가는 새로운 자기를 본 것이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자신이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음은 인식한 석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이미 자신의 평소 소신을 꺾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앞서 냉혹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원래 예외를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이 드러나고 있다.

⑤ 지도원이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가 냉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석훈은 복부외과 과장의 아들을 부정 입학시키는 원칙에 어긋난 일을 하기 위해,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핑계로 들고 있다.

5 입학생 문제에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석훈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원칙이자 양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6 이 글은 원칙을 어기고 점수가 미달되는 학생을 합격시켜야 하는 석훈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③이 적절한 반응이다.

오답 틀어보기 ② 이 글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내면적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원칙을 어겨 내면적 갈등을 겪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석훈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이 글에서 석훈은 학생들의 합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경남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므로 석훈을 세월이 흐르면 거목이 될 어린 느티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인물 심사에서 자기 실력과는 무관하게 공격적인 면점을 당하는 오경남의 모습은 연약한 어린 느티나무에 비유될 수 있다.

② 석훈의 질문에 여물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오경남의 모습에서 석훈은 오경남의 가능성을 확인했을 것이다.

④ 연약한 어린 느티나무인 오경남을 힘들게 하는 시련은 실력 이외의 요소로 합격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세상의 흐트러진 원칙으로 볼 수 있다.

⑤ 석훈은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인 오경남이 받침대가 있다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그러한 받침대를 세워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에서 석훈은 오경남의 지적 능력이 부족함을 확인하려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 반면 ㉡에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순수하게 오경남의 능력을 묻는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는 오경남의 지적인 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걸맞기

식 질문인 표층적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는 오경남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책에 가까운 질문이므로 신뢰에 기반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학생의 지적인 능력을 묻는 것이므로 불신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는 질문이 되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우며 ㉡는 지적인 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는 오경남의 부족함을 확인하려는 질문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9 이 글은 은혜의 보답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지식+

•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소설에서 의지적인 두 성격의 대립 현상을 '갈등'이라고 한다. 갈등은 크게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물과 인물, 인물과 환경 사이의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 하고, 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

10 소재의 측면에서 볼 때, 원칙과 인간적인 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 소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특징적인 어휘(문화어) 등 북한 말과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는 북한식 표기를 보여 준다는 형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066 해산 바가지 _ 박완서

256~259쪽

키포인트 체크 생명, 남아 선호, 치매, 해산 바가지

1 ② **2** ④ **3** ④ **4** 이 글의 시어머니는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생명을 존중하지만, (보기)의 시어머니는 남아 선호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 **5** ① **6** ② **7** ⑤ **8** '나'와 남편은 시어머니(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9**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

1 이 글은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2 (나)에서 시어머니가 아이들 이름을 헛갈려 부르자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 '나'와 남편이 대책을 상의한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의 앞부분에서 '나'는 시집살이랄 것도 없이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한때 언문을 깨쳤지만 써먹을 데가 없어 다 잊어버릴 정도로 지적인 호기심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시어머니가 '나'의 집에 놀러 온 조카를 못 알아보자 조카가 당황했다는 내용이 (나)에 서술되어 있다.

⑤ (나)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 은근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 '나'는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시어머니에게 대꾸하다가 점점 짜증을 내고 있을 뿐, 시어머니의 물음에 더 자세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해산 바가지>의 시어머니는 '나'가 낳은 아이를 성별에 관계없이 지극

정성으로 돌보면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보기>의 시어머니는 '나'가 가진 여아를 유산시키고 다음 임신을 걱정하는 등 남아 선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인다.

- 5 이 글에서 '나'는 시어머니를 모실 요양원을 보러 갔다가 초가지붕 위의 박을 보고 해산 바가지를 준비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나'는 과거 회상을 통해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의식을 깨달으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손수 모시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오답 틀어보기 ③ '나'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빈번한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의 시각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남아 선호 사상에 빠져 있는 현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6 '나'는 어떤 생명이든 소중히 여겼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병든 시어머니를 요양 시설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선 인류애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 7 ①은 손자, 손녀를 차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키웠던 시어머니의 생애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
- 8 알맞은 가을 날씨라서 맘을 흔들 상황도 아닌데도 '나'와 남편이 진땀을 흘리는 것은 이들의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다. 즉, '나'와 남편이 시어머니(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9 '빈 그릇'은 정신과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이 글에서 '망가진 정신, 노후한 육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067 **걱정 시대** _ 김학철 260-263쪽

키포인트 체크 민족주의, 공산주의, 조선 의용군, 항일 투쟁

1③ 2⑤ 3③ 4③ 5 파업과 같이 민중을 발동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투쟁 방법 6① 7④ 8② 9 이 작품의 작가는 한국인이며, 항일 운동이라는 삶의 궤적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지니는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집필하였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 1 (가)에서 민족주의자인 서선장과 공산주의자인 성재수가 대화를 통해 항일 투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2 서선장은 개인 테러 중심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항일 투쟁을 하는 인물이다. (가)의 '선장이는 여자 자기의 해 온 일이 옳다고 확신하는 까닭에 성재수의 말이 귓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반감까지 생겼다.'와 '개인 테러는 극소수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용감한 애국자들만이 해낼 수 있는 신성한 사명'이라고 선장이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를 통해 서선장은 민족주의자들의 투쟁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서선장은 성재수가 권해 준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을 읽고 '알구 보니 세상은 이런 거였구나!'라고 반응한다. 따라서 공산주의 철학 서적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② 서선장은 개인 테러 중심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항일 투쟁을 하며 '개인 테러는 극소수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용감한 애국자들만이 해낼 수 있는 신성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부정하신단 말씀이 아닙니까?"를 통해 서선장은 윤봉길 의사가 가장 용감한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개인 테러는 극소수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용감한 애국자들만이 해낼 수 있는 신성한 사명'이라고 선장이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를 통해 개인 테러는 가장 고상한 투쟁 방식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④ 민중을 발동하여 투쟁하는 방식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방식이다. 서선장이 성재수의 말에 '선장이는 입에다 무슨 잘 깨물어지지 않는 텅어리를 문 것처럼 입술만 우물거리고 말을 아니 하였다.'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 민중을 발동하여 투쟁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3 민족주의자들의 투쟁 방식을 고수했던 서선장은 성재수에게 받은 공산주의 철학 서적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를 통해 서선장은 앞으로 공산주의 투쟁 방식을 택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서선장은 성재수의 의도대로 과업을 통한 투쟁 방식에 동조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윤봉길 의사의 업적을 따라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민족주의자의 입장으로, 앞으로 전개될 서선장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온 시내를 마비 상태에 빠뜨리는 개인 테러는 민족주의자의 입장으로, 앞으로 전개될 서선장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이춘근은 민족주의자이므로 이춘근과 함께 민중을 발동하는 투쟁 방식에 동조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서선장은 공산주의 투쟁 방식을 택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공산주의 철학을 부정하고 민족주의와 관련한 철학에 매진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4 서선장과 성재수는 상해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의미로 벌인 공산당 주도의 전차와 버스 파업을 보고,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투쟁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항일 투쟁 방식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성재수는 개인 테러로 일본의 기반을 흔들 수 없다고 하면서 민중을 발동하여 일본의 기반을 흔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산주의자의 항일 투쟁 방식은 파업과 같이 민중을 발동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 6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세계까지도 분석하고 설명하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 장면은 서선장과 장준광이 지신뎡이 행사에 폭탄을 던지는 상황으로, 서선장의 긴장감과 폭탄 투척 실패 후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서선장의 입장에서 심리와 사건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② '왜나막신 끄는 소리에 귀가 가까울 지경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인제 1분 후이면 별집이 터진 것 같은 대소동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

니 선장은 심장이 곧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다. 꺾이지른 듯한 바위너설을 단숨에 타려는 때와 같은 긴장감이 온몸을 죄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전차길 건너에 일본 신사의 산문 - 도리이(鳥居)가 약자로 쓴 한문 글자의 열 개 자(卍)처럼 두 다리를 벌리고 멋없이 경충 서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육전대의 무장한 사이드카들이 긴급 동원하여 발동을 거는 소리가 요란스레 나면서 곧 꼬리를 물고 내달아 오는데 헤드라이트의 광망들이 번득번득하는 것이 어마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7 신사에서 구경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서선장이 던진 손전등이 폭발이라 생각하고 도망치려는 일본인들의 모습이므로,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힘든 생활을 드러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8 (다)에서 “진여루 골장 나갈까?” / “아니, 갑북으루! 큰길은 재미 적어.” 장준광과 서선장이 두꺼운 공기의 막을 헤가르며 짧게 한마디씩 말을 주고받았다.’를 통해 장준광은 서선장의 조언에 따라 큰길을 버리고 갑북으로 사이드카를 몰았음을 알 수 있다.

9 <보기>에서는 한국 문학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작가가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우리말로 형상화한 문학’으로 정의하였다. 이 글의 작가는 조선 의용군이었던 김학철로, 비록 중국 땅에서 작품을 출판했으나, 항일 운동이라는 그 삶의 궤적을 통해 그가 한국인으로서 지니는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중국 상해를 근거지로 했던 조선군 항일 운동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학철은 이 작품을 한국어로 집필하였다. 이로 볼 때 <격정 시대>는 우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한 작가가 외국에서 체험한 민족적 경험을 한국어로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지식 +

• 조선 의용대

1938년 중국의 한커우(漢口)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이다. 1938년 김원봉에 의해 창설되어 항일 운동에 큰 공적을 쌓았으며 1942년 봄 일부 대원이 한국 광복군의 제1지대로 개편, 흡수되었으며, 조선 의용대의 주력은 1942년 7월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 지도하는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 조선 의용대는 전투, 일본 군정의 탐지 또는 점령 지역 내의 정보 수집, 일본인 포로 취조 및 사상 공작, 일본 군대에 대한 선정 공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용대의 조직은 국제 정규전에 독자적 부대 단위로 직접 참전 및 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 의용대의 합류를 계기로 광복군의 조직과 전투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068 흐르는 북 - 최일남

264~267쪽

키포인트 체크 이해, 갈등, 중산층, 공연, 데모

- 1 ② 2 ④ 3 ⑤ 4 ② 5 북소리가 이어짐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을 이루어 냈다는 의미입니다. 6 ③ 7 ⑤ 8 ⑤ 9 ② 10 민노인(전통 세대)과 민대찬(기성세대), 민대찬과 성규(신세대)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이 드러나 있다. 11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주인공인 민노인의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써 그가 지니고 있는 예술관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지식 +

• <흐르는 북>의 시점상 특징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는 할아버지를 ‘민노인’이라고 지칭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노인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민노인의 심리와 감정을 세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민노인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서술자가 아들 민대찬이나 며느리의 입장보다는 민노인의 입장과 처지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가)에서 성규의 친구들은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공연을 하는 민노인을 모시고 온 성규에게 ‘옥보았다’, 즉 수고했다는 말로 칭찬을 하고 있다.

3 이 글에서 ‘북’은 각기 다른 가치관을 지닌 세대이지만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자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지 전통적인 가치를 그대로 보존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에서 단역임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민노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또한 ㉡에서 민노인은 젊은이들의 촉판에 꺼져 북을 연주하는 것에 적막감을 느끼고 있다. ㉠과 ㉡을 통해 민노인은 자신의 예술이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격식을 갖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세대 갈등 속에서도 ‘민노인’의 북소리가 이어짐을 드러냄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6 수경은 할아버지가 북을 칠 때 공상했다는 타박을 했지만, 성규가 잡혀간 후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소리가 잡음으로만 들린다는 표현에서 아직은 할아버지의 북소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식 +

•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 제시 방법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보여주기(showing)’와 ‘말하기(telling)’가 있다. 보여 주기는 주로 현대 소설에서 사용되는 간접적인 제시 방법으로 대화나 행동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말하기는 서술자가 직접 등장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보여 주기의 방법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성규와 아버지의 말다툼에서 성규는 아버지에게 맞서 자신의 의견을 펼쳐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을 통해 독자는 성규를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7 ㉢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그걸 표현할 기회를 얻어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즉 민노인을 의미한다.

8 <보기>에서 가족사 소설은 가족의 삶의 변화를 통해 현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가족사 소설로, 작가가 이런 형식의 소설 양식을 선택한 것은 가정 내의 세대 간 갈등(전통세대와 기성세대, 기성세대와 신세대)을 통해 현실의 문제(1980년대의 사회 현실)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 주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① 작가가 가족사 소설을 택한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가족사 소설의 형식을 택한 것은 아니며 <보기>의 설명과도 연관이 없다.

② 이 글은 작가가 허구적으로 창조해 낸 이야기로 작가 자신의 가족사

를 다룬 것이 아니다.

③ 이 글에는 집안의 몰락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전통문화는 민 노인이 복을 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규로 이어지면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보기>의 설명과도 관련이 없다.

9 할아버지는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복을 치지 않았던 것이다. ㉠에서 성규는 할아버지가 복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을 다시 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10 평생 복을 치며 살았던 민 노인과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 민대찬이 갈등하고 있으며,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지닌 민대찬과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생각을 지닌 아들 성규가 갈등하고 있다.

11 민 노인의 분신인 '복'은 갈등 관계에 있는 아버지 민대찬에 의하여 표면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들인 성규에 의해 다시금 되살아난다. 따라서 제목 '흐르는 복'은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도 복소리가 흘러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69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_ 양귀자 268-271쪽

키포인트 체크 반성, 연민, 원미동, 술상

- 1 ④ 2 ② 3 ⑤ 4 ③ 5 임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면 비참한 마음이 들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6 ④ 7 ⑤ 8 ⑤ 9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그'라는 인물의 시각에 편향하여 '그'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2 '그'는 처음에는 임 씨가 견적대로 돈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으나 최선을 다해 꼼꼼히 일하는 임 씨의 모습에 그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오답 틀어보기 ① 아내는 임 씨의 옥상 일이 8시가 넘어서도 끝나지 않아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③ 임 씨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견적대로 돈을 다 받기 민망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한 것은 '그'와 아내이다.

④ 노모는 임 씨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그'와 아내는 견적대로 돈을 다 주기가 아까워서 일부러 추가로 힘든 일을 더 시킨 것이다.

3 ㉠은 열심히 살아감에도 궁핍한 생활을 하는 임 씨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⑤에는 아침부터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일을 하며 고생하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으므로 ㉠과 유사한 정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 [A]는 임 씨를 믿지 못한 '그'와 아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그들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작가는 이들 부부의 모습을 비꼬는 어조로 표현함으로써 남을 믿지 않고 이해타산적으로 사는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

5 임 씨가 자신은 서른여섯 토끼띠라고 밝히자 '그'는 임 씨보다 한 살이 적은데도 자신도 토끼띠라고 말한다. 이는 고용인과 고용자라는 상하 관계를 역전시키지 않고, 임 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6 임 씨의 빈곤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는 '지하실 방'이며 스웨터 공장 사장의 부유한 삶을 상징하는 소재는 '맨션아파트', '달걀 프라이', '양주' 등이다.

7 ㉠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간극이 쉽게 좁혀질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8 ㉡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순된 현실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지식+

•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축소판 '원미동'

1960~1970년대 개발 독재의 시기에 저급 정책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났고, 도시는 점점 커졌다. 당시 부천시 원미동은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동네로 경기도에서 온 잡역부 임 씨, 서울에서 온 은혜네 가족, 전라도에서 온 행복 슈퍼의 김 반장 등 각박한 서울의 삶에서 실패했거나 농지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작가는 부조리와 모순이 가득 찬 1980년대 한국 사회를 원미동 사람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원미동은 단순한 동네를 넘어서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공간인 것이다.

9 임 씨가 날이 어두워지도록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스웨터 공장 사장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망친 것을 비판하는 모습에서 그가 성실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0 마지막 땅 _ 양귀자 272-275쪽

키포인트 체크 강노인, 원미동, 소시민, 가치, 수단

- 1 ① 2 ① 3 ④ 4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으며, 금액을 조금 더 조정해 볼 수 있다. 5 강노인은 땅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6 ④ 7 ④ 8 ④ 9 ②

1 땅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는 강노인은 땅값에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 한다.

2 강노인은 박 씨 내외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박 씨 내외를 포함하여 마을 사람들을 '서울 끄나풀'이라 낮잡아 부르고 있다. 이를 통해 강노인은 원미동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울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지명 '서울'과 사물을 가리킬 때 주로 쓰이는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한 것이지만, 문맥상 '서울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 박 씨는 강노인에게 지금이 땅을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넘길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땅을 사려고 하는 유 사장이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할 마음이 있음을 말해 주며 강노인을 회유하고 있다.

- 5 강 노인은 땅을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보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땅을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6 김 씨가 강 노인이 땅을 판다는 소문을 복덕방 밖 씨에게 들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보기 ① 마을 사람들이 밭에 연탄재를 뿌려 놓았는데도, 강 노인의 아내는 천하태평인 것으로 보아 강 노인의 아내는 농사일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강 노인의 아내와 경국이 엄마는 모두 땅을 팔기를 원하고 있다.
 ③ 반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강 노인은 김 씨를 통해 자신이 땅을 팔기로 했다는 소문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
 ⑤ (나)에서 강 노인의 아내는 전날 박 씨로부터 전해 들은 충고를 강 노인에게 전하고 있다.
- 7 (다)에서 강 노인은 결국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땅을 팔기로 마음먹는다. 강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회유에도 땅을 지키려 했던 인물로, 땅을 판다는 소문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진 것은 아니다.
- 8 강 노인의 아내는 며느리가 반사회에서 했던 말을 강 노인에게 대신 전하며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9 (나)는 강 노인이 땅을 내놓았다는 소문을 듣고 어이없어 하는 장면이고, (다)는 강 노인이 부동산으로 가다가 다시 밭으로 밭길을 돌리는 장면이다. 따라서 사건 전개상 (나)와 (다) 사이에는 강 노인이 땅을 팔기로 마음먹는 장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071

허생의 처 _ 이남희

276~279쪽

키포인트 체크 가부장적, 주체적, 패러디, 연, 비판

1② 2④ 3④ 4② 5 가정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채 대의명분만 좇는 모습 6⑤ 7④ 8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도록 해 주는 것이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바라고 있다. 9 ㉠: 가족의 생계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무책임한 모습 / ㉡: 남성 중심적 사고

- 1 이 글은 '나'가 생각하는 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풀이보기 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선비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③ '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남편과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장면이 아니며 환상적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다.
 ④ <허생전>과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사건은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 2 허생은 혼인 초부터 독서에만 전념하여 집안 살림을 살피지 않았으므로, 허생이 ㉡부터 집안의 경제적 문제를 살피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나'도 남편에게 불평하지 못하고 남편의 행동을 묵묵히 이해하고 참아야 했다.

- 4 1980년대에 양성평등의 문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실 인식이 작품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으므로 ②와 같은 독자의 반응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보기 ① 작품의 배경인 조선 후기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고가 만연한 사회였으므로 양성 불평등의 현실을 보여 준다.
 ⑤ 조선 시대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이 만연한 사회였으므로 당시의 사회상은 양성 불평등이라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5 (다)에서 '나'는 허생에게 대의명분을 좇기보다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모습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허생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 6 이 글에서 허생이 집을 나간다고 하자 '나'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과 절연하자고 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나'는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자 그동안 남편에게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던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은 남편이 가출한 5년 동안 수동적으로 기다리던 '나'의 모습을 가리키므로 현재의 적극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 8 (나)의 '그런 사람이 살고 ~ 꼭 할 거예요.....'를 통해 '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소박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9 (가)에서 허생은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별 큰덕에 몸을 위탁해 있으시오."라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갈 결정을 했다. 이러한 결정은 순종을 강요하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기다리는 게 부녀의 아름다운 덕이요."라는 허생의 말에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내 두 팔이 바빠 움직이고 두 눈이 호롱불 빛에 짓물렀기 때문이예요."라고 함으로써 현실은 무시한 채 이상만 추구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072

빼떼기 _ 권정생

280~283쪽

키포인트 체크 빼떼기, 잔혹성(잔인함), 아궁이, 전쟁

1④ 2② 3④ 4 빼떼기가 아궁이에 들어가 화상을 입음. 5 달이 다 타 버렸다. 종아리가 퍼지지 않는다. 부리가 문드러졌다. 등 6② 7④ 8⑤ 9 고난을 이겨 낸 빼떼기의 일생을 통해 아픔을 극복하는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1 이 글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전쟁의 잔인함을 드러낸 현실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따라서 배경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동화라는 갈래의 특징에 맞게 짧은 문장을 통해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② '술방울처럼 굴러다니듯 뛰어다녔다.', '한 손으로 아기를 보듯듯이 안고 다녔다.' 등 직유법을 활용하여 빼떼기와 어머니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순진이네 가족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빼빼기나 암탉의 울음소리나 '오글오글'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현장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2 (나)의 '한 주일이 지나자 병아리의 불에 덴 상처가 아물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감둥이가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빼빼기가 실수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③ 빼빼기를 아궁이에서 꺼내서 치료한 것은 어머니였다.

④ 빼빼기는 감둥이의 새끼 병아리였고, 떡주배기 새끼는 한 마리도 없었다.

⑤ (나)에서 어머니가 "다 타서 오그라들었는데도 속은 관찮은 모양이 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소화 기관은 관찮아서 먹이와 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삼순구식'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 순진이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간난신고: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을 이루는 말

② 천만다행: 아주 다행함을 이르는 말

③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이르는 말

⑤ 설상가상: 난처한 일이나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4 @는 아궁이가 따뜻한 걸 안 병아리들이 아궁이 쪽으로 모이다가 한 마리(빼빼기)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5 아궁이에 들어간 빼빼기는 털이 다 타 버렸고 주둥이가 뭉통그러졌으며 발가락이 한 마디씩 떨어져 나갔고 종아리가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아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6 순진이네 가족은 화상으로 부리가 구부러져 모이를 주워 먹지도 못하는데도 어떻게든 쪼아 먹으면서 성장한 빼빼기의 모습을 가없으면서도 장하다고 느끼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화상으로 보기가 흉한 것은 가없는 이유이지만, 빼빼기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③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은 가없는 이유이지만, 빼빼기는 형제와 끝내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이 노는 것을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한다.

④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것은 가없는 이유이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⑤ 빼빼기는 식구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며, 만약 빼빼기가 식구들의 사랑마저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7 빼빼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난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 태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이 글에서 이웃과 신뢰가 깨져 일어나는 갈등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9 <보기>는 힘든 역경을 이겨 낸 우리 민족에게는 서양과는 다른 동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에서 작가는 고난을 이겨 낸 빼빼기의 일생을 통해 고난을 극복해 낸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 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V. 1990년대 이후

081 유자소전_이문구

296~299쪽

키포인트 체크 긍정적, 총수, 물질 만능주의, 스페어 운전수

1 ④ 2 ② 3 ③ 4 '그'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총수에게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5 ⑤ 6 ① 7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간접적 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8 작품에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1 (가), (나)에서 '그'와 총수가 갈등을 빚는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은 '그'가 모시고 있는 총수의 집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그'에 대해 관찰한 내용이 드러난다.

② 비단언어에 대한 총수와 '그'의 인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③ 가진 자로 대표되는 총수의 사치스러움과 비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⑤ (다)로 보아 (가), (나)는 '그'가 자신이 겪은 일을 '나'에게 들려준 것임을 알 수 있다.

2 (다)는 '그'가 (가)와 (나)의 사건에 대해 자신의 친구인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다. '그'는 '내가 독종이면 저는 말종입니다'라고 말하며 앞의 사건 속의 핵심 인물인 '총수'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나'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경험한 앞의 사건의 의미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보기>는 이 글의 작가인 이문구에 대한 설명으로, 그가 특히 산업화로 인한 배금주의와 이에 물든 사람들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 작가는 계층 간의 갈등을 보여 주기보다는 가진 자들, 즉 사회의 지도층이 보여 주는 부정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그'를 통해 실용적이지도 못한 비싼 물고기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행위를 비꼬고 있다.

② '배금주의'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총수의 태도에서 배금주의 풍조를 엿볼 수 있다.

④ '그'는 총수와 대비되는 인물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작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그'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총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

4 물고기가 죽은 일에 대한 '그'와 총수의 대화에서 솔직하고 재치 있게 강자의 태도를 비꼬는 '그'와, 허영심이 있고 위선적인 총수의 태도가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서술자인 '나'가 '그'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총수에게는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5 (가)에서 유자는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레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6 '그'는 스페어 운전수 가족 등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며 자신을 희생하고 있으므로, '그'를 착한 성품의 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 7 이 글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스페어 운전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나, 그들에게 반찬까지 챙겨 주는 행동을 통해 '그'의 선한 성격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간접적 제시 방법에 해당한다.
- 8 이 글에서는 사투리, 비속어 등을 사용하고 총수의 허영심과 비인간적인 면모를 우스꽝스럽게 제시하면서 작품에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더하고 있다.

082 나의 아름다운 이웃 _ 박완서 300~303쪽

키포인트 체크 부담, 아파트, 관심, 무욕

1④ 2② 3② 4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아가'와 '새댁'으로 불렸기 때문이며,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5⑤ 6③ 7② 8 무욕적인 삶의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9 겸손하고 소박한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인공인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나'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대화는 아파트 이웃의 배려 없음과 삭막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은 '나'의 시각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중립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는 회상 장면이 삽입되어 있지 않다.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 2 '내가 '만년 아가', '만년 새댁'인 게 얼마나 회귀한 축복이었던가를 안 건 지금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서였다.'를 통해 '나'는 한옥에서 생활할 때는 '아가'라는 호칭에 만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의 '구닥다리 한옥의 구식 부엌과 마당에 있는 수돗가 빨래터는 넉더리가 났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의 '동경하던 아파트였지만 막상 이사를 하려고 살펴보니 쉬 떨어질까 싶지가 않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다)의 '새댁에서 별안간 '할머니'로 격상된 충격은 매우 고약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나)의 '나는 한옥의 불편함과 함께 이웃 간의 그런 비밀 없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멸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 3 [A]는 '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젊은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아파트 이웃 간에 관심과 배려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 사건이다. 따라서 [A]는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아파트 이웃 간의 삭막함을 부각하고 이후 이웃의 관념을 지닌 옆집 여자와의 만남을 유독 반가워하는 '나'의 이유를 보여 주기 때문에 서사 구조에 필연성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 4 '나'는 외손주까지 있기 때문에 할머니라 불려도 이상할 것은 없다. 하지만 전에 살던 동네에서 '아가' 또는 '새댁'으로 불렸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할머니' 호칭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

분이 좋을 것 같은 호칭을 생각해서 불러주던 전에 살던 동네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호칭을 부르는 이웃의 삭막함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 5 '나'는 옆집 여자의 무욕적인 삶을 보며, 평소 오래 살고 싶은 과욕을 부린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이는 소박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모든 이웃과 잘 지내겠다는 자신의 생각이 과욕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
- 6 (가)의 '이사 오는 날이었다. 옆집에 산다는 여자가 인사를 왔다. 나는 반갑고 한편 놀라웠다.'를 통해 이사 온 날 옆집 여자가 인사를 왔을 때 '나'는 반가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나)의 '그 여자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몸과 마음씨가 함께 고와 보이는 이가 암이라니!'를 통해 옆집 여자의 수술 소식에 안타까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할 때보다 많이 수척해 있었지만 건강할 때보다 한층 착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건강할 때의 그 여자의 밝음은 눈부신 거였지만, 병상의 밝음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였다.'를 통해 문병을 가서 옆집 여자를 만났을 때 존경심을 느꼈음을 드러내고 있다.
- 7 (가)의 '절대적인 단절을 보장해 주리라고 알았던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인기척을 전해 주는 게 반가웠던 것이다.'를 통해 아파트에 절대적인 단절과 고립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옆집 여자와 인사를 나누고, 투병 소식에 병문안을 가는 모습에서 이웃 간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8 투병 중인 옆집 여자는 병문안을 온 '나'에게 "요새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네요."라고 말함으로써 무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그러자 '나'는 암처럼 고약한 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저런 해맑은 무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옆집 여자가 투병 중에도 착하고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무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9 작가는 투병 중에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던 옆집 여자를 통해 아파트 이웃 간에 겸손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083 갈매나무를 찾아서 _ 김소진 304~307쪽

키포인트 체크 시련, 아름다운 지옥, 갈매나무

1① 2③ 3② 4① 5⑤ 6② 7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한다.

- 1 이 글은 갈매나무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이혼한 아내 윤정과의 아픔을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두현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2 (가)의 '그 갈매나무만 아니었다면 두현이 불현듯 출판사에 지독한 몸살이라는 전화를 넣고 이렇듯 아름다운 지옥을 향해 실성한 사내처럼 마음만 급해 허둥지둥 비바람 부는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던 않았을 것이다.'를 통해, 두현은 갈매나무를 보기 위해 아름다운 지옥에 가려고 거짓 핑계를 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환한 웃음이 깃들인 적이 있었던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의 '어릴 적 겁도 없이 갈매나무에 오르려다 가시에 찢려 떨어졌던 기억이 났던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나)의 '꾸짖긴 놀로? 어렵도 없지러, 니가 아프면 넬로(나를) 찾아와 야지 그림 놀로(누구를) 찾아…… 옹나 잘 왔네라, 예구 불쌍한 내 새끼야, 니 땀 할미가 알제 하모하모……'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나)의 '두현은 두렵고 송구스런 마음 때문에 ~ 호되게 꾸짖어 주세요, 부디!'를 통해 알 수 있다.

3 두현은 윤정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갈매나무를 찾아 가지만 윤정을 다시 만나기 위한 매개체로 갈매나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두현은 윤정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갈매나무를 발견하고 갈매나무를 다시 보기 위해 사진의 배경이 되었던 '아름다운 지옥'을 찾아간다.

③ '갈매나무는 두현의 기억이 미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내면에 자리 잡아 온 움직일 수 없는 한 풍경이었다.'를 통해 할머니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던 갈매나무가 두현에게도 의미가 있는 나무임을 알 수 있다.

④ 두현은 세상에 깨끗하게 맞서는 갈매나무를 보며 완강한 현실의 벽에 부딪친 좌절감을 이겨 내고자 한다.

⑤ 유년 시절 두현의 기억 속 갈매나무가 열매와 함께 독한 가시를 지녔던 것처럼 갈매나무는 두현이 윤정과 나눈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고통을 동시에 환기시키는 역설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4 할머니는 갈매나무가 열매와 함께 독한 가시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두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많은 시련을 걱정하고 있다. 할머니는 두현에게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더 독한 가시를 품어 이러한 시련을 이겨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5 두현은 갈매나무를 보다 울음기가 숨을 턱 가로막고 왈칵 밀려왔다고 했다. 그래서 주모가 내민 수건으로 입가보다는 눈가를 먼저 훔쳤던 것이다. 따라서 두현은 갈매나무에 대한 반가움으로 술을 급하게 마시다가 기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매나무를 보며 아픈 상처가 생각나서 기침을 했음을 알 수 있다.

6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화자가 아내와 집도 없이 타향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는 것처럼, 두현 역시 이혼의 상처를 지닌 채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두현은 <보기>의 화자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 동일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기>의 시를 떠올리게 된 것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군고 정한 갈매나무'를 보며 두현은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된다. 이를 보며 이혼한 윤정의 모습을 떠올린 것은 아니다.

③ 두현은 <보기>의 화자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신의 처지가 더 낫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④ 두현이 백석의 시를 떠올리며 이혼의 상처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낀 것은 아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갈매나무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두현이 이혼의 아픔을 이겨 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백석의 시를 떠올린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보기>의 갈매나무와 두현이 떠올린 갈매나무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갈매나무의 의미가 달라 <보기>의 시를 떠올린 것은 아니다.

7 이 작품의 '갈매나무'와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갈매나무'는 모두 굳센 이미지를 지닌 소재이다. 두현은 깊은 계곡 어디에선가 뿌리를 박고 홀로 눈보라와 찬 비, 거친 바람을 맞으며 추운 계절을 꿋꿋이 견딜 수 갈매나무를 꿈꾼다고 하였으므로, 갈매나무는 시의 화자와 소설 속 인물 모두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84 그 여자네 집_ 박완서 308-311쪽

키포인트 체크 관심, 사랑, 일제강점기, 오해

1 ⑤ 2 ④ 3 ① 4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5 곱단이가 만득이와 등·하교를 함께하면서 둘이 가까워지는 계기로 작용한다. 6 ⑤ 7 ④ 8 ④ 9 ④ 10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비극적인 삶

1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체험과 추측을 바탕으로 주인공인 만득이와 곱단이의 이름답고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작품 속의 '나'가 서술자이다.

② 곱단이와 만득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서술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나'가 관찰한 곱단이와 만득이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제시된 글에는 과거의 사건만 서술되고 있다.

2 동네 사람들은 만득이가 곱단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곱단이네 집의 일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을 놀리는 속담인 '제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3 '곱단이와 만득이는 우리 마을의 화초요 꿈이었다.'는 '곱단이'와 '만득이'를 '화초'와 '꿈'에 비유하여 나타낸 은유적 표현이다. ①에서 '나=나룻배', '당신=행인'의 관계 역시 은유적 표현이다.

☞오답 틀어보기 ② '달아날라고 했다.'에서 바다를 의인화하고 있다.

③ '어디 있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④ 여순을 고려할 때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시다'가 뒤의 시구 다음에 나와야 하므로 도치법이 사용된 것이다.

⑤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4 이 글은 곱단이의 속눈썹을 '함박눈이 내려앉아서 설 만큼 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시에서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가 ㉠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다)의 '만득이와 곱단이가 등·하교길을 자연스럽게 같이 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를 통해 곱단이가 소학교 분교에 입학함으로써 만득이와 등·하교를 함께하게 되고, 이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6 만득이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만득이에 대한 오해를 풀었지만, 순애가 죽기 전에 만득이가 곱단이에 대한 순애의 오해를 풀어 주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7 이 글은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가 관찰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만, (다), (라)에서는 만득이를 서술자처럼 설정하여 만득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8 '나'가 '고향 군민회'에 가서 만득이를 만나게 되고, 이후에 전개되는 사건이 만득이와 관련된 사건임을 통해 '고향 군민회'는 만득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오답 틀어보기 ① '나'와 삼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② '고향 군민회'로 인해 '나'가 고향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③ '나'와 만득이는 특별한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
 ⑤ 만득이가 '고향 군민회'를 통해 현실을 극복할 힘을 얻고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 9 '강도의 폭력'을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볼 때, 강도를 피하다 죽은 사람은, 일본의 정신대 차출을 피하기 위해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시집을 간 곱단이로 볼 수 있다.
- 10 독자들은 만득이가 곱단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득이의 말을 통해 순애의 오해였음이 드러나면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진다. 또한 만득이의 말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임을 알 수 있다.

지식 +

• <그 여자네 집> 결말의 특징

- 정신대 모임에서 만난 만득이의 말을 통해 만득이가 아직도 곱단이를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나'의 오해가 풀림.
- 등장인물인 만득이의 말을 통해 만득이와 곱단이가 겪었던 사랑의 아픔은 개인적 차원의 아픔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비극이라는 주제 의식을 전달함.
- 열린 결말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김.

085

19세_ 이순원

312-315쪽

키포인트 체크 아버지, 겨울, 대관령, 학교, 농사

- 1 ③ 2 ① 3 ③ 4 빨리 돈을 벌어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5 지금은 농사보다 공부를 해야 할 시기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6 ④
 7 ② 8 ③ 9 농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 1 이 글에서는 어른이 된 서술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담담하게 회고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지식 +

• 작가의 분신인 '나'

작가 이순원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월탄 박종화의 <삼국지>와 <한국 대표 문학 전집>, 번역 소설 등을 다치는 대로 읽으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운다. 강릉상고에 진학한 그는 후학하고 농공 성인식을 치른 다음 대관령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가의 경험이 이 작품의 주요 모티프가 되고 있다.

- 2 [A]에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나'와 이를 반대하는 부모님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부모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만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3 부모님은 학교를 자퇴하려는 '나'에게 야단을 치고 달래기도 하지만 '나'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의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에 결국 '나'의 부모님은 '나'의 뜻대로 하라며 허락을 하게 된다. 따라서 흔들어도 꺾이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 적절하다.

① 오답 틀어보기

-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한다.
 ② 안하무인(眼下無人):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④ 전전공공(戰戰兢兢): 몹시 두려워서 별별 떨며 조심함을 이르는 말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이르는 말

- 4 여름방학 때 고랭지 밭에서 농사법을 배우고 온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고 말하는데,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 시달리게 된다.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을 해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해 대관령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려는 것이다.

- 5 아버지가 '나'에게 나이를 물어본 것은 '나'의 진짜 나이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이는 농사보다 공부를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아들에게 일깨워 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 6 공부에 취미가 없던 '나'는 상고를 그만두고 대관령에서 고랭지 채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감정조차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다는 내용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7 (나)의 '형도 제대해 집에 와 있었다. ~이제는 지난번처럼 함부로 내 삶에 대해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에서 형이 제대한 후에는 '나'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대한 형의 간섭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촬영할 때 클로즈업해 달라는 요구는 이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 8 (나)에서 '나'는 승태 누나와의 대화나 아버지가 보내 준 책들을 통해 농사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내면적 성찰뿐 아니라 타인의 시각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게 된다는 <보기>의 내용과 연결된다. 결국 '나'가 책을 읽는 행위는 타인의 시각을 통해 삶의 방향을 탐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시각보다 내면적 성찰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9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열일곱 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두고 대관령에서 2년간 배추와 감자 농사를 짓는다. 첫해에는 큰돈을 벌어 오토바이도 사고, 술집도 드나들며 어른 흥내를 낸다. 하지만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결국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따라서 ㉠은 '농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키포인트 체크 이타적, 이기적, 농촌, 경운기, 묘비명

1 ② 2 ⑤ 3 고장 난 경운기 4 앞으로 전개될 사건과 주인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5 ① 6 ④ 7 ② 8 서술자는 황만근이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황선생'이라는 존칭을 사용한 것이다. 9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1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만그인지 만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와 같은 이장의 말이나 토끼와 싸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치부하는 황동수의 모습 등을 통해 황만근이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가)의 "그래도 질레 있던 사람이 ~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에서 황만근을 걱정하는 황재석의 모습이 드러난다.

③ 민 씨는 황만근의 행방을 알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⑤ (나)의 "내가 아나. ~ 시간도 마이 걸릴 끼고."를 통해 이장이 황만근의 실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보기 ①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었지만, <보기>에서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 된다 카이."라고 말한 황만근의 말을 통해 황만근이 농부로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에서 황만근이 농촌 정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글에서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여하려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③ 투쟁 방침을 지키기 위해 경운기가 고장 났음에도 그것을 끌고 간 황만근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농민들이 농기구를 사서 빛을 많이 지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쫓겨 대회까지 열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농민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농민 총궐기 대회의 투쟁 방침이 농민들이 각자 경운기를 끌고 오는 것이었다. 이장의 총용에 따라 황만근은 우직하게 백 리 길을 고장 난 경운기를 끌고 갔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다.

4 이 글은 주인공인 황만근의 실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설정은 독자를 긴장시켜 작품에 주목하게 하고, 주인공의 운명과 그에 얽힌 진실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5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황만근의 행적과 삶, 죽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6 황만근은 평소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였으며, 착한 아들이자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다. 황만근이 백 리나 되는 먼 거리를 경운기를 몰고 간 것은 농민 쫓겨 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참석하라는 이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경운기 타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7 묘비명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황만근의 삶의 모습을 전달하고 예찬함과 동시에,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세태를 보이는 마을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지닌다.

8 (나)에서 황만근의 생애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지혜롭고 근면하였으며 욕심 없는 그의 삶의 태도는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것이었기에 그를 선생이라고 존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황만근은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웠다. 그의 이타적이고 성실한 모습에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다.

지식+

• 소설사에 나타나는 전(傳)의 전개

전체적으로 <삼국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공식적인 역사는 물론 조선 시대의 개인적인 문집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이 쓰여졌으며, 대부분의 전은 승려·장군·효자·열녀 등 모범적인 인물을 입전하는 정통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고려 시대에는 사물을 대상으로 이를 의인화하여 전의 대상으로 삼는 가전이 유행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성리학에 어긋나는 신선이나 도인, 시정의 건달이나 천민 등이 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전의 형식은 인물의 생애가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자주 차용되었는데, 그 결과 <춘향전>이나 <홍부전> 등 조선 후기의 소설들은 대부분 '전'이라는 표제를 붙이고 나타나게 되었다.

키포인트 체크 내적 갈등, 노랑 해전, 적탄, 통증, 장병검

1 ③ 2 ② 3 ③ 4 일본군, 임금 5 어깨는 적탄에 맞아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허리와 무릎은 임금으로 인해 의금부에서 고초를 겪어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6 ③ 7 ① 8 ② 9 막노와 무역은 쇠를 깊이 이해하고 쇠를 녹여 무기 만드는 과정을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10 역설적 표현, 칼로 적과 겨를 때 모든 공간이 공격과 수비의 범위가 된다.

1 '언제 적탄이 ~ 살았던 것처럼 무거웠다.', '살아 있는 아픔이 ~ 적의 생명처럼 느껴졌다.', '위관의 질문은 ~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다.' 등에서 '나'의 독백적 진술을 통해 적탄으로 인한 통증과 의금부 심문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2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부터 추운 날에는 허리가 걸렸고, 왼쪽 무릎이 시리고 쭈셨다.',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등을 통해, '나'의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의금부의 심문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 <보기>의 내용에서 임금이 내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장수를 견제하고 이 결과로 이순신이 백의종군에 처해졌다고 하였으므로, 백의종군하는 '나'가 내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보기 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다는 것은 '나'가 있어야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세를 안정시키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다는 것은 임금이 '나'를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 위협이 되어 제거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나는 다시 나를 살려 준 적 앞으로 나아갔다.'에서 '적'이 표면적으로는 일본군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임금은 나를 풀어 준 것 같았다.'와 '나를 살려 준 것은 결국은 적이였다.'에서 '적'은 이면적으로는 '임금'을 뜻한

다고도 볼 수 있다.

- 5** '사천 싸움에서 총 맞은 왼편 어깨가 결렸고', '상처가 아물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에서 '나'가 왼쪽 어깨에 적탄을 맞아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마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 뿐이었다.'와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부터 추운 날에는 허리가 결렸고 왼쪽 무릎이 시리고 쭈셨다.'에서 임금의 지시로 행해진 의금부의 고초로 인해 허리와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총통을 한 자루 보내 주면 그 열개를 들여다보고 똑같이 만들어 냈다.', '대장장이들이 기름칠로 번들거리는 총통 백 자루를 상 위에 펼쳐 놓았다.' 등을 통해 승자총통을 만든 사람은 장졸들이 아니라 대장장이임을 알 수 있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⑤ '대장장이들은 ~ 그 열개를 들여다보고 똑같이 만들어 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적의 배를 깨뜨리고 불태워서 ~ 싸움을 정리할 수 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경상 내륙 산간의 여러 읍성이 ~ 적들이 와서 놀러앉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7** <보기>의 '나는 진실로 이 남쪽 바다를 적의 피로 염(染)하고 싶었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나'는 남쪽 바다에서 적을 궤멸시켜 승리를 거두고 싶은 소망을 '물들일 염 자'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8** '대장장이들은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은 ~ 만들어 냈다.'에서 대장장이들이 총통을 만들 때 열개를 보고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장병검을 만들 때에도 대장장이들이 무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열개를 보고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9** '막노와 무역은 농기구를 만들던 대장장이의 아들로 쇠를 녹여 무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낼 수 있었다.'와 '막노와 무역은 쇠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를 통해 막노와 무역이 무기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0** '칼로 적을 겨눌 때 ~ 모든 공간을 동시에 겨눈다.'를 통해 모든 공간이 공격의 범위가 된다는 것을, '닥쳐올 모든 찰나들을 겨눈다.'를 통해 모든 공간이 수비의 범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088

한데서 울다_ 공선옥

324~327쪽

키포인트 체크 소음, 연민, 도시, 시골, 사냥꾼, 불쾌감

- 1⑤ 2① 3④ 4집도 아닌 집 5정희는 낯선 남자의 돌발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도시의 폭력성에 불안감을 느낀다. 6⑤ 7③ 8② 9사내들이 듣고 있는 총구

- 1** 삽화 형식이란 작품의 기본 줄거리에 토막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이다. 이 글은 다양한 인물들의 삽화를 나열하고 있지 않다.
- 2** (가)에서 낯선 남자는 정희를 뺨히 쳐다보며 정희에게 반말로 알은체를 한다. 이에 정희는 낯선 남자의 무례한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다. 낯선 남자는 아이가 아니라 정희에게 알은체를 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정희는 소음으로 가득 찬 도시를 생명력이 유지되기 어려운 '한데'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며 시골로 이사했지만, 시골에서의 생활은 자신의 짐작과 달리 확정기 소리, 총소리 등 각종 소음으로 가득했다. 결국 정희는 다시 도시로의 이사를 위해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집도 아닌 집'을 보러 다니게 된다. 따라서 정희가 도시로 집을 보러 다니는 이유는 도시의 소음을 피해 시골로 왔으나, 시골에서도 소음에 시달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4 정희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육장 같은 도시의 아파트를 '집도 아닌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5 정희는 시골 생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다시 도시로 집을 보러 다닌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알은체를 하는 낯선 남자의 돌발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도시를 빠져나와 시골로 돌아오면서 도시의 폭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6 사슴과 나무꾼 이야기는 정희의 순진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이야기로 실제 정희와 사냥꾼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보기** ② 사냥꾼은 집 앞에 세워 둔 차를 빼 달라는 정희의 말에 반말로 대꾸하며 무례하게 대한다. 따라서 사냥꾼의 태도는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그 모습은 완벽한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를 둘러싼 세상은 지금 한판 살육제를 펼치고 있는 거였다.'에서 시어머니의 평화로운 모습과 사냥꾼들의 사냥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7 사냥꾼은 총소리로 시골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존재이며 정희에게 무례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에 정희는 공포감을 느끼며 다시 도시로 집을 보러 다니게 된다. 따라서 사냥꾼으로 인해 시골로 이사하게 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보기** ① <보기>에서 정희는 '시골집에서도 소음에 시달리고, 폭력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인물과의 갈등'으로 인해 다시 도시로 이사할 결심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희는 시골집에서 겪는 소음인 총소리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한데'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번개탄 장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시골에서 살기로 한다'고 하였다. 번개탄 장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후에는 소음으로 느꼈던 확정기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평온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골집에서도 소음에 시달린다'고 하였다. 이는 사냥꾼의 총소리로 인해 소음과 폭력성을 느꼈기 때문이므로 정희는 사냥꾼으로 인해 문명을 상징하는 도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느낄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옆집 할머니가 사냥꾼의 총에 맞는 것은 사냥꾼의 폭력성이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으로, 정희가 다시 도시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옆집 할머니가 사냥꾼의 총에 맞자 정희는 시골도 도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느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8 ①은 정희의 순진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간접적 제시 방법 즉, 보여주기 기법이 사용되었다. 간접적 제시 방법은 독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을

과약하게 하여 극적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인물의 성격을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오답 틀어보기** 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 서술하는 방법은 직접적 제시 방법에 해당한다.

ㄷ. 서술자의 설명으로 인해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직접적 제시 방법의 단점에 해당한다.

- 9 (나)에서 도시 문명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것은 '사내들이 들고 있는 총구'라 할 수 있다.

089 황진이 _ 홍석중

328-331쪽

키포인트 체크 **당당, 신분, 조선, 사랑, 기생**

1 ⑤ 2 ③ 3 ⑤ 4 죽은 또복이에 대한 황진이의 마음을 보여 준다.
5 ③ 6 ④ 7 ④ 8 [A]에서는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황진이가 죽은 총각의 상어를 만나는 장면을 긴장감있게 서술하고 있다.

- 실존 인물인 황진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황진이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서술자는 '참으로 박정한 세상이다. ~ 따져서 무엇하라.'에서 상여 행렬을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틀어보기** ① 상여 노래는 또복이의 심정을 대변한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상두수빈과 상두군들이 주고받는 소리를 '원귀의 울음소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상여 행렬에서 이루어지는 '그네뛰기'는 당대 풍속을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또복이는 황진이가 기생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외기러기 짝사랑에 외론 혼이 되었구나'라는 구절을 통해 상여 노래는 죽은 총각의 심정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혼수'는 결혼을 준비하던 황진이가 파혼당하면서 자개함 안에 넣어 두었던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증표로 볼 수 있다. 파혼으로 인해 자신의 사랑을 잃은 황진이가 자신을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또복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황진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혼백과 저승에서의 사랑을 약속한 것에 대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고 있지만 이를 후회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한번 얼핏 뵈은 일밖에 없으니까요.'에서 황진이가 죽은 총각을 한 번 본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은 총각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허물벗기를 망설이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황진이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비롯한 양반 계층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을 황 진사의 고명딸로 살아온 삶에 대한 향수(鄕愁)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틀어보기** ① 황진이가 양반집 딸에서 기생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근층이 허물벗기하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발을 뺐으면 허물벗기가 전부 끝난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발을 뺐는 것은 허물벗기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③ 애기벌레의 허물 속은 과거의 삶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황 진사의 고명 딸로 살아온 과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허물벗기를 끝내고 날개를 펴서 날아간다는 것은 양반집 딸로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기생)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8 [A]에서는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황진이가 상여에 다가가는 순간부터 슬란치마를 펴서 관곽에 덮는 순간까지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90 종탑 아래에서 _ 윤희길

332-335쪽

키포인트 체크 **충격, 익산, 백마, 소원**

1 ③ 2 ① 3 ① 4 ③ 5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시각으로 전쟁에 접근함으로써 전쟁의 폭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6 ① 7 ② 8 ⑤ 9 딸고만이 아버지는 '나'와 명은이가 종을 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이면서, 줄에 매달려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10 명은이의 '울음소리'를 '때때웃을 입은 어린이'에 비유하여 '어둠에 잠긴 세상'을 환히 비춰 주는 구원의 의미로 형상화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나'가 명은이에게 백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명은이와 함께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일 뿐, 명은이를 위로해 주려고 준비한 것은 아니다.
- 명은이는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 그 정신적 충격으로 두 눈이 멀게 된다. 어린아이에게까지 고통과 상처를 주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전쟁의 참혹성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 백마 이야기에서 '성주'는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심판하고 백마를 보살펴 주는 인물이다. '나'는 명은이에게 백마 이야기를 들려주고 종탑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성주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나'는 명은이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매개체인 '침낭쿨'과 대응된다.

☞ **오답 틀어보기** ① 명은이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이 죽는 것을 목격한 후 두 눈이 멀었다. 즉, 명은이는 절망적이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인물로 '백마'와 대응된다.

지식 +

• 우화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이솝 이야기》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우화에는 보통 의인화되어 인간처럼 행동하는 동물이 전형적인 주인공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특성도 전형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우는 교활하게, 늑대는 탐욕스럽게, 사자는 용감하게 그려진다.

18세기 독일의 작가 레싱(Lessing, G. E.)은 우화를 정의하여 '우리들이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을 하나의 특별한 사례에 주고 이 일반적인 원칙이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꾸며 낸 이야기'라고 하였다.

- 5 이 글은 어린 소년의 순진한 눈을 통해 전쟁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아직 세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소년의 눈에 비친 전쟁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6 '나'는 종소리가 울리자 명은이에게 소원을 빌라고 채근하면서 본인도 마음속으로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가 종소리를 듣지 못하기를 빌고 있다. 따라서 명은이가 먼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틀어보기** ② '그동안 늘 보아 나온 딸고만이 아버지의 종 치는 솜씨를 흉내 내어'에서 '나'가 딸고만이 아버지의 종 치는 모습을 유심히 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나'는 주일마다 딸고만이 아버지를 그약스레 놀려 대었던 것과 달리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워 보내면서 종 줄을 잡아 볼 기회를 얻으려 하고 있다.
- 7 <보기>는 문학적 해결 방안이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하면, 명은이가 종을 쳐서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의 사랑과 연민이 앞으로 명은이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8 종소리는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명은이의 울음소리이면서, 구원의 희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명은이가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 9 명은이는 종을 울려서 이야기 속 백마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늘에 알리고 싶어 하는 욕망을 지닌 주도자이고, '나'는 명은이가 소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다. '딸고만이 아버지'는 아이들이 종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해자이지만, '나'와 명은이를 줄에서 떼어 내려다 줄에 매달려 결국 같이 종을 치게 된다는 점에서 조력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 10 명은이의 '울음소리'는 때때옷을 입은 어린애에 비유되어 곱고 옛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종소리가 '나'의 '울음소리'를 무동 태우고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는 것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절망적 상황에 처한 현실을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091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_ 박상률

336-339쪽

키포인트 체크 첫사랑, 고등학생, 시집, 거절

- 1 ③ 2 ⑤ 3 ① 4 첫사랑 5 ㉠ 당황함. 6 ⑤ 7 ⑤
8 ② 9 ③ 10 깨끗하고 순수한 첫사랑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11 시집의 시들은 고등학생 시절의 '나'가 현아만을 위해서 쓴 것이므로, 현아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여겨 시집을 돌려준 것이다.

- 1 이 글은 주인공 '나'가 학창 시절에 겪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다.
- 2 '나'가 친구에게 자신의 시집을 현아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자 친구는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을 뿐 비웃은 것은 아니다. 또한 '나'가 서둘러 그 집을 나온 것은 친구에게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어색했기 때문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의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 원망이 치솟을 대로 치솟아서 그랬는지도 모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오빠, 눈사람 만들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마지막 부분인 '그 일을 계기로 다시는 ~ 시 비슷한 것조차도 나오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나'가 품고 있는 속마음은 현아를 좋아하는 감정이다.

4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첫사랑인 현아를 생각하며 쓴 시를 묶어서 만든 수제품 시집이므로, 이 작품의 제목의 상징적 의미는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5 ㉠에서 '나'는 생각지도 못하게 현아를 만나게 되어 당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에서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나'가 현아에게 실망했음을 알 수 있다.

6 현아가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 드렸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의 시집이 그때 현아에게 전달되었더라도 현아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7 '남편이 죽고 나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아,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라는 서술로 보아, '나'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노와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가)의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 주문을 받았던 것도 떠올랐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에서 과거 장면으로의 전환은 오버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가)의 '나는 더욱 글에 매달렸다. ~ 직장의 상사가 되어 보기도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의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연속적으로 편집하여 글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8 (가)의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와 '비록 시는 아니지만 ~ 나 스스로를 위한 글을…….'로 보아 '나'가 더욱 글에 매달린 이유는 직장 생활로 지친 '나'의 마음과 영혼의 위안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 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쓰인 것이거든.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되돌려 주지도 못하고 없애 버리지도 못한 거야.'라는 '나'의 말로 보아, 친구는 시집의 시가 현아에게만 의미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없애 버리지 못하고 되돌려 주지도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이 글에서 눈이 내리는 배경은 첫사랑과 연관된 낭만적 풍경을 부각하고 있다. '나'는 20여 년 만에 현아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눈을 맞고 있으므로, 이때의 '눈'은 눈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첫사랑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나'는 시집 속의 시들은 고등학생 시절의 '나'가 오로지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아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여겨 시집을 돌려준 것이다.

키포인트 체크 차별, 가구 공간, 탈색제, 재료

1 ① 2 ⑤ 3 ⑤ 4 신들의 왕을 태우는 구름이었다가 격이 낮아져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된 코끼리처럼, 아버지도 고향인 네पाल을 떠나 머나먼 한국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5 ③ 6 ④ 7 ④ 8 고향에서의 행복한 순간을 통해 현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한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불안한 무의식을 드러낸다. 9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을 벌과 나비가 엉엉대는 야생화 꽃밭으로 표현하여 이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1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에서 '나'는 한국인이 자신을 미국 사람처럼 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② '나'가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도 도드라지는 것을 피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③ 친구들의 따돌림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⑤ 탈색제로 세수하는 '나'의 행동은 다른 피부와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배척하는 한국인의 태도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나'의 행동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 ㉔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극도로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버지와 자신만은 그런 아픔에서 벗겨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의 마음이 드러난다.

3 '후미진 공장 지대'에서의 삶은 '나'와 아버지에게 상실감과 결핍감을 안겨 줄 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에서는 '나'의 아버지도 천문학을 공부했으나 한국에 와서는 이주민 노동자로 하층민이 되어 ㉔에서 살고 있으므로 '나'가 ㉔에 살면서 ㉔를 동경한다는 내용은 적절한 설명이다.

② ㉔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다가 ㉔처럼 힘들고 고단한, 꿈을 상실한 공간에서 살고 있으므로 ㉔와 ㉔가 대비된다는 내용은 적절한 설명이다.

③ ㉔에서 ㉔로의 변화는 아버지의 격이 낮아진 것으로, 천상의 삶에서 지상의 삶으로의 격이 낮아진 코끼리의 격의 변화와 대응된다.

4 힌두교 신화에서 코끼리는 신들의 왕인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으나 브라마가 '세계의 알'을 깨뜨리면서 격이 낮아져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고 한다. 이 신화를 들은 후 '나'는 아버지의 현재 처지가 격이 낮아진 코끼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5 이 글은 13살 소년의 시각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순수하고 솔직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6 아버지에게 한국은 후미진 공장에서 천대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공간이지만 일자리와 가족들이 있으므로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다. 아버지에게 편안한 삶의 공간은 고향인 네पाल이다.

7 '히말라야 달력 사진'은 아버지가 떠나온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현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대상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히말라야 달력 사진'은 아버지에게 있어 현실의 아픔을 달래 주는 대상으로, 이에 현실과 대비되는 다른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②, ③, ⑤ 아버지는 히말라야 사진을 보며 기쁨을 얻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떠난 아버지의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며,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견디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8 아버지는 꿈을 통해 고향에 돌아가 한때나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따라서 '꿈'은 현실적인 아픔과 상처를 일시적으로나마 위로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꿈에서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 받는다. 이는 한국에서의 삶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9 <보기>는 '샐러드 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한 사회에 존재하는 이질적 문화를 마치 샐러드 재료처럼 조화롭게 하여 그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작가가 (나)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을 벌과 나비가 엉엉대는 꽃밭으로 표현한 것은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키포인트 체크 화친, 싸우기, 고노, 병자호란, 남한산성, 대립

1 ④ 2 ① 3 ③ 4 싸움을 통해 화친을 이끌어 내야 한다. 5 청나라에 목숨을 구걸하여 욕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겠다. 6 ④ 7 ② 8 ⑤ 9 ㉔: 적을 공격하는 것 ㉔: 적들과 말길을 여는 것 10 ㉔: 청과 싸우는 것 ㉔: 청과 화친하는 것

1 이 글은 청에 대해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과 전쟁을 주장하는 김상헌의 논쟁이 주를 이루며, 이에 임금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최명길의 첫 번째 주장에서 청의 군사가 성을 둘러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최명길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적의 문서에 대한 답을 문서로 하지 말자'는 주장과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아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라는 김상헌의 주장에서 청나라에서 조선에게 문서를 보낸 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청에 대해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과 전쟁을 주장하는 김상헌이 대립하고 있다.

2 최명길이 주장하는 '화(和)'는 현재 조선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것을 행복이라 여기는 것은 김상헌의 생각이다.

3 ㉔에서 최명길은 지금은 물러설 자리이므로 청과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㉔: 청나라에서 보낸 문서에 대한 답을 문서로 하지

말고 신하들을 보내 대화를 하자는 최명길의 의견이다.

②㉠: 화친은 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과 싸움으로 맞아야 한다는 김상헌의 의견이다.

4 화친이라는 굴욕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전(戰)'이 우선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보여 주고 결과적으로는 '화(和)'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5 김상헌은 우리 민족과 임금의 자존심을 버려서는 안 되며, 청과 화친하여 굴욕적인 삶을 이어 가느니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6 임금은 신하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지만, 신하들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② (나)의 '중론을 묻지 마시고 오직 전하의 성단으로 결행하소서'라는 최명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임금이 김류에게 전과 화에 대해 물었으나 김류는 자신의 직분을 이유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7 반영론적 관점이란 작품에 당대의 시대상이나 사회상 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다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 ②가 반영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작품에는 작가의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표현론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③ 작가의 관심을 감안하여 작품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표현론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④, ⑤ 시점, 서술, 인물 등 작품 자체의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지식 +

• 작품의 감상 관점

(1) 내재적 관점

① 절대주의 관점: 작품 그 자체를 독립된 존재, 완결된 구조로 보아 시점, 서술, 인물 등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려는 관점

(2) 외재적 관점

① 표현론적 관점: 문학 작품을 작가의 체현,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

② 반영론적 관점: 문학 작품을 삶의 현실(시대, 사회, 문화)이 반영된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

③ 효용론적 관점: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어느 정도 주었느냐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

8 김상헌은 최명길의 품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임금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9 최명길은 적에게 담비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이므로 그것은 미뤄야 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신하들을 적에게 보내 말길을 트게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 최명길과 김상헌은 청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최명길은 청과 화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과 싸우는 것은 의(義)를 세운다고 이(利)를 버리는 일임을 말하고 있다. 반면에 김상헌은 청의 문서를 불사르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과 화친하는 것은 의(義)도 아니며 이(利)도 아닌 일임을 말하고 있다.

키포인트 체크 젊은 세대, 반지하방, 피아노, 피아노

1 ② 2 ② 3 ① 4 ② 5 반지하방에 빗물이 들어온 것이 처음이 아니며, 아르바이트로 인해 물이 새는 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6 ⑤ 7 ③ 8 ② 9 ①

1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은 반지하방으로 고단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처지를 더욱 부각하며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끼는 인물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인물의 내면과 대비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글은 청년들의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 반지하방이라는 개인적인 공간과 피아노라는 사물에 주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면',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등 다양한 비유법을 활용하여 참신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피아노를 친 '나'와 이 소리를 듣고 찾아온 집주인과의 대화, 그리고 방에 빗물이 들어온 상황에 대한 세밀한 묘사 등을 통해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⑤ 반지하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제시하고 있다.

2 '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언니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걸레로 닦아 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한 뒤 바쁜 듯 전화를 끊었다.'에서 언니는 빗물이 방에 들어오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언니가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집주인은 피아노 소음은 문제 삼으면서 집 공사로 자신이 발생시키는 소음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고 '나'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다.

④ '나'는 자신이 아끼는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⑤ '나'는 집주인에게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를 통해 집주인에게 피아노를 친 것을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는 피아노 뒤의 벽에 핀 곰팡이로 인해 피아노가 썩을까 걱정이 되어 피아노 소리를 확인하고 싶었고 주인집을 보수하는 공사 소음으로 바깥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4 사람이 거주하는 지하방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 남자는 특별히 문제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지하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여 집주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주인의 태도를 부당하게 느껴 나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원래 그렇다'는 말을 나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5 언니는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간인데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빗물이 방으로 들어온다는 '나'의 전화에도 담담하게 반응하는 것은 빗물이 방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이며, 바쁜 듯 전화를 끊는 것으로 보아 일을 하느라 물이 새는 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므로 볼 수 있다.

6 '나'는 방 안에 들어 온 빗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물기를 닦아 낸 곳에 다시 빗물이 고이고 어느새 무릎까지 차게 된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한 '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 최소한의 도도함을 지키기 위해 방에서 피아노를 치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깨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연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보기 ① 폭우가 쏟아져 방 안으로 빗물이 들어온 것을 본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허둥지둥 언니에게 전화를 건다.

② 방 안으로 들어온 물기를 걸레로 닦는 일을 반복하고 나서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뿌듯해 한다.

③ 물기를 제거한 곳에 다시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본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하얗게 질려 울먹이면서 언니에게 전화를 한다.

④ 다시 물기를 제거해도 곧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것을 보고 '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7 '나'가 쏟아지는 빗물을 치우다 결국 포기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였지만 최후의 자존심만은 지키고자 함을 보여 준다. 작가는 '도도한'을 사전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삶이라고 하였으므로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함으로써 잘난 체하며 거만하게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보기 ① '도도한'은 '잘난 체하여 주체에게 거만하다'는 의미이므로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나'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② <보기>에서 극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삶이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엄마는 집이 망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팔 때도 피아노만은 팔지 않고 '나'와 함께 서울로 보낸다. 피아노를 지키는 것이 엄마에게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도도한 생활은 현실의 불안함과 어두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 '나'의 고된 삶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8 방 안으로 빗물이 들어 온 문제 상황에 대해 '나'는 고인 물을 걸레로 훑쳐 내는 일을 반복하여 방안의 물기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물기를 닦아 낸 곳에 전보다 더 많은 양의 빗물이 다시 고인 것을 보고, '나'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과 무거움을 상징하면서 고단한 현실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힘든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9 '나'는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하여 언니가 살고 있는 반지하방에 오게 된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보기 ② 방에 곰팡이가 피어 피아노가 망가질까 봐 걱정하고,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방이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는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타이핑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언니'는 영문과에 편입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한다.

④ 새어 들어오는 빗물을 막을 수 없어 피아노와 책들이 잠기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집주인 때문에 피아노를 함부로 칠 수 없고, 곰팡이가 핀 것이 원래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095 명랑한 발길 _ 공선옥 352-355쪽

키포인트 체크 물질적, 순수함, 소외, 무공해 채소

1 ④ 2 ⑤ 3 ④ 4 ② 5 시골: 뭘 이런 데 / '나': 돼먹지 못한 계집애 6 ① 7 ① 8 ② 9 희망 10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발길'이지만 그 안에서 '명랑하게' 걸어가는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1 이 글은 시골에서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나'가 이별을 겪은 뒤 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만나게 되는 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등장인물인 '나'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이 체험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 '나'와 남자의 갈등은 끝없이 증폭되지만 할 뿐 갈등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보기 ② '나'와 남자가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나'가 남자를 사랑하면서 포기했던 것들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 ㉠~㉣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연 현상과 날씨로, '나'와 남자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무공해 채소를 내미는 '나'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냉담하게 대하는 남자의 태도로 미루어 '나'의 상황을 이해할 때, ㉠의 '두꺼운 구름'은 '나'에게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 버린 남자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①, ③ 별은 남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자를 찾아갈 때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남자와 만나면서 희망을 잃게 된 상황을 별이 빛나다가 사라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남자는 '나'를 처음부터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즐기듯 만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무공해 채소'가 남자의 본심을 변하게 한 계기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보기 남자를 위해 손에 피가 나도록 일군 텃밭에서 기른 '무공해 채소'는 남자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의미하고(③), '나'의 순진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 남자의 잔인하고 뻔뻔스러움을 부각하는 기능도 한다(①). 또 '나'가 이것을 들고 남자를 찾아갔지만 결국 남자가 이것을 내팽개치는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유발하는 계기로도 작용하며(④), '나'가 겪는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⑤).

5 남자는 시골에서 생활하는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보이고 있으며, 시골과 '나'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뭘 이런 데서' 이라고 있겠냐는 표현에는 시골을 무시하는 태도가, '돼먹지 못한 계집애'라는 표현에는 '나'를 무시하는 태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6 간쭈와 싸부딘은 '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열중하며 대화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오답 풀이보기 ② '나'는 남자 집으로 갈 때는 무심증을 느끼지 못했으나, 돌아오는 길에는 무서움을 느낀다. 그래서 채소 봉지까지 떨어뜨리며 급하게 정미소 안으로 몸을 숨긴 것이다.

③ '나'는 정미소 안에 몸을 숨긴 채로 간쭈와 싸부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다.

④ 싸부딘이 칸쭈에게 너 때문에 일을 망쳤다고 한 것과 사장님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⑤ '나'는 칸쭈가 노래를 부르며 괴로움을 이겨냈다는 말을 듣고, '나' 또한 노래를 부르며 괴로움을 이겨 내고자 한다.

7 ①은 남자에게 내쫓긴 상황에서 아직 헤어짐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에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을 나타낸다. ②은 현실의 고통을 견뎌 내는 칸쭈와 싸부딘의 이야기를 들은 후 부른 것으로, 남자로 인한 시련을 극복하고 홀로 서 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8 (나)에서 '나'가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칸쭈와 싸부딘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용기를 내듯 자신도 용기를 내고 눈앞의 시련을 헤쳐 나가 보려는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틀어보기 ① 외국인 노동자들이 꺾박받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제시되어 있다.

③ 남자에게 버림받은 '나'의 처지와 대응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처지가 제시되고 있다.

④ 상처를 지닌 '나'는 칸쭈와 싸부딘이 지닌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들처럼 명랑하게 극복하고자 한다.

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칸쭈와 싸부딘의 대응 방식이 드러난다.

9 ③의 달은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나라 네팔 달 볼 거야."라는 칸쭈의 말을 통해 희망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⑥의 달도 '저기 네팔의 설산에 떠오른 달이 보인다.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문장을 통해 희망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칸쭈나 나에게 달은 희망을 주는 존재라 할 수 있다.

10 '나'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밤길'과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명랑하게' 걷는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명랑한'은 '나'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불편해하고 있다.

③ '나'는 답장의 첫 문장도 시작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⑤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를 떠올리며 그의 일본어처럼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욕망이 뒤섞여 있다고 하였다. 또한 메모들의 문체가 제각각인 것은 그러한 욕망이 다양한 말투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 <보기>의 '두근두근'은 '나'가 엄마의 뱃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로, '나'에게 새로운 세상과 처음 만나는 순간의 두려움과 설렘을 의미한다. 또한 ①의 가슴속의 조용한 기척은 서하라는 소녀와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제목 '두근두근 내 인생'은 '나'가 살면서 겪는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나'는 서하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잘 쓰려고 노력하지만, 잘 쓰려고 할수록 여러 마음이 엉켜 첫 문장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5 '나'는 아빠와 포옹을 하며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꾸욱 참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가 엄마에게 먹고 있는 약이 엽산이 맞느냐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엄마의 임신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를 통해 '나'가 이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엄마,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⑤ '나'는 엄마의 임신 사실을 알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서운해했던 적이 있음을 (나)를 통해 알 수 있다.

6 '나'는 눈을 감기 직전에 엄마에게 조로증을 앓는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렵지 않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엄마가 그제 무슨 말이냐고 대답해 주는 상황이므로 '따뜻한 느낌의 타이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7 <보기>의 화자는 이승에서의 삶을 '소풍'에 비유하며, 죽음에 달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②에게 이러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충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지식 +

• 천상병, <귀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독백적, 관조적, 낙천적
주제	삶에 대한 달관과 죽음에 대한 정신적 승화
특징	① 반복과 독백적인 어조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음. ② 비유적 표현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음.

8 엄마는 '나'가 조로증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므로, '나'가 혹시 상처를 받을까 봐 임신 사실을 숨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엄마는 '나'가 이러한 사실을 오해할까 봐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9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두고 부모님이 동생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숨을 거두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제 '원망하고 서운해했던 기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096 두근두근 내 인생_ 김애란 356~359쪽

키포인트 체크 조로증, 설렘, 방승, 병원, 사랑

1 ④ **2** ④ **3** '나'가 살면서 겪는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의미한다. **4** '나'는 서하에게 애정과 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5** ② **6** ④ **7** ⑤ **8** ③ **9**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자신의 사연을 직접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2 '나'는 서하에게 애정을 느끼며 답장을 쓰려고 하지만, 서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들켜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가 답장에 관한 고민을 하며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연애에 관한 글을 읽어 본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평범한 소년이라면 누구나 해 봤을 법한 연애 고민을 '나'는 낯설고

키포인트 체크 거울, 정체성, 헬멧

1 ② 2 ⑤ 3 ③ 4 ④ 5 ③ 6 ① 7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대상을 찾는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도구이다. 8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청소년은 자아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거쳐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1 (가)에서 '나'는 태수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된 G-그리핀의 노래 가사에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든다. 한편 (다)에서 '나'는 마리를 통해 민기훈(G-그리핀)이 준 헬멧을 쓰고 다니는 채영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그저 민기훈을 흉내 내는 사람이며 채영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민기훈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❷ 오답 틀어보기 ① (가)에서는 날개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에서는 날개를 통해 '나'가 상상해 온 일들이 현실과 다름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채영의 이야기를 전한 마리에 대한 '나'의 심리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있고, (다)에서는 거울과 벽에 그려진 날개 그림을 보며 상상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놀라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 '나'는 어린 시절 엄마가 보인 반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것은 엄마에 대한 실망감과는 무관한 것이고, (다)에서 '나'는 G-그리핀의 노래가 자신의 노래가 될 수 없음을 느끼며 실망하고 있다.

2 (다)에서 '엽서'는 채영이 민기훈에게 보낸 것이고, 민기훈의 집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된 '나'가 대신 그 엽서를 받게 된 것이다.

❷ 오답 틀어보기 ①, ④ 마리는 채영과 민기훈의 소문이나, 그들이 스쿠터를 함께 타고 가끔 공장에도 같이 다녔다는 것 등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② '나'는 민기훈이 그린 날개 그림에 덧칠을 해 가며 자신의 몸에서도 언젠가 날개가 뻗을 것이라고 상상했었다.

③ '나'의 어린 시절, 엄마는 어린 애들에게도 맞고 들어오는 '나'에게 왜 맞서 싸우지 않았느냐며 답답해했다.

3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는 것은, 채영과 관련된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향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❷ 오답 틀어보기 ① 노래 속의 '굵은 상처'는 타인의 강요된 가치관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정신적 상처를 의미하며, '나'가 느끼는 '더러운 기분' 역시 타인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된 정서를 의미한다.

② '더 강한 척해야' 하는 이유는 허세를 부려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노래 가사를 통해 '나'는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타인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곧잘 맞고 들어온 과거 경험을 회상한다.

④ '나가 이사 온 집은, 민기훈이 살았던 집이고 그가 노래를 만들던 방에서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것이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그 방은 민기훈과 '나'를 매개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마음속 이야기'란 G-그리핀 노래를 부르며 표현한 채영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의미한다.

4 '긴 잠에서 깨어난' 것은 채영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 주었던 민기훈의 부재를 느끼게 된 것을 의미한다.

❷ 오답 틀어보기 ① 다른 친구들과 생각이 달랐던 채영은 사실 백조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흙탕물에서 사는 오리였을 뿐이며, 다른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가장 못생긴 오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다른 곳'을 보고 그곳을 향하는 것은 채영만의 고유한 사유 방식을 의미하는데, 독특한 생각과 표현으로 인해 항상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채영의 모습을 의미한다.

③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내 말'은 채영의 생각이나 이야기가 친구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아가 지닌 고유성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⑤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이'란 채영의 생각에 공감하고 채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5 반성문의 내용 중 '생산적인 일'이란 기성세대의 기준에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일을 의미하고, 반성문의 내용은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 ㉔에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과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고, ㉕에는 한시라도 빨리 채영을 만나고 싶어 하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7 민기훈은 채영에게 '하얀색 헬멧'을 주며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이'를 찾으러 갈 때 비바람 속을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이'란 진정한 소통과 공감의 대상을 의미하며, '비바람'이란 그런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에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채영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잘 지켜 내기를 바라는 민기훈의 마음이 담겨 있다.

8 퍼즐 카페는 '나'와 채영이 만나 퍼즐도 맞추고 서로의 감정과 자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 공간이다. <보기>에 근거하여 이 소설을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감상한다면 퍼즐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아를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키포인트 체크 별초, 문중 선산, 전화, 과로

1 ④ 2 ⑤ 3 ② 4 ③ 5 처가 신세를 지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처가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문중 선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6 ② 7 ③ 8 ④ 9 ③ 10 동순이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고 이에 처가 어른들이 매우 흠족해했다.

1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처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동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2 칠 년 전 실직을 한 동순에게 처가의 문중 선산의 밭을 맡겨 농사를 짓게 했다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손위 처남의 전화를 받고 동순이 부라부라 문중 선산의 묘를 벌초하는 이유는 평소 관리를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처가의 도움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즉, 전화를 받고 부라부라 처가 문중 선산을 벌초하는 것은 동순이 처가에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므로 '손위 처남의 전화'는 동순과 처가와의 관계를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4 ㉠은 동순이 거짓말로 큰소리를 치고 있는 부분으로,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이지 평소 손위 처남이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보기 ① ㉠: 손위 처남은 문중 어른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손위 처남 덕분에 실직 후 실의에 빠져 있던 동순은 문중 선산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동순에게 손위 처남은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 처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중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심리가 나타나 있다.

④ ㉢: 동순은 손위 처남에게 큰소리를 친 것과는 달리 평소에 선산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가 어른들의 방문에 맞춰 이천 평은 될 산소를 벌초해야 해서 막막해하고 있다.

5 동순은 처가의 문중 선산을 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처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보여야 한다. 손위 처남이 문중 선산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문중 선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해야 처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동순은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6 처가의 눈치를 보며 처가의 문중 선산을 벌초하고 있는 동순이 안쓰러워 아내 옥자는 묵묵히 도시락을 싸다 주고 있으므로 옥자가 동순의 일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풀이보기 ③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벌초를 끝낸 동순이 처가 어른들의 방문이 연기되었다는 손위 처남의 전화를 받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7 ③에서 '손을 씻으니'는 특수한 의미(부정한 일 등에 관계를 청산하다)로 사용되지 않고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8 ㉡은 늦더위 속에서도 문중 선산의 벌초를 어렵게 끝내고 난 후 성취감과 아내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 뒤섞여 일어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허탈감'은 방문을 연기하겠다는 손위 처남의 전화를 받은 뒤 동순이 느끼는 감정으로 해당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9 손위 처남의 전화는 사건에 반전을 일으키면서 애써 벌초를 한 동순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10 예정대로 처가 어른들이 내려온다면 동순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고, 어른들은 동순의 벌초에 흠족해하며 칭찬을 할 것이다.

키포인트 체크 남자, 유대리, 새해, 상사, 출근

1 ② 2 ② 3 ④ 4 이 글에서 눈은 거대한 절대 권력으로서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삶의 압박이다. 그러나 <보기>의 눈은 포근한 이미지의 함박눈으로 사람들의 추위를 감싸 주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5 ④ 6 ④ 7 '스노우맨'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8 • 차이점 -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과 유능하고 인정받는 직원 • 공통점 - 두 사람 모두 출근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 작가 의도 -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무비판적인 노동으로 지쳐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1 남자는 기록적인 폭설로 도시 교통이 마비되어 도저히 출근할 수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삼 한 자루를 들고 몇 시간째 출근을 하고 있다. 남자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삼질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삼으로 땅을 파거나 흙을 떠내다'의 의미 이외에 '헛된 일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글에서 남자는 삼으로 무의미하게 눈을 치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는 별 성과 없이 힘만 들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남자는 중국집 스티커를 보고 짜장면을 배달시키지만 중국집 배달원은 매우 신속하고 능숙하게 눈을 헤치고 온다. 따라서 남자의 불행한 삶에 타인을 동참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보기 ① 중국집 스티커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남자 혼자 삼으로 눈을 헤치는 모습과 남자의 생각, 상상 등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중국집 스티커를 통해 새로운 등장인물이 출현하고, 남자가 출근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장면의 분위기가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중국집 스티커의 발견으로 남자가 잠시 삼질을 멈추고 중국집에 주문 전화를 하고 배달을 기다리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중국집 스티커를 통해 남자는 자신이 식사를 거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중국집 스티커는 남자에게 출근하기 위한 행위를 잠시 멈추고 자신의 배고픔을 돌아보게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4 새해 첫날부터 출근길을 막은 '눈'은 남자가 목숨을 걸고 치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 있다. 이 글에서 '눈'은 거대한 절대 권력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시에 등장하는 '눈'은 포근한 이미지의 함박눈으로 사람들의 추위를 감싸 주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자식 +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갈래	현대시
성격	상징적, 현실 참여적, 비유적
주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특징	① 인간 존재를 '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음. ② 동일한 문장 구조(~라면 ~되자)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음.

5 눈 때문에 고통스러운 처지에 처한 가운데, 그 눈으로 만들어진 웃는 표정의 눈사람과 그 눈사람의 표정을 따라 하는 남자의 모습은 힘든

현실에서도 억지웃음을 지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따라서 눈사람은 힘든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보기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① 이 작품은 남자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남자의 무비판적인 행동과 비극적 결말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부장'은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출근을 강요하고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일반화하면 조직 안에서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편의점 온장고 속의 따뜻한 음료)들은 '폭설'로 상징되는 삶의 무게와 압박으로 인해 즐기기가 어렵게 된 것으로 사회적 삶의 무게로 개인의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기가 어려워졌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유 대리가 숨을 거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던 눈은 사람들의 희생에도 현대인들의 삶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6 폭설로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눈을 헤치며 출근하는 모습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① 폭설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출근을 하는 모습은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무리하게 출근하다가 죽어 간 유 대리와 남자의 모습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개인의 불행을 보여 준다.

③ 회사까지 도달하기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무의미한 삽질을 계속하는 모습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회사를 위해 무비판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⑤ 유 대리와 남자는 모두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사의 압박으로 인해 출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삶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7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웃고 있는 눈사람의 모습은 고된 삶에 대한 냉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눈사람(스노우맨)은 고된 현실 속에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또한 출근을 위해 폭설을 헤치며 나아가는 남자를 '스노우맨'이라고 볼 때, 이 작품의 제목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유 대리는 유능하고 인정받는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출근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무비판적인 노동으로 지쳐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이 글에서 제시되는 구체적인 공간인 화장터와 '나'의 집은 빠른 호흡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공간의 전환이 긴장감을 조성하지도 않는다.

☞오답 틀어보기 ①, ④ 작품 내부의 인물인 '나'가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지난 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와 같이 짧은 호흡의 서술로 과거에 경험한 비극적인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담배를 연달아 피는 행위 등을 통해 '나'의 고뇌와 갈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 '나'와 아내는 아들의 죽음으로 받은 보상금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 부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고 여긴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 어린이집 원장(㉠)은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위암 수술을 받은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친구의 병세가 악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간이 더디게 흐르기를 바라고 있다.

지식+

정현중, <아픈 친구의 지구>

갈래	현대 시
성격	상징적, 비유적
주제	타인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
특징	① 시간이 더디게 흐르길 바라는 마음을 자연 현상과 관련하여 표현함. ② 시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함.

4 ㉠의 돈은 아들을 잃고 받은 보험금이다. '나'와 아내의 입장에서는 많거나 적다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나'는 보험금 서류에 계좌 번호를 적는 순간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와 아내는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들의 죽음과 경제적 가치를 맞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5 '나'는 슬퍼하는 아내 위로 보이는 벽지의 꽃무늬들이 마치 '함부로 던져진 조화', '살아 있는 사람에게 악의로 던져 놓은 국화', 위로와 함께 그만 울기를 요구하는 '꽃매'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꽃무늬를 통해 부부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틀어보기 ① 도배지는 벽에 묻은 복분자액 얼룩을 닦기 위한 것으로,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겨 내고 다시 생활을 이어 가려는 부부의 노력이 담겨 있다.

②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나'의 내면은 매우 황량하고 쓸쓸한 것이다. 사납게 불어오는 11월 바람은 이러한 '나'의 내면 심리와 연결되며 '나'의 슬픔을 더욱 심화시킨다.

③ 도배를 하던 부부는 '영우'가 벽에 남긴 낙서를 확인하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다.

⑤ '나'는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슬픔을 억누른 채 생활한다. 그러다 아이가 남긴 낙서와 아내의 울음을 보고 아이와의 추억을 떠올린 '나'는 눈물을 흘린다. 이때 '나'는 흘려내린 풀을 고름 같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나'가 터져 나오는 슬픔을 표출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100 입동_ 김애란 372~375쪽

키포인트 체크 아내, 현실, 입동, 도배, 낙서

1⑤ 2④ 3② 4아들을 잃고 받은 보험금을 쓰면, 아들의 죽음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④ 6③ 7④ 8진심이 담긴 위로를 전하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6 '나'는 영우가 제 이름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그림도 글씨도 아닌 무언가를 그렸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따라서 ③은 아내의 일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7 '나'가 ㉠와 ㉡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에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가 없었을 것이라고 후회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소소한 일상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은 영우의 죽음으로 인해 비극적 공간인 ㉡로 변모했다.
 ② ㉠와 ㉡는 공간적으로는 같은 공간이지만 '나'와 '아내'는 ㉡로 인해 ㉠와 ㉡를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나'는 '영우'를 추억하면서 일상적이었던 많은 것들을 앞으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에 가슴 아파한다. 결국 '나'는 ㉡로 인해 ㉡가 더 이상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⑤ 아내는 ㉡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에서 삶의 의지를 잃은 채 지내다가 도배를 하면서 다시금 삶의 의지를 다지려 하고 있다.
- 8 '꽃매'는 지나친 관심과 공간이 부재한 위로를 전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부부에게 오히려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가 '꽃매'를 맞으며 괴로워하는 상황을 보면서 독자들은 어떤 위로가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상대를 구분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공감하면서 진심을 담아 위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임을 깨달을 수 있다.

101

뿌리 이야기 _ 김숨

376~379쪽

키포인트 체크 이해, 외면, 포도나무 뿌리, 이름

1 ⑤ 2 ④ 3 ④ 4 고모할머니에게 '나'의 손은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포용해 줄 흙과 같은 것이었다. 5 ② 6 ④ 7 ① 8 고모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위안을 주었던 것은 '나'의 손을 잡았던 경험뿐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뿌리'이다. 뿌리는 존재의 근원, 삶을 지탱하는 힘, 제자리에 자리 잡음 등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뿌리의 상징성에 '그'와 고모할머니의 삶을 연결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2 '나'가 '그'에게 고모할머니의 이름을 말한 것은 그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나' 자신의 기억과 인식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이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⑤ 고모할머니에 대한 '나'의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그녀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전까지는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다.
 ②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상을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나)에서 '그'가 포도나무 뿌리로 만든 작품의 제목이 '남귀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 제목을 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3 (나)에서 작품 <남귀덕>이 한옥 부엌을 개조한 갤러리 공간에 전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선배의 찻집에서 전시할 기회가 생겨 그곳에서 전시하게 된 것일 뿐 이 작품이 한옥을 개조한 곳에서 전시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문화의 전통과 관련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나'는 전시된 포도나무 뿌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서면서, 그 뿌리를 닮은 고모할머니의 손이 찾고 있던 것이 단순히 '나' 자신의 손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포도나무 뿌리처럼 뿌리 뽑힌 삶을 살았던 고모할머니에게는 삶의 안정과 위안을 줄 수 있는 흙과 같은 존재가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모할머니는 '나'의 손을 잡으면서 뽑힌 뿌리처럼 외롭게 떠돌아다녔어야 했던 자신의 삶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받고 포용되는 것 같은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 5 뽑힌 뿌리를 소재로 한 '그'의 작품에서는 뿌리의 정서, 표정, 공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즉, 뿌리가 뽑히는 그 자체가 뿌리에게는 공포이고 고통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서는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 역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 6 고모할머니는 생전에 일본군 위안부 등록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그녀가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쉬쉬하며 숨겼다. '나'의 가족들이 고모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등록을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나)에서 '나'의 어머니는 고모할머니가 생전에 일본군 위안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삶의 관점에서 고모할머니가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친지들에게 기대치 않고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 오답 풀이보기 ① '나'는 '그'가 포도나무 뿌리에 촛농을 떨어뜨리는 순간이 고모할머니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②, 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뉴스를 본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고모할머니가 친지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음이 나타난다. 또한 어머니는 고모할머니가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물질적인 생활에만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그'가 고모할머니의 삶에 공감하는 과정이 촛농을 포도나무 뿌리에 떨어뜨리고 그 촛농이 굳어가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7 '나'는 겨울을 보다가 문득 자신과 고모할머니가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를 통해 '나'는 자신과 고모할머니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손을 잡던 고모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가 약화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보기 ②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경험뿐만 아니라 고모할머니에 대한 사회와 가족의 외면도 ㉡(세계와의 연결을 통한 자기 존재의 의미 인식)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③, ④ '그'의 뿌리 뽑힘은 입양으로 자란 것에서 나타난다. 이로 인한 충격과 불안이 자신과 유사성을 가지는 뿌리를 작업의 소재로 삼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그'의 작업을 통해 나무뿌리는 새로운 세계에 고정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진다. 기존의 흙에서 뽑혀 약화된 연결성과 자아 존재감은 새로운 세계에서의 의미와 연결을 통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8 '나'는 고모할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고모할머니에게 위안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모할머니에게는 그저 '나'와 같이 지낼 때 이불 속으로 손을 뺀어 '나'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만이 이해와 포용을 얻었던 경험이었던 것이다. '나'는 고모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 기억 하나만을 위안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모할머니가 죽는 순간에 '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102 투명 인간_ 성석제 380~383쪽

키포인트 체크 씨옥수수, 순수, 혼분식운동, 달걀, 반성

1③ 2⑤ 3③ 4③ 5④ 6④ 7⑤ 8맞아죽지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이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그때는 너 나 할 것 없이 어렵게 살았다.'에서 이 이야기의 서술 시점이 현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나머지 소재들과 달리 '교육 공무원'은 현재에도 통용되는 용어이다.

오답 틀어보기 ① 사환 → 교무 보조

② 국민학교 → 초등학교

③, ④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3 ①은 뱀비 우동이 '팔팔' 끓는 것을 자신의 머리가 '팔팔' 끓는다는 것과 연관시킨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적 표현이다. ③은 자식이 스물다섯 명이나 된다는 것을 통해 해학성을 드러낸 부분으로 과장을 통한 해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직책인 '이방'의 '방'을 '건넌방'의 '방'으로 해석하여 해학성을 드러낸 부분으로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적 표현이다.

② '친형제'의 '친'을 '지다'라고 해석하여 '때린 형제'와 나란히 두어 해학성을 드러낸 부분으로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적 표현이다.

④ '양반'의 '양'과 '반'을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해학성을 드러낸 부분으로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적 표현이다.

⑤ '홍보'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황보', '승보'와 같은 '보'를 반복하여 해학성을 드러낸 부분으로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적 표현이다.

4 '나'의 반은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서 도시락을 싸 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 '나'의 반이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자 '나'는 화가 나서 교실 문을 닫고 몽둥이를 드는 등 강압적인 지도를 하게 된다.

오답 틀어보기 ① '나'는 혼분식 운동, 새마을 운동과 같은 것을 잠무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 앞에서 혼분식 운동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은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 진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강압적인 지도 방식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나'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아이들이 일부러 혼분식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아이들이 혼분식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다.

⑤ 교감은 혼분식 운동 참여율을 그래프로 그려 체크하며 간접적 압박을 주었을 뿐 '나'에게 학습 생활 지도에 대해 질책하지는 않았다.

5 농사꾼은 종자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나'의 말을 토대로 보았을 때, 만수 할아버지가 직접 씨옥수수를 구워서 싸 주었을 리는 없다. 만수가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싹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6 <보기>의 '나'는 이 글의 '나'와 달리 만수의 동생이다. 만수가 무료로 급식 빵을 받게 된 것은 옥수수 종자를 도시락으로 싸 온 만수에 대한 '나'의 미안함 때문이며 동생의 생각이 아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보기>에서 만수의 동생은 점심시간 전에 수업이 끝나 집에 가기 때문에 급식이 나오지 않는 1, 2학년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는 만수 동생의 시점으로 만수가 무상 배급 빵을 받게 되었을 이 드러나 있다.

③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급식 빵을 동생에게 주려는 만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⑤ 이 글에서 '나'는 만수의 담임으로, 강압적인 지도를 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만수가 급식 빵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만수는 동생에게 자신이 담임 선생님께서 잘 보여서 급식 빵을 받는 것이라며 자랑하고 있다.

7 '나'는 강압적인 지도를 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만수를 무상 배급 대상자에 이름을 올려 주고, 남은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모두 만수에게 주었다. 그런데 달걀을 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만수와 만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 보겠다면 초심을 잃고 혼분식 운동 참여율에 집착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8 "맞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만수의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만수의 순수하고 어리숙한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 해학성이 드러난다.

103 세상에 없는 나의 집_ 금희 384~387쪽

키포인트 체크 조선족, 정체성, 연변, 인테리어

1④ 2④ 3① 4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5 인테리어를 통해 주인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6③ 7② 8② 9 중국 동포의 문화도 우리 문화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다양화에 기여한다.

1 '두 마리의 도롱뇽', '오리와 닭', '두 개의 완전수' 사이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 등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틀어보기 ① '봄이 거의 다가올 무렵', '아직 차가운 겨울의 공기가 텅 빈 집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등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만 특별히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작품은 과거형 어미를 통해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점을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닝도 가끔 내게 ~ 좋겠다고 부러워했다.'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㉔은 닝과 '나'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슷한 사고방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특성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닝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틀어보기 ① 택배 기사가 연주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으로 보아 연주의 중국어가 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한국 방송을 보며 분위기를 즐기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가 중국어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도 능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연주와 뿌리가 같은 한민족이기는 하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현실을 해석하는 시야가 다르다.

⑤ 닝과 연주를 만나며 닝과 같은 중국인도, 연주와 같은 한국인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

3 [A]에서는 '나'와 남편이 처음으로 장만한 집의 마감 상태, 정돈되지 않은 바닥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4 '나'는 닝과 연주에게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한 것에 대해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나'는 둘 중 하나만 구사해도 좋으니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 부분을 통해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5 '나'와 남편이 마련한 집은 인테리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은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이므로 그들마다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채로 분양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인의 개성에 맞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피집이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6 연길 여행을 통해 '나'는 옛 조선의 시골풍으로 자신의 집을 꾸미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이는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한민족으로서의 혈통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들을 조선족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아들이 중국인이 아닌 조선족으로 살아가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7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자행되는 이민족에 대한 차별 대우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틀어보기 ① 아무것도 없는 집에 자신의 개성을 담아 채우는 과정은 '나'가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한다.

③ '나'가 옛날 조선 시골풍의 인테리어로 집을 꾸민 것은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다시 찾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나'의 모습을 상징한다.

④ 확실한 비전이 있다기보다 확실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행을 결심한 연주는 처음부터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중국을 떠나기는 할 것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연주의 말은 자기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의 방황과 고민을 상징한다.

8 <보기>의 그림에서 중년 남성의 얼굴은 사과로 가려져 있다. 따라서 그

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다.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초현실주의 그림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닝이 그림의 모습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 역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중국 동포도 한민족이라는 큰 범주에서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로 된 중국 동포의 문학이 많이 창작된다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문학 작품만이 한국 문학이라는 좁은 범주에서 벗어나 한국 문학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 +

• 디아스포라문학(이산문학)

디아스포라 문학(이산 문학)이란 민족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이주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문학을 일컫는다. 그중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은 일반적으로 해외 한인 문학 혹은 해외 동포 문학을 일컫고 있지만 이는 작가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따라서 재일, 재미, 재중, 재러 작가의 작품과 해외 입양인 문학 그리고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주인공으로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의식이나 디아스포라 현상을 다룬 국내 작가들의 작품들도 광의의 이산 문학으로 볼 수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